



3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3호

(루계 389)



◆◆◆◆◆◆◆◆◆◆ 차 례 ◆◆◆◆◆◆◆◆◆◆

당 제 6 차대회를 혁명문학건설의 새로운 일대 양양으로 맞이하자!.....	4
그날의 천리길을 따라 (외 1 편).....	8
오가산의 령길	9
후치령	10
빛나라 봉화산	11
땅의 새 력사	12
충성의 한길을 이어가겠다	13
후대들을 언제나 한품에 안으시고	15
영원히 그 길을 따르렵니다	17
봉화탑의 봄	19
풍년가을 들길우에서	22
아름다운 저녁	29
당일군에 대한 생각	33
대오의 기수	34
다시 오지 않아도... ..	36
10 월의 대축전장으로	38
말없는 진정	41

내 먼길에서 돌아올 때	42
못잊을 모습, 못잊을 노래	42
다듬은 말	43
땅이여, 너와 함께	44
기쁨의 총계, 행복의 총계	45
다락발에 모닥불 타오르고... ..	46
행복한 네 모습은... ..	47
고향의 바다여 외 2 편	48
해 당 화	49
추 억	49
소중한 꿈	50
당일군의 혁명적풍모	56
철학적인 시를!.....	60
첫번째 편지	63
세월이 흐를수록	74
심장의 고동소리	76
넓어지는 땅을 두고	78

당 제 6 차대회를 혁명문학건설의 새로운 일대 양양으로 맞이하자!

지금 온 나라의 전체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심장으로 받들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장엄한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시고 당 제6차대회를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1980년대의 첫해이며 당 제6차 대회가 열리는 매우 뜻깊은 해인 올해를 가장 위대한 승리의 해로 찬란히 기록되게 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며 당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조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는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당 제6차대회를 맞이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정치사변이며 더없이 큰 경사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당 제6차대회를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영광스럽고 뜻깊은 명절로 긍지높이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서는 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다.

당 제6차대회를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례없는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 나라가 높은 혁명적열정과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게 하며 온 나라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불도가니마냥

들끓게 하자면 당사상전선의 일익을 담당한 혁명문학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며 혁명적 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며 혁명적문학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전백승의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혁명작품을 최상의 사상예술적수준으로 창작하는 사업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야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의 문학예술작품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얼마나 잘 보여 주는가에 따라 그 당성이 평가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형상해야 우리 인민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 열렬한 주체의 혁명가로 키우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노래하는 우렁찬 목소리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온 세상에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과 불멸의 업적을 훌륭히 형상하여 온 세상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주체의 조국》에 태어나 혁명하는 우리 작가들의 더없는 행복이며 영광이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데 최대의 충성심을 다 발휘해야 하며 이 사업에서 문학사에 기록할 혁신적성과를 많이 이룩해야 할것이다.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며 혁명적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감동깊게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의 가슴속에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깊이있게 심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이것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우리 인

민의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혁명적품모이며 우리 혁명의 중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문학은 마땅히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면서 그것은 수령님께서 인민에 대한 탁월한 정도와 은정어린 사랑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력사일 뿐아니라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한 충성심으로 아로새겨진 숭고한 력사라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바로 혁명전통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내용을 이루고있다는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항일유격대원들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품모로 되였으며 불사조와 같은 기적과 용맹을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백두밀림에서 싸우던 항일의 선렬들처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도 언제나 충성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형성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주체형의 당일균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로동당의 전위투사들인 당일군들은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숨쉬고 행동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기수들이며 충실성의 구감들이다.

우리 문학은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일뿐아니라 수령님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따듯이 이끌어주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라는것을 실감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올해에 새시대의 인간전형인 당일군과 함께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내놓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당이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 창작에서도 로동계급적선을 세워 로동계급을 형상하는데 더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을 형상하는데서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 가장 혁명적인 계급일뿐아니라 가장 문명한 계급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로동계급이라고 하면 의례히 성격은 투박하고 무뚝뚝하며 말씨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형상하던 낡은 사회의 미학관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방침은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자는것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은 사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문화생활에서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온 사회가 그들을 본받게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문화란 다른아닌 로동계급의 문화다. 로동계급의 선진문화는 도시에서만 창조되는것이 아니라 공장, 광산 등 로동계급의 대집단이 있는데서 창조되어야 한다. 로동계급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은 마땅히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과 당의 요구에 맞게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함께 문화성도 잘 보여주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숨은 영웅들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숨은 영웅이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직 한 마음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 소문없이 큰 일을 한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말한다. 조국과 인민 앞에 커다란 위훈을 세우고도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곳곳이 일해나가는 숨은 영웅들의 형상은 우리 작가들의 심금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이 보진말건 그 어떤 조건타발도 없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성실히 일해온 숨은 영웅들이야말로 우리 문학이 내세워야 할 새시대의 전형적 주인공들이다.

우리 작가들은 숨은 영웅의 성격창조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형상할 뿐 아니라 당정책관철에서의 주인다운 태도와 높은 책임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불타는 탐구적열정, 온갖 낡고 침체한것과의 비타협적투쟁정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무한한 헌신성, 자기 사업에 정통하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전면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당적,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벌어지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에 더 힘있게 이바지해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된 우리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나온 보람찬 공산주의적 혁신운동이며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거대한 서사시적화폭이다.

그런만큼 우리 작가들은 숨은 영웅들의 투쟁과 위훈을 탐구형상하며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

라 배우기 위한 전당적, 전사회적 운동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체득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하나의 심각한 사상혁명과정으로 되게 할뿐아니라 우리 문학을 혁명적문학의 새로운 높이으로 올려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온 나라를 충성의 열정과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며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에서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신속정확히 반영해야만 당정책관철을 위한 근로자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당은 지금 당대회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힘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이룩하는 열쇠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장들에게 나가 자신을 단련하는 한편 직접적인 로력투쟁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예선전활동으로 근로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모든 일터가 충성의 열정과 랑만으로 끓어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특히 채취공업과 수송건설, 대외무역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과 기술혁명을 다그쳐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알곡 9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과 이르는곳마다에서 강하천들에 언제를 쌓고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모습을 적극 형상해야 한다.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며 혁명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키는데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작품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기념비적작품으로 될수 있으며 당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될수 있다.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키는데서 현시기 우리 문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이다.

다 읽고난뒤에 사색할 여지가 없고 뒤대사가 느껴지지 않으며 읽을 때뿐이지 여운이 없는 작품은 결코 근로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으며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기념비적작품으로 문학사에 기록될수 없다.

작가들은 누구나 사상예술성이 가장 훌륭히 결합된 충성의 작품을 당대회에 선물로 드리기 위하여 분발해야 할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작가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혁명적작품창작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작가들은 올해에 가사 한편을 써도 명가사를 쓰고 서정시 한편을 써도 주옥같은 서정시를 쓰며 한편의 단편소설을 써도 전사회적으로 떠들썩하며 실효투쟁의 무기로 될수 있는 문제작을 쓰고 장편소설을 쓰면 마땅히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작품으로 될수 있게 결작으로 써야 할것이다.

작가들에게는 없어도 아쉬하지 않고 있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무난한 작품을 쓸 권리가 없다.

작가들은 오직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좋은 작품을 써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주체문학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책임감을 지니고있을뿐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훌륭히 결합된 문학작품을 창작하며 혁명적문학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담당자들인 작가들이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작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우리 문학이 현재 도달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 어려우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갈수 없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정치학습을 잘해야 한다.

작가들이 정치학습을 잘해야 시대정신을 옹게 체득하고 모든 사물현상을 혁명적관점에서 보고 예리하게 판단할수 있으며 현실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히 밝혀낼수 있다.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은 참으로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꽃

피우는 창작의 전과정에 그대로 작용하는것만큼 언제나 정치사상적준비에 선작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하며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 방법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작가들은 정치학습을 강화하여 높은 정치적인식견과 안목을 소유하는 동시에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생활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해야 한다.

작가들은 결코 하나를 안고 그 하나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100을 알고 하나를 가르치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가들이 아는것이 많아야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상식적인 세계에 맴돌지 않고 하나의 문장을 써도 뜻이 깊게 써가 먹게 쓸수 있으며 하나의 대사를 써도 뒤대사가 느껴지게 웅심있게 쓸수 있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전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취급하기때문에 거기에는 작가의 정책적식견과 생활에 대한 지식이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작가들은 인민들이 문학작품을 낫잡이나 자는 대신에 심심풀이로 읽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보통사람들의 고매한 정신에 배우기 위하여 읽는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될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각 방면의 지식을 풍부하게 소유해야 하며 그래야 3대혁명이 심화되는 현실의 요구와 지성도가 높은 현대인들의 요구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이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현실체험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토양인것만큼 작가들은 언제나 근로자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과 생활현상을 폭넓고 심오하게 종합적으로 체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창작적기량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실이 문학의 원천으로, 형상의 바탕으로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옮긴다고 하여 곧 작품이 되는것은 아니다.

작가가 아무리 현실생활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았다 하더라도 창작적기량이 딸리면 그

을 형상으로 감동깊게 꽃피울수 없다.

창작적기량은 작품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런것만큼 창작적기량은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것이며 작가의 자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작가들은 창작적기량을 위하여 일생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애써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높이며 혁명적문학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언제나 창작적사색을 깊이할줄 알아야 한다.

철학적심도가 있는 작품은 언제나 깊은 창작적사색을 전제로 한다. 창작적사색이란 그 어떤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높은 정치적인안목과 결부된 사색이며 사회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태도, 과학적사고방식에 엄격히 기초한 사색이다. 정책적견지에 서서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지 않고 무난히 쓰는곳에서는 이렇다한 시대의 대표작이 나올수 없고 후대에 길이 남길만한 명작이 나올수 없다.

작가들은 자신이 주체문학의 건설자라는 높은 정치적자각과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를 잊지 말고 언제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며 쉽없이 체험하고 독서하며 창작해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작품창작사업과 학습, 정치조직생활과 문화생활을 언제나 밀접히 결합시켜 조화롭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에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모두 당대회에 뽕뽕이 드릴수 있는 충성의 선물로, 로동당시대를 장식하는 기념비적결작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우리 문학발전의 가장 빛나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혁명적학풍과 전투적창작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작가들은 소설, 시, 아동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그리고 혁명적대작으로부터 아담한 형식의 단편작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형태에 걸쳐서 일대 창작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가장 보람있게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전체 작가들이여 !

당 제6차대회를 주체문학건설의 새로운 일대 양양으로 맞이하기 위한 충성의 창작전투에 한결 같이 떨쳐나서자!

그날의 천리길을 따라 외 1 편

리선을

산발엔 아직도 흰눈이 희속희속
찬바람 옷깃에 스며드는 길목마다
뜻깊은 그 이야기로 빛나는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수령님께서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눈보라속 걸어오신 길을
나는 지금 반백나이
하늘같은 행복을 안고
이 길을 간다

붉은넥타이 날리는 아이들과 함께
이 세상 첫걸음 때는 그 마음으로
그이께서 걸으신 유서깊은 자욱을 따라
그날의 천리길 따라
나는 간다

조국의 품에서 자라
분여지에 첫씨앗을 묻고
락동강 천리불속도 뚫고온 옛병사
어느덧 머리엔 흰서리도 내렸나만
수령님을 받드는 충성의 길에서는
내 언제나 티없이 맑은 어린이 마음

아이들아,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군기를 메고 행군길을 걷던
옛병사시절의 추억도 새로와

온몸엔 청춘의 새힘 솟는다

가자, 천리길
한고개 올라서면 또 한고개
검정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짓밟힌 조국땅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그날의 모습
다시 뵈옵는듯

빼앗긴 땅
찬바람에 설레는 한그루 나무에서도
보금자리 잃고 헤매이는
구슬픈 날새의 울음소리에서도
비통한 조국의 운명을 가슴에 새기시며
두주먹 억세게 쥐시던 근엄하신 모습

그 모습 우러러
소년단기 앞에 날리며
나는 그뒤를 따르거니
아, 아이들아
수령님을 배우는 이 길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한동갑나이

나는 간다, 그날의 천리길 따라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리신 나이에 걸으신 이 길
내 삶을
빛나는 이 길에 이으며 간다
가도가도 끝없을 한생의 이 길을-

오가산의 령길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우고
가도가도 인척기 하나 없는
오가산 깊은 산길을 걸으며 생각한다
눈보라 찬바람 불을 치는 직고개
험한 령길을 넘으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 깊은 산길에
이 험한 령길에
봄도 아닌 사나운 겨울날
어리신 원수님을 홀로 보내신
선생님의 그 높은 뜻을 새겨안을수록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온다

아 철창과 가시덤불길 헤치시며
청춘도 생명도 자신의 모든것 다바치시며
한생을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워오신
김형직선생님 !

조국이란 것처럼 큰것이였구나
자신의 한생을 바쳐가시는

그 간고한 해방의 길우에
귀하신 아드님을 대를 이어 세우셨거니
조국이란 정녕 것처럼 큰것이였구나
오늘은 가없이 푸르른 저 하늘과
해마다 풍요한 이삭 끝없이 설레이는 이 땅
꽃피는 행복속에 다는 미쳐 몰랐던
이 나라의 귀중함이 더없이 가슴에 젖어드는
오가산의 험한 령길이어

선생님께서서 것처럼 바라시던 조국
그 높이신 뜻을 안으시고
혁명의 머나먼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서 조국은 태여났어라

아 이 조국의 한복판길을 내가 간다
그날 천리 한끝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 빛내여가시는 내 조국
그 소중함에 한없이 가슴뜨거워
한줄 흙에도 몇번이고 불을 비비며-

후치령

서봉제

령길 굽이굽이
후치령 굽이굽이
나무잎 푸르러 무성하니
이제라도 오실것만 같아
기다려지는 마음

타는듯
노을이 비끼니
나라 찾고 다시 오마하신 약속
저기 령길우에 남아있어
그리워 불러보는 김형권선생님이시여

그날의 산촌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끝없이 울리는 행복의 노래소리
오늘도 선생님의 불같은 마음을 담아
그칠줄 모르는것인가

너무도 가슴저린
강산의 아픔만을 새기시고
여기 령길을 넘으셨구나
통나무사태에 묻히여
사나이들 토장에서 쓰러지고
굶주려 숨진 어린것 품에 안고
목놓아 땅을 치던 녀인들의 통곡소리

사무친 그 원한
참을길 없어
힘있게 옮기시던 걸음걸음
장군님 안겨주신 총을 높이 드시고
여기 파발리의 어두운 골안에
멸적의 불을 올린신 선생님

어찌하여 오시자
그렇게도 서둘러 떠나시였던가
령길 굽이굽이
따라서는 겨레들의 가슴가슴에
이제 나라 찾고 기어이 다시 오마
그날에 남기신 약속

아, 흰 농립모 날리시며
령길을 넘으시는 선생님께
여기 로은천의 맑은 샘
한그릇 정히 드리지 못한 마음
오늘은 우리의 소원으로 남았구나

한없이 은혜로운 태양아래
고원의 산기슭에 타는 과일꽃
해빛밝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선생님 가신 고개 바라보니
뜨거움에 목메이는 후치령이여 !

아, 세월은 흘러도
동해의 파도치는 기슭에
혁명의 총성으로
남기고 가신 뜻
후치령에 노을로 불탄다

오늘도 선생님을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이 가슴에 더 높이만 솟아오르는
후치령 후치령은
어버이수령님 받드는 충성의 높이우에
언제나 우리들을 세워주고있구나!

빛나라 봉화산

문재건

산이 높아 골이 깊어
그 이름 높은가
산이 좋아 경치 좋아
사람들 끝없이 찾아오는가

봉화산, 봉화산
머리들어 바라보면
생각도 깊어지고
자옥자옥 옮기는 걸음마다
뜨거움을 안겨주는 봉우리

찬이슬 찬서리 헤치시며
력사의 새벽길을 걷고 걸으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그 위업
저 넓은 바위터에
력력히 새겨있고
선생님 우러러 달려오던
조선국민회 회원들의 그 불타는 마음
푸른 숲에 어리어 설레이나니

세월의 년륜을 두르고 또 두른
아름드리 저 소나무는
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 안고
만경봉의 소나무와 더불어
저리도 푸르러 설레이는가

선생님 산정에 오르시여
구름덮인 저 멀리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남북삼천리를 굽어보시며
강도일제를 때려엎으실
높으신 뜻 펼치셨나니

그날
왜적의 칼에 찢겨

피흘리는 겨레와
몸부림치는 강토를 한품에 안으시고
선생님 그 불타는 애국의 마음
봉화되어 높이 솟구쳤던가

선생님 지퍼올리신
조선국민회의 봉화따라
애국의 마음들이
천만 산줄기 되어 굽이쳤거니

조선국민회의 투쟁의 불길을
노을로 펼쳐드시고
조선의 넋을 억세게 지키신
그 불굴의 의지
이 기슭, 이 산정에 력력하여
그 이름 높아라 봉화산

조선은 조선사람들의 손으로
기어이 나라를 되찾고야말리라
그 신념 봉화되어 떠오른 봉화산
아,
여기에 올라서면
선생님의 높으신 뜻
가슴속 뜨거이 안겨오고
선생님의 깊으신 뜻
가슴속 혁명의 신념을 안겨주기에
언제나 높이 우러르는 산

찬란한 주체의 꽃 만발한
락원의 이 강산에
언제나 높이 솟아
온 누리에 빛나라
조선의 산 봉화산
력사의 산 봉화산!

땅의 새 역사

리동후

맑은 하늘가에
우짚는 종다리
물오른 버들방천에
시내물소리 정다운
봄
해방된 강산에 찾아온
첫봄

땅을 분여받는 고마움에
새벽부터 흥성이는 성문마을의 아침
꿈만같이
정녕 꿈만같이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동구길에 들어서시는
아,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여 !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 소리
농민들의 평생소원 풀어주신
그 은혜만도 하늘같은데
그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시려
땅을 나눠주신 그 걸음으로
이 먼 고장까지 찾아주실줄이야

자애에 넘치신 그이 앞에
천만마디 말을 대신해
온 마을 농민들이 아뢰이는 감사의 정은
오직 《장군님!...》 그 한마디뿐

아, 눈시울 적시며
환희로 들끓는 감격의 파도소리여
기나긴 세월
오매에도 뵈고싶던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부르고 부르는 만세소리여

눈깊은 백두의 산발을 넘나드시며
근저지 농민들에게 안겨주시던
그 사랑
조국광복회 10 대강령에 구절구절 새기시던
세기의 그 속망을
해방된 이 땅에 활짝 꽃피워주신
아버이 수령님

땅을 받은 농민들과 기쁨을 나누시며
터갈리고 멍이 진 로인의 손에서
이 땅에 흘러간 수난의 역사를 더듬어보시며
분여받은 땅우에
친히 표말을 박아주시여라

땅때문에 머슴을 살았고
땅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설음
대를 이어 피눈물로 밭고랑을 적시여도
죽어물힐 한치땅이 없었던 그 원한
가슴의 멍어리 다 풀어주시는
아버이 은혜로운 그 손길-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두손으로 표말뚝을 더듬어안은
로인의 그 마음에
《땅은 영원히 농민들의것입니다.》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시며
쿵쿵 대지우에 표말이 내려지는
장엄한 메아리여

그것은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세상에 높이높이 세워주시며
이 땅우에 흘러온 피눈물의 역사우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선언이었어라

그것은 땅과 농민의 운명을
하나로 이어주며
무궁한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시대의 메아리
이 땅 이 조국을 영원히 받들어나가도록
대지우에 깊이 내려진
삶의 뿌리였어라

아, 토지개혁의 날, 경사로운 그 아침에
수령님 찾아주신 사랑의 자욱이여
땅도 사람도 새로이 태어난
이 나라 땅의 새력사는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어라
은혜로운 아버지사랑의 품속에서
땅의 영원한 봄이 꽃피었어라

충성의 한길을 이어가겠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2 부)를 읽고-

얼마전에 나온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2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밝히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에 충성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조선공산주의자의 참다운 정신도덕적풍모와 불굴의 의지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인류력사의 기나긴 세월,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갈망하여 저마다의 각이한 길을 걸었고 참다운 진리와 해방을 위하여 갈래많은 투쟁의 길을 걸었다. 그길에서 시련에 찬 력사는 흘러갔고 시대는 한걸음한걸음 전진해갔다.

그러나 참다운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인 사람들은 그 얼마이며 값없이 흘러간 삶이 또 얼마인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읽으면서 나는 가장 위대한 시대의 빛나는 력사와 이 력사의 길우에 새겨진 충성의 자욱자욱을 숭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걸으신 길-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나 쉽게 걸을수 없었던 가장 위대하고 영광에 찬 투쟁의 길이었으며 력사에 길이 빛날 충성의 한길이었다. 그이께서 걸으신 길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개척하신 영광찬란한 주체의 한길이었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 어싸운 혁명의 참된 길이었다.

실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고귀한 투쟁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다.》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저녁노을이 불탔다. 하늘에도 불타고 땅에도 불탔다. 조국을 찾는 성전에 뿌린 피빛이 하늘땅에 장엄히 물들었다.

혁명군들은 혈전이 벌어졌던 대남문 소남문쪽으로 밀려들어갔다. 녀대원들은 경위중대원들과 함께 장군님을 모시고 소남문거리로 들어갔다. 모두 군복잔등에 아니 어깨팍까지 땀이 폭 내뿜었다.

김정숙어머님, 분임이, 복녀, 금실이, 국금이, 금옥이, 영애, 수월이, 순옥이 다들 얼굴들이 붉게 타고 숨엄해진 기상들이였다...

이처럼 장편소설의 마지막 한 장면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따라 한결같이 걷는 충성의 대오를 뜻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갈피갈피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마음으로 높이 모시는 김정숙어머님의 혁명가적풍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모진 고난을 이겨내면서 역세게 싸우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형상은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하여준다.

반《민생단》투쟁의 무시무시한 반혁명의 물갈기가 밀려들어 애꿎게 희생된 차승도를 두고 이처럼 가슴아파하시는 김정숙어머님,

마용대, 한용길들이 혁명의 배신자들의 악랄한 음모책동에 의해 《민생단》으로 몰리게 되자 이 일을 빨리 장군님께 말씀올려야겠다고 결연히 나서시는 김정숙어머님, 김정숙어머님께서 공청원들을 발동시켜 혁명대오에 은밀히 잠입한 일제의 악착한 주구 조택구놈을 잡아내시였다. 시련을 무릅쓰시고 인내성있는 설복과 교양으로 녀성들을 묶어 세우신 술기막골의 부녀회조직, 내두산전투, 온갖 시련을 박차고 자신께서 직접 살벌한 적구에 들어가시어 위험에 처한 금실이를 구원해내 오신 김정숙어머님, 실로 보통사람의 심장을 가지 고서는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어렵고 준엄한 시련의 길을 혁명적인 의지와 철석같은 신념으로 헤쳐나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형상이 매 글줄과 구절마다에서 독자들의

가슴을 격동시켜주고있다.

무시무시한 반 《민생단》 사건의 회오리바람이 엄습하여 수많은 혁명동지들이 《민생단》의 루명을 쓰고 창고에 갇혀있을 때 일신상의 위험은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쌀을 내다 밥을 지어 그들에게 날라다주실 때 《내 후에 장군님을 뵈오면 이 목이 메는 일을 죄다 말씀드릴테요. 정말 정말》 하고 결연히 부르짖는 광경, 창고에 갇혀있는 마용대를 비롯한 수많은 혁명동지들이 격정에 싸여서 밥덩이도 받지 못하고 한손으로 몰래 벽을 뚫은 구멍을 거머쥐고 꼭꼭거리며 우는 장면은 눈물없이 읽어나갈수 없다. 더더욱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는것은 그 다음 장면들이다.

별안간 콩볶는것 같은 총소리가 울리고 등성이 위로 넘어갔던 기병의 떼가 대가리를 솟구며 연방도로 뛰어넘어오자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짚수세기를 물에 추가시여 포아리를 만든다음 부글부글 끓는 죽가마를 헹하니 들어 머리우에 올려놓고 종종걸음을 치셨다. 머리우의 젖은 포아리에서 찌르르르 소리가 나며 김이 날렸다. 귀밑으로 총알이 뽕뽕 소리를 내며 지나갔으나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것이 죽이었던것이다. 머리우의 가마에선 김이 풀풀 날리었고 땀과 목으로도 땀줄기가 섰지만 그이께서는 더 이악스레 가마밑불을 거머쥐고 고무신속의 발끝을 박아디디며 걸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초인간적인 힘으로 죽가마를 구원했고 그 죽을 혁명동지들에게 나누어주신다.

한동길을 비롯한 대원들은 죽방울이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죽가마를 들여다보며 그것은 죽이 아니라 눈물이 덩어리진 약이라고 목메여 가슴을 적신다. 그들은 누룽누룽 타버린 짚수세기를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청책임자인 김정숙어머님께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근거지 아동을 크게 확장해나가기였고 학교에서 자체로 복이며 나팔을 만들어 농악이 울리게 하시였다.

근거지에 봄을 안아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나팔을 달아주시려고 김정숙어머님께서 아글타글 애쓰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오매에도 그리고 그리던 장군님께서 삼도만에 오시였다.

삼도만에 머무르신 장군님께서 아동을 학교에 걸 칠판을 어깨우에 올려놓으시고 성큼성큼 걸어 가시는것을 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장군님의 어깨에 무게를 받지 않으시게 따라나가시며 부축 하시였다.

장군님을 옹위하는 길에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실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는 김정숙어머님이시기에 칠판의 무게까지 가상하시며 장군님께 쏠리는 짐을 자신에게로 돌리려 하시느것이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곤난이 겹겹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오직 장군님만을 그리시였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의 한길을 따라 곳곳이 걸어 나가신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장군님에 대한 생각을 잊으신적 없으셨으며 장군님께서 계시는데만 알면 천리만리라도 달려가 만나뵈옵고 가르치심을 받고싶으시여 늘 심장으로 우러르곤 하시였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독자들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매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그대로 안겨주고있다.

소설을 다 읽고도 어쩐지 손에서 책을 놓고싶지 않고 또다시 두번 세번 읽게 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투쟁모습이 눈앞에 그대로 생생히 밝혀오기때문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걸으신 충성의 한길을 따라 우리 인민은 걷고있으며 또 영원히 이 길을 갈것이다.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충성의 한길을 더듬는 나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만진다. 주체형의 인간들이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는 이 길-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우리의 투쟁은 빛날것이며 우리의 행복은 꽃피날것이다.

작가양성반 김 동 호

후대들을 언제나 한품에 안으시고

얼마전에 나온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 2부)를 저는 몇번이나 거듭 읽었는지 모릅니다.

작품은 열렬한 혁명투사이시며 건결한 공산주의자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고정된 형태의 유격근거지들을 해산하고 광활한 지역으로 진출하던 시기 한해남짓한 어간에 펼치신 혁명활동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술기막골과 내두산에서의 투쟁들을 거쳐 마안산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기까지의 김정숙어머님의 영상을 저는 숭엄한 마음으로 우러러볼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어느 장면이나 어느 갈피를 번저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으로 수놓인 뜻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들 어린이들이 무력무력 잘 자라서 새 조선의 새 기쁨을 가져오는 훌륭한 조선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인 저는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키워내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더없는 깊은 감명속에 읽었습니다.

실로 혈전의 만리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으시고 어린이들을 키워내시는 일이라면 한몸을 아끼시지 않은 김정숙어머님이시였습니다. 비록 고난이 중중첩첩 앞을 가로막아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후대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 주신 크나큰 사랑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있습니다.

더우기 김정숙어머님께서 갖은 박해와 위협 앞에도 굴하심이 없이, 혼란에 빠졌던 삼도만의 아동단사업을 수습하시고 옹바르게 이끌어나가시는 대목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세게 치는것입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멀리 북만원정을 떠나신 틈을 리용하여 삼로만에서도 혁명대오를 삼삼오오 분렬시키는 악행을 일삼던 혁명의 배신자들로 하여 아동단사업에도 커다란 혼란이 빚어지고있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아이들만이 아동단에 들어 생활할뿐, 거기에서 제외된 많은 아동들은 억울한 루명을 뒤집어쓰고 박해와 멸시속에서 지내고있었습니다.

적잖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현위란자의 그릇된 로선때문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무서워 말을 못하고 멍종하며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일신상에 덜칠 위험도 무릅쓰시고 사태를 수습하시기 위하여 과감하게 나서시는것입니다.

두려움때문에 멍종멍동하는 사람들을 타이르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사리정연한 말씀은 지금도 귀전에서 울리는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길러서야 되겠어요? 편이 갈려서 싸우게말예요. 아이고 어른이고 한덩어리로 뭉치라는게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이예요. 온 민족이 한덩어리로 뭉치라는게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이예요. 온 민족이 한덩어리로 뭉쳐야 왜놈을 내쫓구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그런데 아직은 어린애들이니까 이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고 단합시키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할수 있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교양반구 어떻게 자라거나 마구 내 깔려들수 있겠어요?》

그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 한마디로 문제가 다 풀리기에는 현위란자의 마수가 너무도 일군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존재로 자리잡고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우유부단한 립장을 바로세우시며 기어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시고야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김정숙어머님께서 아이들모두를 아동단에 받아들이시여 하나의 대오로 묶어주시고 경비서는 방법을 비롯하여 주구나 밀정을 붙잡는 방법, 순찰하는 방법 등도 배워주시며 성격검토회도 조직해주시는 한편 그들을 야학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혁명의 당당한 후비군으로 자랄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실로 아동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전사로 키워내는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심혈을 다 기울이신 김정숙어머님이시였습니다. 내두산에 머물러계신 그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조차 마을에 학교를 내오시고 그 고장 아이들과 쑥바치에서 찾아온 아동단원들을 공부시키신 일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가 있습니다. 구식서당을 하나 마련하여놓고 한문과 봉건적인 도덕률리만을 가르치던 마을에 새형의 학교를 내오는것부터가 얼마나 간고한 로정이었습니까. 봉건사상이 골수에게

지 배여있는 마을늬는이들의 완고성을 돌려세워 학교를 내온다는것은 실로 이만저만 어려운 과정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곳이면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겠다는 김정숙어머님의 결심은 그 누구도 흔들어놓을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마침내 마을에는 학교가 나왔으며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글공부도 하고 혁명의 원리도 배우고 군사훈련도 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함으로써 미래의 튼튼한 유격대원들로, 투사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것들을 길러주시는 길우에 뿌리신 친누이나 친어머니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께서는 굶으시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것들을 위하여 수십리길을 걸으시며 만문한 나물과 풀들을 캐어오시는 사랑, 피곤으로 덮치는 행군길에서도 잠자는 시간이면 갈개는 어린것들의 잠자리들을 돌보아주시고야 잠자리에 드시는 어머님사랑, 어린것들의 신에 눈이 들어갈새라 털어주시고 발에 물집이 생길새라 성냥으로 딱충도 놓아주시고 약솜을 붙여 손수 버선과 신을 신겨주시기도 하신 깊은 사랑, 어느 어린이가 앓기만 하면 좀체로 결을 떠나실줄 모르는 친어머니 사랑...

이런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처럼 후대들을 사랑해주신것으로 하여 후대들로부터 더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는 이야기들은 또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그리잡는것입니까.

《우린 대구대구 내두산만 찾았어요. 나무껍질도 벗겨먹구 풀뿌리도 파먹구 하면서... 누나 보구 퍼 영영 울면서 왔어요...》

이것은 술기막골에서 헤여진후 쑥바치에서 따로 지내다가 왜놈들에게 《토벌》의 재난을 당하고 내두산으로 찾아온 아동단원들이 김정숙어머님의 품에 안겨 울면서 말하는 진심의 토로였습니다. 술기막골에서 헤여질 때에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자기들이 가있을 쑥바치로 언제 찾아오시겠느냐고 따지고들던 아동단원들이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누나(김정숙어머님)가 보구과 죽을번했노라는것을 저마다가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면 저마다 아동단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겠습니까.

그토록 후대들과의 사업에 공을 들이는 김정숙

어머님이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나시는 때마다 그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삼도만에 오셨을 때에도 혁명의 배신자들로 하여 극단한 혼란상태에 빠져있던 아동단사업을 바로잡으신 김정숙어머님의 눈부신 활동을 평가하시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삼도만에서도 봅시다. 김기도, 오상묵이 같은놈들은 우리 어린것들의 가슴에 못을 박자고 그렇게 발광했지만 결국 여기서도 밝은 눈과 혁명에 대한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한 동무들에 의하여 아이들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가 랑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안산에서 김정숙어머님을 만나셨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누나(김정숙어머님)를 뵈고싶어 애타하던 아이들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리시며 그 아이들더러 앞으로 총을 메고 싸워도 그들을키우느라고 수고한 누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이였습니다.

진정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하신 뜻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린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워주신 혁명의 어머님이십니다. 하여 그 품속에서 자라난 수많은 새 혁명투사들이 일제를 무찌르는 싸움에서뿐만아니라 오늘도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바쳐싸우고있다는것을 생각하면 어머님에 대한 경모의 정과 그리움은 더욱 새롭습니다.

한창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혁명력사를 가르칠 의무를 지닌 저는 혁명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읽고 후대들에게 돌려주시던 김정숙어머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었으며 바로 김정숙어머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후대들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더욱더 튼튼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올해에 졸업반을 담당한 저는 꼭 어머님과 같은 높은 책임성과 사랑을 가지고 40여명의 학생들을 돌봐주어야 하며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낼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보통강구역 대보고등중학교

교원 류명근

영원히 그 길을 따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처럼 깊은 감명을 가지고 읽은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그이께 끝까지 충성 다하려는 우리 인민에게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됩니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모습을 생동한 생활화폭속에 높이 모서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의 전형적형상을 훌륭히 창조했습니다.

저는 작품에 모서진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 혁명전사들이 자기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따르며 충성 다해야 하는가를 심장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어머님에게 있어서 수령님을 위하는것은 곧 투쟁과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이 끝없는 충성심은 무엇보다도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피어린 투쟁속에서 표현됩니다.

...술기막골까지 가는 길은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술기막골에는 과연 어떠한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다. 하지만 몸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첫과업을 반드시 훌륭하게 해내고야말테다...

이것은 요영구회의 방침에 따라 해산된 상촌유격근거지 혁명군중을 보위할데 대한 장군님의 과업을 받고 술기막골로 인민들을 이끌어가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마음속 웨칩니다.

삼도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고 첫 과업을 받으실 때에는 어떻게 되어 이처럼 장군님앞에서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과업을 받아안은 영광을 지니게 되었을가 하는 감격으로 목이 메시던 김정숙어머님! 이동하는 인민들이 고통이 없이 떠나가도록 조직사업과 보위사업을 잘해야 하겠다고 정숙동무가 가게 되면 상촌근거지문제

이 받들어 안으셨기에 술기막골과 내두산에서 일제의 악착한 《토벌》과 굶주림, 스산한 반혁명의 광풍속에서도 혁명군중과 근거지를 끝까지 지켜내셨으며 장군님의 해살이 되고 혁명의 강보가 되시여 쓰러지는 한사람 한사람을 끝까지 장군님 품으로 안아가셨습니다. 술기막골에서 원썬들에게 생떼같은 아버지질을 잃고 쓰러져 오열을 삼키는 차웅도회장의 두 딸을 한품에 안으시여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모습, 반 《민생단》 투쟁의 좌경적후파의 파도가 술기막골에까지 덮쳐들어 남편과 시동생을 잃고 죽어도 혁명을 하겠다고 아이마저 버리고 온 음전아주머니를 삼키려 할 때 주저없이 뛰어들어 건져내시는 모습, 《민생단》에 몰렸던 회섭이가 죽은줄만 알고 근거지를 뛰쳐나 허허벌판을 헤매다가 원썬들에게 잡혀 갇은 고문을 받고 숨져가는 금실이와그의 언니까지도 구원해오시는 장면들은 참으로 눈물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난날의 자기 처지와 겹쳐뜨는 곤난앞에 시들어가는 분임이를 곳곳이 일으켜세우시는 김정숙어머님! 그이께서는 이렇게 근거지인민들모두를 끝까지 장군님의 전사로 세워주시기 위해 눈뜨고 볼수 없는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셨으니 그이의 가슴속에 불타오른것이 과연 무엇이였겠습니까.

...아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께서 지금 어느 곳에 가 계실가. 어느 근거지에 가시여 인민들이 굶지 않는가 헐벗지 않았는가 근거지를 떠나서 이제는 발을 붙이고 살게 되었는가 한시도 심려를 못놓으실 장군님...

삼도만에서 헤어지실 때 장군님께서 제일 걱정하신것이 이 술기막골로 가는 의지가없는 인민들에 대한 문제라는것으로 모두 곤난을 물리치며 애쓰시는 김정숙어머님! 또한 김정숙어머님께서 꾸려내신 첫 녀성무장대오, 분임이, 복녀, 금실이, 국금이, 금옥이, 영애, 수월이, 순옥이... 이들은 정녕 김정숙어머님의 피타는 노력과 보살피심속에서 장군님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것입니다.

이들을 하나 하나 손잡아이크실 때에도 김정숙어머님의 가슴속에는 우리 조선녀성들같이 불쌍한 녀성은 없다고 하시면서 녀성문제를 생각하실 때마다 가슴속에서 눈물이 흐르신다고, 이런 불쌍한 녀성들을 죄다 깨우치고 들어일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게 하라고 가르쳐주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아픔을 지우려 녀성들을 싸울수 있게 만들자는 안타까우신 생각으로 가시는곳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며 부녀회도 조직하시여 유격대를 돕게 하시고 총쏘는 법까지 가르쳐주시여 마침내 자기들의 손으로 원썬을 죽치게 무장을 쥐여주십니다.

그리하여 근거지의 모든 사람들이 《근거지누나》가 아니라 《근거지의 어머니》로 부르고 싶어합니다. 김정숙어머님의 이 뜨거운 동지적사랑은 바로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의 해살이였습니다.

능지영에서 일체의 주구이며 종파주의자인 김기도, 오상목일당의 반혁명적책동으로 《민생단》에 몰려 사경에 처하였던 수많은 혁명동지들을 구원하시고 삼도만에 가시여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여독으로 버림받던 수많은 아이들을 아동단에 받아들이시였을 때였습니다. 북만에서 돌아오신 그립고그립던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분에 넘치는 치하와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시면서 장군님께서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문제가 바로 사람들 문제, 특히 혁명전사들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는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께서 이미 수많은 혁명가들을 구원해내시고도 장군님의 사상을 좀더 미리 알고있었다라면 장군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할 일을 조금이라도 더 막을수 있지 않았을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숙동무가 큰일을 하셨다고 아주 잘 싸웠다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그것은 진짜 혁명가의 눈과 심장이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김정숙어머님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시고 더 높이 이끌어주시분은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이시였습니다.

참으로 혁명전사들을 뜨겁게 안아주시는 장군님의 사랑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모시는 전사의 충성심! 그것은 하나의 개념으로만 생각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렇듯 숭고한 충성심을 지니신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적세계관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에 와서까지 귀중한 모든것을 다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이 스스

로 택한 길-장군님을 따라 혁명하는 길을 걷는 과정에 투쟁속에서 다져진 생활적신념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잃어버리고 오빠마저 원썬들에게 희생되었으니 잃어버린 온 가족의 념원을 걸머진것이 바로 이 길이였습니다. 능지영과 삼도만, 상촌과 술기막골에서 가로막아서는 중중첩첩한 난관을 뚫고 이 길을 걸으시는 과정에 그이께서 배우신것은 바로 영원한 광원인 태양을 떠나서 빛나는 별을 상상할수 없듯이 장군님의 찬란한 해발을 떠나서 혁명전사의 참된 삶을 생각할수 없다는 신념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동강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면서도 장군님의 작식을 말아안으시고 때거리가 변변치 않아 안타까운 눈물을 짜시였고 장군님의 작식에 쓰는 우물주변에 나무가지와 풀대들로 표적을 해놓으시고 살피시며 티검볼 하나 떨어질세라 옷물을 걸어내치고 물맛까지 보시는 김정숙어머님! 무송현 성진공전투시에는 적의 총탄이 장군님 계신곳으로 미칠가봐 자신께로 적을 끌어붙이시면서도 줄곧 장군님을 살피십니다. 저는 지금도 온 마음과 육체가 한데 어울려 장군님의 안녕과 신변을 지켜가시는 그이의 빛나는 영상이 자꾸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데로부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한다는 생활속에서 굳어진 승화된 신념이였으며 투쟁속에서 자라난 혁명적세계관의 성장이였습니다. 참으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의 빛나는 구감이시며 우리모두의 어머니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영상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우리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저는 우리모두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길을 띄워주시고 넓혀주시고 가장 숭고하게 걸어가신 김정숙어머님을 생활의 거울로 투쟁의 본보기로 삼아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함으로써 해와 달이 다하도록 우리러모시렵니다.

제가 걷는 충성의 길앞에는 언제나 김정숙어머님께서 서계실것입니다.

평양시 도시시설보수사업소 노동자

림승서

봉화탑의 봄

리순우

산과 들에 봄별이 무르녹는다. 꽃샘잎샘하는 봄바람은 깊이 잠든 대지를 다정하게 흔들어 깨운다.

아지랑이 피어나는 만풍의 전야, 소생의 환희 속에 나무가지들마다 부풀어오르는 새움...

해마다 3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이지만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맞는 이해의 봄은 더욱 유정하다.

영광의 땅 봉화리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흥분으로 설레이기만 하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숭고한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 봉화리!

언제나 우리들에게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쟁의 기쁨을 안겨주는 빛나는 이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더욱 똑똑히 알게 하여 그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보위하여 사회주의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는 투쟁정신을 기르는데 커다란 도움으로 됩니다.》

우리는 마냥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봉화리로 들어섰다.

해마다 찾아오는곳이건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뜻이 깃들어있는 땅이기에 한알의 조약돌도 한그루의 나무도 무심히 보이지 않는다. 그저 모든것이 새롭고 정답기만 하였다.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꽃물결을 이루어 봉화리 내동마을로 들어서고있다.

우리들은 먼저 옷깃을 여미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두루마기를 정히 입으시고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며 그날의 모습으로 서계신다.

후대들을 원대한 뜻으로 교양하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인 기상, 미래에 대한 불타는 신념, 불굴의 투지가 그대로 우리들의 가슴을 마구 울려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의 칼부림에 피흐르는 삼천리강토를 한가슴에 안으시고 민족해방의 첫 봉화를 지펴올리시였다.

그때로부터 노예살이의 캄캄한 세월, 압제의 검은 구름 드리운 하늘에 조국해방의 서광이 비끼고 일어불었던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지원》의 봄별이 흘러들었다.

지금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우리앞에 서계신다. 조국해방의 새봄을 부르시며 원대한 뜻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온갖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절정 위에 서계신다. 그이께서 닦으신것은 조국해방을 위하여 걸으시는 력사의 새벽길, 그이께서 멀리 바라보시는곳은 해방된 조국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우리들은 마냥 뜨거워지는 가슴을 안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청석기와를 울리고 매혹으로 벽을 바른 그리 크지 않은 집인 명신학교에 들어서니 교실안 벽에는 《지원》이라고 쓴 힘찬 글발이 첫눈에 띄었다.

《지원》- 그것은 좁아졌던 가슴도 활짝 열어주고 하나의 커다란 세계를 안겨주는 힘찬 글발이다. 바로 이 글발속에는 원대한 뜻을 품고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미래에 대한 불타는 신념, 조국해방의 숭고한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리시기 위하여 1916년 봄에 평안남도 강동군 고읍면 동삼리 내동부락(오늘의 강동군 봉화리)으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옮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의 미래를 활짝 꽃피우시려는 애국의 열망을 안고 명신학교에 교편을 두시고 후대들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원대한 뜻을 가진 애국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사임하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낮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농촌청년들을 위하여 야학을 열어 우리 나라의 글과 력사, 우리 나라의 지리를 배워주시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시는 한편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노래와 시를 손수 지으시여 보급하시였다.

지금도 여기 명신학교-력사의 집앞에 서있노라면 김형직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가슴을 울리며 들려온다.

《우리가 왜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때문이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면 2천만겨레가 한데 뭉쳐 일본놈들과 맞서싸워야 한다.

학생들은 장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성전에 서 기둥이 되여야 한다.

우리가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처럼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교육사업을 혁명사업으로 보시고 후대들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원대한 뜻으로 교육교양하시였다.

오늘도 학생들을 부르던 명신학교의 힘찬 종소리가 귀가에 생생히 들려온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올리시던 그 종소리는 미래의 해방된 조국, 누구나 다 배우고 잘사는 문명한 새 사회를 불러오는 투쟁의 힘찬 목소리였다. 그 종소리는 오늘 우리의 배움의 나라, 11년제의 무교육의 해빛 밝은 교실들에서 노래되어 행복이 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였으며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자이시였다.

우리들에게 강사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새로운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에 대하여 광량한 목소리로 설명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1917년 2월, 평양에서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예비회의를 소집하신데 뒤이어 1917년 3월 23일 국내외의 혁명동지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회의에서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장차 동양에 뻗칠 구미세력과 일본이 패권을 다투게 될것이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서는 국민회의 투쟁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조선국민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힘을 크게 믿으시고 조선국민회의 투쟁 목적과 과업을 정확히 규정하시였으며 장차 우리 나라에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선생님께서 밝히신 조선국민회의 투쟁 목적과 과업, 그것은 곧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승리로 이끌 위대한 투쟁강령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있는 반일에국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조직성원들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 국내 여러 지방에 파견하며 이런 지역들에 구역장을 두고 이들의 회합은 매년 봄 평양 승실학교 개학일을 계기로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뿐만아니라 국외의 안동에는 연락원을 파견하고 베이징과 상해에는 통신원을 두도록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울것을 맹세한 사람들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받아들였으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지호상간에 일체 암호를 사용하였고 활동에서 비밀을 엄

격히 지키였다.

이처럼 조선국민회는 그 투쟁 목적과 과업이 뚜렷했으며 그 규모는 국내는 물론 국외를 망라한 대규모적인 정치단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하신 조선국민회는 그 이전시기에 나온 반일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를 포괄한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서 조선 사람자체의 힘으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성취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제기한 철저히 반제적인 혁명조직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후 국내는 물론 국외로 조직을 확대하시였으며 군사간부육성, 자금조달, 무기구입을 위하여 투쟁하시였고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반일에국사상을 고취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조선국민회의 대중적지반을 넓히시기 위한 사업으로 합법적인 조직인 학교계와 비석계, 향토계를 무으시였다.

제조직들은 형식상 부락주민들의 공동사업의 리익과 경제적인 상호부조, 친목도모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나 사실상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국민회의 사업을 각 방면으로 돕는것을 과업으로 정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계》의 취지를 《불망비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여름날에 땀을 흘리면서 호미와 낫을 벗으로 삼고 전원에서 잡초와 씨름하는 농민들과 망망대해에서 풍파가 한번 일어나면 고기의 배속에 장사 지낼줄 알면서도 한척의 쪽배에 의지하여 고기떼를 탐색하는 어민들과 층암절벽에서 한발씩 비록 하면 승냥이의 밥이 될줄을 뻔히 알면서도 약조캐기와 벌목에 종사하는 그네들도 수고와 위험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생명의 위험을 조금도 주저치 않으니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영원불후하는 생명을 요구함 이로다.》

우리들은 흥분을 안고 김형직선생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였던 학교뒤 살림집으로 갔다.

집은 수수한 토벽집이였다. 노전을 깬 방에는 키낮은 책상이며 검소한 생활도구들이 그대로 놓여있다.

바로 이 집으로 국내각지에서는 물론 멀리 국외에서까지 수많은 조선국민회원들과 반일의 뜻을 품은 애국지사들이 찾아들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들에게 조선독립을 위하여 강도 일제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밤을 새워가며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불굴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바로 이 집의 창가에 언제 한번 꺼질줄 모르는 등불이 어려있고 저 문은 원쑤의 총검을 꿋고 산밭을 넘어온 동지들을 맞아주시고 바래우느라 언제나 활짝 열려있었다.

이 집은 단순히 하나의 집이 아니었다. 김형직 선생님께서 조국해방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혁명의 집이었다.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거점으로, 조선국민회의 지휘처였던 력사의 집이었다.

우리들은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앞에서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 집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만경대에서 가족들이 이사 오기전에 몇달동안 계시던 집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집에 계시실 때 저녁마다 찾아오는 마을사람들에게 당시 시국형편과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죄행에 대하여 낱알이 이야기해주시면서 그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항상 근면하고 소박하신 선생님께서는 혁명사업과 학교일을 돌보시는 그 바쁜 나날에도 농민들의 마당질도 도우시고 땀나무도 해다가 마당에 쌓아주시기도 하시였다.

이 집 뒤뜰안에는 아지를 펼치고서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는 배나무 한그루가 있다. 이 배나무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채래종배나무에 추향리를 접하시여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시고 겨울에는 짚으로 싸서 정성들여 자라는 배나무였다. 바로 이 배나무에 조국의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을 보시고도 조국을 사랑하시는 선생님의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봄철이면 희고 아름다운 꽃으로서, 여름이면 나무잎의 정다운 설레임소리로서, 가을이면 향기로운 열매로서 그토록 불타는 선생님의 조국해방의 념원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하여 배나무는 역세게 서있다.

우리들은 《아침운동터》에 이르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새벽이면 이곳에 오르시여 신흠노팔로 학생들을 아침운동으로 부르시였다.

새벽대기를 헤가르며 멀리멀리 울려 퍼진 류창한 나팔소리! 그것은 새날의 려명을 실어오는 나팔소리였으며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애국의 불씨를 안겨주며 삼천리강토에 울려 퍼진 나팔소리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운동터에서 학생들에게 씨름도 시켰고 그들에게 손수 지으신 노래와 시랑송도 시키시면서 애국주의교양을 하시였다. 바로 이 운동터는 수많은 청년들이 훌륭한 애국자로 자라난 말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교실이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교실에서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받아안고있다.

우리들은 몸과 마음이 새로와지는것을 느끼며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 회원들과 자주 비밀회합을 가지셨던 바위뒤로 올라갔다.

바위터는 사철 푸른 소나무밭속에 평퍼짐한 바위들이 깔려있는 장소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바로 이 바위터를 비밀회합 장소로 리용하신것은 앞이 환히 열려 산아래를 한눈에 볼수 있어 적들의 동태를 잘 감시할수 있고 아래에서는 발견하기 힘들어서 매우 안전한곳이었기때문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성원들과 반일 독립운동자들이 찾아오면 이 바위터에 오르시여 조선독립운동의 전도와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또다시 새로운 임무를 주시여 떠나보내시곤하시였다.

이 바위터에 서있노라니 김형직선생님께서 동지들에게 꺼질줄 모르는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시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는듯만싶다. 우리들은 환희로운 감정속에 묻혀 봉화산마루에 올라섰다. 어깨를 결고 아아하게 뻗어간 산발들과 파수원속에 포근히 안긴 농촌문화주택들과 트랙트르들이 오고가는 넓은 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마치도 우리들은 이 세상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서있는듯...

우리들은 지금 봉화산에, 아니 혁명의 봉우리에 서있다. 지금 봉화산에는 봄빛이 무르녹고 있다. 정답고 살뜰한 봄바람이 봉화산의 푸르른 소나무가지에서 춤을 추고있다.

봉화산의 봄! 그것은 정녕 자연의 봄만이 아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삼천리강토에 불려오신 영원한 봄이었다.

아! 오늘 우리 인민은 영원한 봄속에 살고있다.

우리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봉화산을 내린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해방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우리는 하나의 거창한 혁명대학의 정문을 나서서 환희로운 기분으로 봉화리를 떠났다. 김형직선생님의 고매한 혁명정신으로 언제나 살며 일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그리고 오늘의 사회주의 락원을 마련하여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하리라는 불타는 결의를 더더욱 굳게 다지며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풍년가을 들길우에서

구희철

1

계절도
좋은 계절
가을날의 풍요한 들길을
나는 간다

별을 지나
언덕을 넘어
내 얼마나 많은 고장 지나왔는가
동해선 천리
서해선 천리

읍에서 떠난 빠스
한낮이 다 되도록
가을한 별을 지나
산기슭 과원을 에돌아
가고 또 가는 길

가다간
산처럼 높이
벼가마니 싣고오는 트랙트르에
한참씩 길을 내주고
흐뭇이 바라보는 기쁨이여

멀리
하얀 회벽 눈부신 집들
백학이 무리지어 날아내린듯
추녀 높은 문화주택마을
분배장에서 울려오는 농악소리

산은 산마다
단풍든 나무잎 불불고
마을은 집집마다
고추를 널어 빨간 지붕
익은 박이 점점이 엮힌
풍년가을은 그림같이 아름다와라

빠스는 달리고
마음도 흥겨이 달리고
차창밖은 낯알풍년
차창속은 이야기풍년

묻는 말도

하는 대답도
대풍든 가을날의 기쁨
제고장 자랑하며 털어놓는
그칠줄 모르는 농사이야기,

억양 높은 사투리
감추지 못하는
북관에서 온다는 할아버지
차에서 사귀인 정으로
앞에 앉은 처녀에게 말을 묻는다.

-그래 처녀네 농장에서도
농사가 잘되었겠지

나는 그때에야 보았다
오는동안 내내
뒤모습만 보아오던 그 처녀
여름벌에 감실하게 타긴 했어도
보름달같이 둥그런 그 얼굴.

-할아버지
지난해보다 창자를 배나 더 늘였어요

이렇게 한마디
말이 오가면
올해는 풍지 얼마 안되는
간석지논벌에서도
열톤아래로는 부르지 않는
저마다 제고장 풍년든 자랑

그래서 만풍년든
이 땅을 두고
고마운 생각은 깊어져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끝없이 이어지는구나

큼직한 보통이
앞에 안고가는 할머니
눈물이 글썽하여
외우는 한마디

-옛날에사
가을을 하고나도

쌀밥구경하기 힘들었지요

이 할머니

뼈아프게 외운 이 말
마치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파문을 일구어놓았다
오늘의 로동당시대와
어제날의 고역의 세월을 생각하게 하며

하얀 자개돌이 들여다보이는
맑은 개울 건너 차는 달려가는데
담배 한대 붙여문
북쪽에서 온다는 그 로인
그제야 차안을 둘러보며
꺼내놓는 한숨쉬인 이야기

-내 말을 좀 들어보시우
올해가 기미년이외다

자동차 경적소리에
이야기가 중단되더니
담배 한모금 깊숙이 빨며
다시 하는 로인의 말

-60 년전
그 기미년엔 모진 흉작이 들어
글쎄 사람들이 무리로 굶어죽었수다

이 말을 외우는
로인의 눈가엔 이슬이 어리고
온 식솔중에 혼자 살아남아
지주집 머슴으로 팔려가던
기막힌 그 세월이 다시 떠오르는듯
생각깊은 그 표정,

하지만
그 이야기 그 사연
어떻게 다 알수 있으랴
흉년이란 말조차 모르고 자라는
차창겉에서 장난질하는 저 아이
굶주림을 모르고
비단옷을 입고 사는 저 젊은 녀인

땅이 생겨 처음 보는 흉년이
그 기미년에 있었다면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이
오늘의 기미년에 이 땅에 들었으니

감사의 정을 가득 싣고
차는 풍년들을 달린다

흐뭇한 마음으로
풍년든 차창밖을
오래오래 내다보던 할아버지
다시 석신 목소리로 묻는다

-듣자니 이 세상에
굶어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자 누군가
보던 신문을 펼쳐들며
로인에게 이야기한다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매일 굶주리는 사람이 10 억이나 된답니다

로인은 머리를 끄덕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는 모양
흉년든 나라들에서 올려오는
굶주려 아우성치는 소리 들려오는듯

하지만 이 땅엔
그 어디 가나
높이 쌓인 로적가리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높이 쌓아올린 사랑의 쌀산!

종구나
가을날엔 길가기가
벌에서도 풍년
다락밭도 풍년
파일도 담배도 남새도 풍년!
차창가득 흘러드는 낱알향기에 취하고
가슴가득 흘러드는 풍년이 이야기에 취해서

좋은 자랑이야
할수록 더 기쁜것 ,
어제날엔 슬픈 이야기에
눈물이 헤프던 사람들
오늘은 행복한 이야기에
감격의 눈물이 헤퍼진 세월!

달리는 길이 끝없듯
만풍년이야기 끝없는
가을이여!

조선의 풍년가을이어!

내 지나온 고장마다에서도
만풍년이야기,
지금 가는 이 길도
만풍년이야기로 이어가고
이제 가닿을 고장들에서도
나는 들으리 나는 보리라
대풍든 이야기
대풍든 농장을...

2

생각에
걸음은 무거워지는가
생각에
자욱은 깊어지는가,

벼바다 강냉이바다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 다녀가신 농장길
그 자욱따라 그 길따라
목메여 걷는 마음이어

그 길우에서
만나주신 한 농민
그와 나란히
그날의 이야기 들으며
나는 벽성땅 두렁길을 걷는다

수령님 모시였던
잊지 못할 그 사연
이제는 몇십년도 더했을
그 사랑의 이야기
이제 처음 나에게 들려주는듯

.....

금나락 설레이는
벼바다우에서
뜻밖에 수령님 맞이한 농민
정말 꿈만 같아
감격에 그만 목메이는데

일하다 달려온
흙문은 손을 잡아주시며
수고가 많았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만족하시여 지으시던 그 미소

물결쳐 설레이는

황금벌을 바라보시며
걸음을 천천히 옮기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감사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올렸어라

-수령님! 벽성땅이 생겨서
처음 보는 대풍입니다.
알찬 이삭들을 살펴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자신께서 드셨던 책을
가벼이 벼이삭우에 던져보시는 수령님!

아, 던져보신 그 책
벼이삭우에 놓인채
밀려오는 황금파도에 실려 설레이거니
수령님께서도 못내 대견하신듯
그 책을 오래도록 지켜보시여라

-벽성땅이 아니라
조선땅이 생겨서 처음 보는 대풍이요!

아,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
별은 끝없는 설레임의 파도로
그 말씀 받아외우고
언덕은 끝없는 메아리로 화답하여라

-수령님, 올해의 이 만풍년은
수령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수령님께서
그 모든 자신의 로고를
농민들에게 돌리시며
아니라고
다시 또 아니라고
몇번이고 외우시여라

아, 하늘같이 높은 수령님 사랑
땅같이 넓은 수령님 은덕
다시 또다시
진정을 담아 올리는 농민의 마음
이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

농사짓는 농민도
다 밟아보지 못한
산기슭 작은 땅땀기까지
다 밟으시고

땅에 맞는 종자

곡식에 맞는 비료
가지가지 농기계도
출렁이는 관개수도
모두다 보내주신 수령님!

한 농장도 여러번
찾아주시는 그 사랑
한 농민도 몇번
만나주시는 그 품
한이삭 한포기의 곡식도
다 보살피시는 그 손길
수령님 은덕만을 주시는 그 길
끝을 알수 없구나

찾아오시여
농사일 가르쳐주시고
부르시여
농사일 일깨워주시며
전화로 날씨를 걱정해주시고
대회장에 내세워 치하해주시며
크나큰 사랑을 다 안겨주신 수령님!
끝없는 벌처럼
끝없는 이야기
끝없는 길처럼
끝없는 노래 들으며
나는 걷는다
수령님 먼저 걸으신 길
수령님 먼저 다녀가신 포전을...

땅이여!
너의 긴긴 설움의 력사에
오늘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다스려진적 있었던가
땅이여!
네우에 수령님 찍어가신 자욱
하늘의 별들로도 다 새길수 없구나
네우에 수령님 걸어가신 길
하늘의 은하보다 더 찬란하여라

3

하늘이 생겨
땅이 생겨 처음 보는 대풍
진정 올해의 이 대풍은
그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끝은 어디인가

가을은 가을이어서
평양의 길가에도
단풍잎이 한잎두잎 떨어지는데

나는 광장결
한 청사의 문을 들어선다.

온 한해
조국의 농장길을 다 밟으신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함께 따라 걸은
한 일군에게서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의 이야기 들으려 -

량강땅 풍산에서
프락토르 받으러 온 사람
인민봉사위원회에서
담배때문에 왔다는 사람
이런데선 저마다
자기 용무가 제일 급하다고 우겨대는 법

어느사이
서로 담배를 권하며
켜든 불을 사양하며
처음엔 몇마디 짧은 말
다음엔 늘어놓는 긴 말

이야기마다
무르익은 낱알향기 풍기는듯
이야기마다
영근 낱알 무게가 실린듯

길을 많이 걸은 그만큼
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나 온 한해
조국땅을 다 밟으신
수령님 다니신 그 길을
천의 하나도 다 따라밟지 못하고
내 찾아온 농업전문일군

알수 있으랴
나와 함께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야
찾아다니며 다 듣지 못하고
만나서 다 듣지 못한
수령님 사랑의 그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줄을...

또다시
홍겨이 벌어지는
만풍년이야기
오늘의 만풍년의 비결
그 시작을 두고

그 끝을 두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는 말

그러자
나이 지숙한 농장관리일꾼 하나
감회도 깊이
한해를 돌이켜보는듯
감격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한마디

-올해의 우리 농장 만풍년도
이른 봄날
눈석이가 한창이던 때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몸소 가르쳐주신 덕분이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엔
아직 이야기의 핵이 빠지기라도 한듯
-우리 농장에 오시여
랭상모판 돌아보시며
가운데서 한대
모서리에서 또 한대
골고루 다 헤아려보시고
모내기날자를 점해주셨지요

마치도 어버이수령님
가까이 뵈옵는듯
정중한 마음으로
누구나 수령님 생각에
말없이 웃길 여미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있던
어느 군에서 왔다는 한 일꾼
그 이야기도
흥분 없인 들을수 없구나

태풍이 심하게 불어치던
여름밤
급히 논뚝을 달리던
그 밤에 다시 생각나는듯

-웬 바람이 그리도 세찼던지
동구밖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질 않았겠소
하지만 공연히 땀을 뻘지요
모판에 들어서서 벼를 안아보니
벼는 끄떡 않고 서있었으니많이요.

모두는
또다시 생각에 잠긴다
한랭에도 견디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이 조선의 벼를 위해
수령님께선
그 얼마나 많은 날과 날을 보내시었던가

프락또르때문에 왔다면
푸쩍 좋은 사람이 또 한마디

-글쎄 지금 생각하면
우린 토지개혁때
장군님을 모실 변변한 집이 없어
밭이랑우에 그냥 모시지 않았겠소
그래서 금년엔 꽃방석우에 모시려 했는데
30여년이 지난 올해에도 끝내
밭이랑우에서...

이야기에 끌려
이야기에 묻혀
기다린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저마다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 터치며
그 이야기 끝이 없구나

주체농법의 열쇠를
농민들의 손에 쥐여주시고
온 한해를 걸으시며
온 한생을 걸으시며
그 진두에서 나가신 수령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내놓으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온 나라 농사일
몸소 하나하나 돌보신
수령님의 그 사랑의 길우에
오늘의 만풍년이 꽃피여났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이야기도 그만큼 많은
이 자그마한 방
한해의 이야기가 다 꽃피고
땅의 력사와 함께 흘러간
30여년 세월도 추억속에 다시 더듬는 이 방

차례가 되자
나는 찾아간 그 일꾼앞에

욕심스레 다가왔ندا

흔해서 시작한 이야기
어두워서도 끝나지 않았으니
그사이에
찾는 문소리, 전화소리가
얼마나 자주 말허리를 잘라놓곤했던가

이야기에 취해서
그 일군도
나도
불을 켜 생각을 잊고있었다

그 일군은
나를 생각해선지
방이 어두워선지
일어나 불을 켜고 왔을 때

나는 환한 불빛아래 보았다
이야기마다 감격에 목메이고
이야기마다
뜨거운 눈물에 젖은 그의 눈길을...

나는 그 일군의 방을 나서고
그때로부터 날은 흘렀어도
목메여 들려주던 그 마지막 말이
오늘도 뜨겁게 내 가슴 울려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선
온 한해를 농장길우에서 다 보내셨습니다

4

세상에 길이야
얼마나 많은가
먼 길 가까운 길
길마다 이야기는 어디나 있는 법,

하지만 나는
그 수천만 길중에도
수령님 다녀가신
위대한 령도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노래하련다

아버이수령님 다녀가신
백무고원 넓은 등관
함주와 어랑, 봉산과 나무리
강동과 개천의 먼먼 천리 또 천리길을...

복으로 향하신 그 걸음
돌아서실줄 모르시고
찬서리 내리는 이른봄에도
무더운 한여름에도
농장의 들길과 공장의 구내길
쉬임없이 걸으신 수령님!

걸으신 그 길 헤아리면
수천수만리길을
함께 동행한 일군들
길우에서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일 때마다
더욱 간절해진 소원
수령님의 피로를 풀어드릴
오직 그 한 생각뿐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바라던 그 소원이 풀려서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얼마나 큰 감격에 젖어
평양으로, 평양으로 돌아오고있었던가

수령님의 안녕을 바라던 마음들
수령님 모시고
돌아오는 그 길에
얼마나 뜨거움에 마음 불탔던가

아버이수령님 모신
승용차는 급히 달리고
젊은 교통지휘원도
평양을 향해 지휘봉 가리키여라.

어느덧 저멀리
정다운 수도의 모습
눈앞에 안겨드는 길에서
익은 난알향기
차창가득 흘러드는
농장벌을 내다보시며
조용히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

-평양에 들리지 말고 -
더 가봅시다.
아, 하늘도 눈물에 젖는가
땅도 목메여 들먹이는가
저마다 가슴에 안았던
뜨거운 소원이 놀라움으로 변하던 그 순간
수행한 일군들
단 한마디밖에 올릴수 없었어라

-수령님!

그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더듬으시더니
멈추지 말고
들리지 말고
어서 떠나자고 어서 가자고
그냥 떠나시는가
지척인 평양에도 들리지 않으시고
먼길의 그 피로를
잠시나마 푸실 휴식도 잊으시고
정녕 평양을 지나시는가

이 땅에 무겁도록 실린
만풍년의 금나락을 보시고
머나먼 길의 피로를 다 푸시며!
웃으시며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을 잊어오시고
언제나 휴식을 먼 후날로 미루시며
다시 또 이어가시는
농촌현지지도의 성스러운 길이어!

정녕
벼바다 강냉이바다도
진정 못해 파도쳐 설레여라

해방된 그 나날
지척인 고향집에 들리지 않으시고
강선 로동계급을 찾아 떠나신
만경대 그 갈림길에 이어
오늘에도 펼쳐지는 사랑의 길이어!

-어서 그냥 갑시다
서해안 농사가 보고싶습니다
나에겐 이것이 제일 기쁜 휴식입니다.

어찌하여
이 한마디 말씀이
천백마디 말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되어
온 강산에 번져갔던가

오, 어찌하여
그날에 이어가신 그 사랑의 길이

전설같은 이야기로 전해지며
인민의 가슴가슴으로
뜨겁게 굽이쳐 흘러들었던가

풍년이여!
조선의 만풍년이여!
너는 수령님 사랑으로 싹트고
수령님 햇빛으로 가꾸어진
위대한 사랑의 열매!
하늘도
땅도 줄수 없는
은혜로운 자양분으로 무르익고
위대한 수령님 손길아래 주렁진
주체농법의 열매!

새 조선의 첫모를
농민들과 함께 내시고
협동조합 첫자리에
자신의 존함을 새기신
어버이수령님 그 품에 무성히 자라
사회주의농촌체제의 밝은 햇빛아래
알찬 열매로 주렁진
대풍든 조선의 경사여!

잊지 말자 우리
눈내리던 2월,
수수한 청산리 한 농가에서 보내신
농촌현지지도의 그 보름!
력사가 새기었고
인류가 기억하는 그날이
아직도 우리 가슴 뜨겁게 하건만.

아, 오늘은
흰눈을 밟으시며 걸으신 길
가을단풍 밟으시며 걸어오셨으니
어느 나라, 어느 인민이
우리 수령님 같이신분 모실수 있으랴
이 세상 어느 하늘아래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 또 있으랴

온 한해
온 한생
농민이 되시여 벌에 사시고
농사일 위해 농장길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자욱우에
주체농법이여, 너는 활짝 꽃피었어라
조선의 만풍년이여, 너는 이룩되었어라

아름다운 저녁

김수범

그물처럼 얽기설기한 수억만의 나무가지사이에서 빨간 해가 솟불처럼 탔다.

푸르던 하늘은 미미하게 더운색을 띠고 아름다리 나무들과 지어는 키낮은 애솔들까지 약속이나 한듯 저들의 재빛 그림자를 점점 동쪽으로 늘려갔다.

온 산판에 메아리치던 기계톱소리와 나무 넘어지는 소리도 뜸해지고 정력적인 프락포르의 발동소리며 청맑은 림철기관차의 경적소리만이 아득한 저쪽으로 흐리마리 찾아들뿐이었다.

격전뒤의 정적과도 같은 한순간이 온다.

시계추의 단조로운 흔들림소리라도 들릴것 같은 이 정적은 다시 멍멍하던 고막을 가셔주는 온갖 새소리, 시내물소리 그리고 청춘시절의 끝없는 환희같은 숲의 설레임소리로 바뀌여졌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세계를 이룬 대자연이 순수한 자기 생활을 시작하는것일가, 아니, 아직은 이 숲속에 자연의 임자인 사람들이 있었다. 서로 이름을 부르며 찾고있었다.

《봄순아!-》

노래하는듯한 처녀의 목소리를 제격 되받은것은 산발들이었다. 그것들은 신통히도 지긋게 흉내내어 기껏 약을 울려주는 장난군들처럼 한번씩은 다 산울림을 보내온다.

《봄순》

《봄순》

《나야!-》

어쩌면 한사람을 찾느라고 이 숲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두서없이 마구 불러대는것 같았다. 엄청나게 공명되는 그 메아리가 완전히 끝났을가 말았을가싶은데 이번에는 그닥 멀지 않은곳에서 분명 입에 손을 오그려불였을 또 한처녀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

《응, 갈께에! -》

떠드는것은 사람이 아니라 산발들이다. 벌목장에서 잠시 땀을 들이며 기계톱을 식히던 두 사나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나무베기공 준식이와 밀대공 기철이다.

스적스적 얼마쯤 걸어나오던 그들은 며칠전에 나무를 베여낸, 그래서 이제는 프락포르들이 초두목과 따놓은 가지들을 몽땅 끌어내여 무슨 공지처럼 횡행그렁해진곳에서 호미와 끌망태를 집어들었다. 끌망태속에는 저가락만한 나무모들이 꼭 들어찼다.

《사업소에서 이동영사대가 왔답니다. 새로나온

영화의 5 부부터 6 부까지 한다는데...》

《그래?! ... 본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들 하더군요.》

자동차에 비유하면 협조원격인 밀대공 기철이의 말에 준식은 금시 초문처럼 대답하였으나 벌써 다 알고있었다. 영화구경이 있기때문에 다른 때보다 산판작업을 일찍 끝냈다는것도, 무슨 영화라는것도 그리고 기철이가 왜 그 소리를 내비쳤는가 하는것도 다 알았다. 다만 채 알수 없는것은 기철이가 별로 초초해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점이였다.

(산판에다 무엇을 떨렸을가?!...)

어쨌든 오늘날은 제발 이 일을 시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였다.

《알만한데 오늘은 그냥 먼저 내려가라구. 한참이면 뵈테니까 혼자서 제격 해치우구 나도 뒤편이라 서겠네.》

이런 경우에는 한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준식이 쪽에서 썸을 차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철은 준식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니 더 갈수가 없었다.

《그저 그렇다는거지요. 누가 먼저 내려가겠답니까.》

기철은 소리없이 웃으며 머리를 굽적거리더니 벌써 베여낸 나무그루 자리에다 나무모를 심기 시작하였다.

《술직하지 못하구만.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떻게 숲을 다루겠나.

같이 가자고 약속한 처녀라도 있다면 그 처녀가 자기 애인을 붙잡고있는 이 준식을 얼마나 벽창호라고 미워하겠나.》

준식의 말에 기철의 얼굴은 광솔빛으로 새빨개졌다.

《원, 처녀는 무슨 처녀이고 애인은 또 무슨 애인입니까. 전 아직 그런건 모릅니다. 나이가 서론도 되기전에...》

《허허!... 한번 떠보느라고 한 소리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시치미를 따는걸 보니 수상하다. 뭐이 있긴 있는 모양이지.》

《사람을 그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있다고 버젓이 말하겠어요. 코흘리개 총각도 아닌데.》

《그래?! ...》

준식은 기철의 얼굴을 보고싶었으나 볼수 없었다. 그는 벌써 저만큼 앞서 나가며 나무를 심고있었다.

《코흘리개 총각도 아닌데?!... 그럴듯한데.》

준식은 또 껄껄 웃었다. 그런 말까지 하는걸 보니 아직은 순박한것 같았다.

《어쨌든 고맙네. 산판에다 사람을 혼자 두고 자기만 가버리는 법이 없다는것은 우리의 도덕이기도 하지만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어야 할 벌목공의 량심을 리해하고있으니말이네.》

준식은 진심이었다. 그는 손에 톱을 쥔 그날부터 20여년을 하루같이 자기가 베여낸 채벌구역에다 고스란히 나무를 심어왔던것이다. 1958년 5월, 위대한 수령님의 첫 현지교시를 받은 그때로부터 나무베기공의 기쁨은 베여내는것에 있는것이 아니라 심는것에 있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었다.

머리우에서는 황금빛 피꼬리가 청을 돋구어 우짖고 동화작가들의 긍정적주인공같은 다람쥐와 산토끼들은 단한번도 악한 일을 해본적이 없다는듯이 준식이와 기철이의 결으로 왔다갔다 했다. 만약 림간지의 판목숲을 헤치며 누군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선량한 《리력》을 가진 그 주인공들의 생활을 좀더 관찰할수 있었을것이었다.

《오빠!》

준식은 고개를 돌렸다. 머리에 빨간 나이론수건을 쓴 작업복차림의 처녀가 봉긋한 가슴우에 두손을 모으고 섰다.

너동생 봄순이었다. 달려오느라고 숨이 차하는 그의 발가우리한 얼굴은 어떤 기쁨에 겨운것 같기도 하고 초조해진것 같기도 했다. 이른봄의 성성한 백양나무같은 너동생의 모습은 짙은 록옴에 어울려 무척 아름다웠다. 순간, 준식은 장차 그를 사랑하게 될 미지의 한 청년에 대한 부러움을 느끼었다. 그러면서도 늘 엄격한 오빠의 얼굴에는 지금 아무런 표정도 어리지 않았다. 그의 기쁨과 웃음은 봄순이를 위해 가슴속에다 감춰두는것이다.

《빨리 내려가자는거냐?》

《아니, 그쳐...》

《그래 너는 자기 말은 림지에다 심고 왔냐?》

《예.》

《그럼 먼저 내려가거라.》

오빠의 말에 잠시 망설이던 봄순은 할말을 못한 사람처럼 머뭇머뭇하다가 조용히 저쪽으로 걸어갔다.

봄순이가 간뒤의 몇분이 지나 준식이며 기철이도 일손을 털었다.

《자, 인젠 시내가에 가서 세수나 하고 가세.》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옷이랑 갈아입어야 할텐데요.》

기철은 별로 어색한 표정으로 머리를 또 긁적거렸다.

《그럼, 슬슬 먼저 걷게.》

《같이 가지요 뭐.》

《시내가에도 안가겠다면서 괜히 혼자 기다릴것 있나. 곧 따라설텐데.》

그제서야 기철은 어쭈게 웃었다.

두사람은 트랙토르길에까지 나와 헤어졌다. 해는 아직도 서산우에 한발 높이로 떠있고 구름은 물결무늬로 하늘에 퍼져있었다. 높은 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해를 오래보는것이다.

맑은 시내물에 세수까지 하고난 준식은 땀처럼 흘러내리는 물기도 씻을념없이 산을 내려왔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온다. 닭털처럼 부드러운 그 바람결은 준식으로 하여금 어떤 명상이라도 잠긴듯이 실눈을 짓게 하고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의 물방울을 무슨 보석처럼 굴러내리게 했다.

무엇에 취하는것 같기도 하고 일종의 이름못할 낭만적인 흥분에 가슴이 울렁거리는것 같기도 한 착잡한 감정을 체험하며 그는 길쭉의 이름모를 푸새들과 잔디를 신발이 간지롭도록 음미하였다.

어데나 숲, 울창한 밀림, 잠시도 진정하기 어려워 그냥 마구 설레이는 수림속을 걸느라니 그는 불현듯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없는 정원을 가진 주인처럼 생각되었다. 비로소 이 땅과 이 숲의 귀중함을 깨달아보는것일가. 그렇다! 만약 지금 이 준식이가 온종일 나무만 베었다라면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는 못했을것이다.

조국의 자연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보태는 순간만이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것 같기도 했다.

자기의 생각에 스스로의 긍정과 자부를 느끼던 준식은 봄순이며 기철이에 대해 까맣게 잊고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눈앞에 여러문살되는 아이의 키만한 잣나무숲이 펼쳐진것이다.

어데론가 와-환성을 울리며 달려가느라 두팔을 마구 내휘젓듯이 가지를 설레이는 그 잣나무숲은 턱수염이 검스레한 준식의 눈앞에 3~4년전, 대학입학통지서를 가지고 왔던 맏딸과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하며 집을 떠나던 맏아들의 얼굴을 펼쳐보였다. 그들이 인민학교때부터 중학교졸업전까지 심어놓은 나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다.

추억이란 그 누가 현물로 볼수 없다고 말했는가! 《소년단림》이라는 글발밑으로 그 잣나무숲에 잇닿아진 분비, 가문비숲은 정전직후, 군대에서 돌아온 준식이자신이 처녀시절의 안해와 함께 심어놓은것이고 그아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 젊은 이빨나무숲은 아버지가 심은것이였다.

아버지는 1945년도의 공산당원이였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손벌목톱에 고무줄을 매여 전시생산계획을 열두배로 넘쳐한 공로자였다. 그 이빨나무숲은 3차당대회의 대표자였던 아버지가 강도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우리의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문수봉에 오르시여

헐벗은 조국강토에 처음으로 식수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날의 처서군들과 함께 매년 눈물을 머금어가며 삼십여년간이나 심어온 나무들이었다.

준식은 자기도모르게 긴숨을 후- 내쉬었다. 온 가족들을 여기서 다 만나보는것 같아서였다. 그들은 온 조국땅에 다 흩어져있어도 뿌리들은 여기에 박혀있었다. 각이한 모습들과 잊지 못할 추억들을 더듬어보게 하는 이 산등성이에서 준식은 선뜻 발길을 옮길수 없었다.

...작년 이맘때인 아이들의 어느 방학날이 생각키웠다.

여든세살에 나는 아버지는 그날도 여느때처럼 신들메를 하고 나섰다.

《아버지! 이제는 제발 집에 편안히 계셨으면 합니다.》

준식은 로방인것 같아서 아버지의 천년죽지령이를 감추며 통사정을 했다.

《넌 쓸데없는 걱정은 말구 네 일이나 착실히 해.》

령감은 끝끝내 지팽이를 도루 가져오게 했다.

령감이 저러다가는 무슨 큰일을 칠것 같았다.

그러거나 말거나령감은 또 일곱살 나는 막내 손녀인 송희와 열살짜리 손자인 금돌이를 불러내었다.

《아버지! 어찌자구 이러십니까. 그 철없는것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제발 젊은것들의 권고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얼마나 비판을 받는지 압니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 사람들을 걸구 그런 거짓말을 하면 못쓴다... 애, 금돌아! 날래 송희를 데리구 나오너라. 그제 할아버지하구 산보를 가는게 제일 좋은거야.》

집안에서 할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는 금돌이와 송희는 절반 울상이 되어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구원을 바라는 그 얼굴들은 준식으로 하여금 자식에 대한 아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했다.

《옳지, 우리 송희가 용타. 금돌은 이제 자라던 인민군대에 나가 미국놈을 많이 잡을게야. 저렇게 용감하구 씩씩하거던...》

령감은 벌써 그 조무래기친구들을 앞세운채 아들 준식이 먼저 저만큼 걸어나갔다.

로인성 고집이라는 그 무슨 새로운 병의 진단명 같은 생각이 떠올라 준식은 혼자 어이없이 웃었다. 그러면서도 놀라게 되는것은 고령의 나이와 관계없이 강한 아버지의 정신력때문이었다.

금돌이와 송희는 정녕 가기 싫은 걸음이라 연신 이쪽을 돌아본다. 그럴것이 저런 산보가 요즘은 매일 계속되고 또 산판에 가서는 로인이 아이들을 가만 놀리지 않았었다. 그것들이 일을 하면 과연 얼마나 하겠다고 매일 나무를 떠옮기는 놀

음을 계속했다.

령감은 정 맥이 없으면 나무그루에 걸터앉아있고 금돌이와 송희만이 불벌에 땀을 발발 흘리며 시달리었다.

《에! -우리 금돌이와 송희가 정말 수고하누만, 우리 작업소적으로야 이만한 일군이 없지... 인젠 좀 쉬면서 할아버지의 옛말이나 듣다가 갈가.》

령감은 늦은 점심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래일이 일요일이니만큼 우리도 쉬면서 텔레비나 보자고 했다.

《야! 좋네.》

금돌이와 송희는 환성을 올렸다. 할아버지가 텔레비구경을 시켜주겠다는것은 집에 있는 흑색 텔레비가 아니라 작업소사무실에 있는 천연색텔레비를 구경시키겠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빨리 하루가 지나기를 바랐다. 시간이 너무도 더디게 흘러가는것 같아 지루하기 그지없던 그 아이들에게 드디어 이튿날 아침이 왔다. 일찌기 세수까지 하고난 아이들은 벌써부터 밥 재촉을 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기전에 너희들이 먼저 먹겠느냐?》

준식이의 말에 아이들은 입이 나왔다.

밥상이 차려졌다.

그제서야 준식은 아이들에게 누가 먼저 방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깨우겠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먼저 할아버지를 깨우겠다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우당탕거리며 밀치락닥치락 할아버지결으로 다가가간 손자, 손녀들은 사정없이 흔들어깨우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 아침을 잡수세요.》

좀 있어 아이들에게 반들리우다싶이한 할아버지가 빙글빙글 웃으며 나왔다.

할아버지는 이날 아침상을 받은후 아이들과의 약속대로 텔레비구경을 갔었다. 그리고는 해질녁까지 아이들을 이끌고 숲으로 다녔다.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몸에서는 향긋한 송진내가 진하게 풍겼다.

그런데 그날밤 자리에 누운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었다....

벌써 해는 뉘엿뉘엿하고 숲속에는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준식은 천천히 발길을 옮기었다.

저녁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림산마을로부터는 벌써 이동영사대의 확성기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어깨에 멘 기계톱이 무겁다는것을 의식하며 자그마한 산굽이를 돌아서던 준식은 갑자기 어데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포랑포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었니? 야 참!》

《좀 가만 있어. 인젠 거의 다 돼.》

《그러다가 영화를 시작하문...》

《아버지들이 산에서 다 내려와야 영화를 시작해. 정 빨리 가고싶으면 뽕끼통을 더 높이 들어라.》

《야, 애나네.》

준식은 손을 들어 지는 햇빛을 가리우며 눈심을 돌구었다. 여라문메터 뿔가말가한 저쪽 숲속에서 분명 두 아이가 얼른거렸다.

저들 손으로 만든것 같은 한발 남짓한 사다리를 놓고 사내아이 하나가 아름답리 붓나무밑등에 올라섰다.

그밑에서는 발뒤꿈치를 든채 두손으로 무슨 통줄임통같은것을 섬기는 계집애가 목이 아프게 머리를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면 사내아이는 무슨 꼬챙이같은것을 통줄임통에 넣었다 꺼내어 어른들의 키만한 높이에서 붙여놓은 널쪽으로 가져갔다.

(아니, 저것들이 저기서 무슨 장난을 하는걸가?)

그 아이들이 천만뜻밖에도 자기의 송희와 금돌이라는것을 알아본 다음에야 준식은 그만 이마를 찌프렸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정작 얼마쯤 다가가던 준식의 두눈은 자기도모르게 휘둥그래졌다.

비바람에 씻기여 희미하니 퇴색한 《산불조심》이라는 글자판에 빨간 뽕끼로 덧글씨를 하고있었다.

새까만 학생복바지에 하얀 반소매적삼을 입고 넥타이를 맨 금돌의 모습은 울창한 수림의 바다 위에 날아오른듯이 느껴졌다. 기름을 바른것처럼 윤기가 도는 금돌의 통통한 두다리는 하얀 붓나무밑등과 너무도 잘 어울리어 금시 달려가서 닝름 안아주고만싶었다.

달려드는 모기와 깔따귀를 머리를 흔들며 쫓아 버리면서도 제 오빠의 엄격한 요구에 순종하는 감직한 꽃무늬치마를 입은 송희의 모습은 옛말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나오는 푸른숲의 지혜로운 소녀에같았다.

도대체 인민반 3학년생인 금돌이와 겨우 1학년생인 송희에게 어데서 저런 생각이 떠올랐을가.

준식은 그만 자기도모르게 두눈을 습벅거렸다. 눈물이란 슬퍼서만 나오는것이 아닌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송엄한 세계에 부닥친 그의 가슴속에서는 흐느낌없이도 그냥 뜨거운 걱정이 솟구쳐올라 눈곱을 적시며 두볼로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저 아이들의 할아버지도, 이 아버지도

산림을 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자라 왔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숲을 사랑하시기때문이며 자기 나라의 숲을 사랑하지 않는 애국자란 있을수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 재부의 귀중함을 깨달을수 있었다.

준식은 아무리 철부지 아이들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정녕 무심히 볼수 없었다.

얼마전에 또다시 우리 도를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이 저 아이들의 가슴속에까지 심어져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없이도 이 숲의 대를 후계림처럼 이어가기 시작한것이다.

세대는 바뀌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산관사람들의 과업은 변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은 어찌면 이 아버지의 머리속에까지 덧글씨를 쓰는것 같았다.

두볼을 간지럽히며 축축히 흐르는 물기를 누가 불가봐 얼른 훔치려던 준식은 마침 산굽이를 돌아 선 두사람의 눈에 띄워버렸다. 봄순이와 기철이었다.

(아니, 산관에서 분명 먼저 떠난 저들인데...)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준식이앞에서 피할 길이 없었던 봄순이와 기철은 얼굴을 활짝 붉히며 고개를 숙이었다. 봄순이는 자꾸만 기철의 뒤에 숨는다.

(음, 내가 뜬 소경이었지...)

부러운, 좋은 시절이다. 서로 시치미를 따며 감쪽같이 속여온 그들이지만 준식은 지금 그들에게 웃어보일수 있었다.

다만 말없이 금돌이와 송희가 하는 착한 일을 보라고 가리켰을뿐이었다.

《저것들이 글썽 저렇게 썸을 차리는구나!》

준식의 목소리는 본의아니게 축축히 젖고 놀라움에 빛나던 봄순이와 기철의 눈길은 가책으로 천천히 무거워졌다.

실로 조국에 자기를 보태는 순간과 순간만이 사랑보다도 귀중하고 또 그 순간에만이 사람은 비로소 아름다와질수 있었다.

아이들이 하던 일을 마저 하도록 기다려주는이 시각, 세 사람은 다같이 생각에 잠겨있고 머리위의 하늘에는 빨간 뽕끼색으로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그 어떤 거대한 프랑카드처럼 펼쳐져있었으며 그 밑으로 흘러간 숲의 바다는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에 안겨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당일군에 대한 생각

박창민

나는 취재때마다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우리 비서동무가 잘 도와주었기때문입니다. 신문에 내겠으면 우리 비서동무에 대해 내십시오.》

《우리 비서동무가 아니면 이런 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비서동무의 노력이 큼니다.》...

《우리 비서!》

얼마나 친근하게 들리는 말인가.

어떻게 하여 그런 기적을 창조하였는가고 묻는데 사람들은 왕창같이 당비서자랑을 늘어놓아 취재에서 《탈선》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창의고안명수》로 소문난 기계공장의 로력혁신자를 찾아가도, 농사에서 전국에 《장훈》을 부른 나어린 처녀분조장을 찾아가도 그들은 당비서동무들이 잘 도와주었기때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온 나라에 그렇듯 커다란 과문을 일으킨 로력영웅, 박사 백설희동무를 찾아갔을 때도 같은 말을 들을수 있었다.

《당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연구사업에서 성공할수 있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충성의 길로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는 당일군들의 방조가 없었다면 저같은 평범한 녀성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할수 있었겠어요.

기자동무,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의 가슴속에 심어진 충성의 불씨를 키워준 당비서동무의 숨은 노력에 대해 소개해주시 바랍니다.》

백설희동무의 당과 인민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스며있는 시험포전을 거닐며 나는 농장초급당비서 동무에 대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탐구와 고심, 정열과 투쟁의 10여년-이 나날에 그 어느 하루도 당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않은 때가 없는 그였다.

또다시 실폐한 식물포기를 불안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때 새힘을 안겨주고, 일손이 모자랄 때 온 농장사람들을 불러일으켜 도와주고, 찬이슬 내리는 밤이면 시험포전에서 남몰래 《보초》의 밤을 새우기도 하고...

참으로 감동에 고마움에 기쁨에 목메여울던 못

잇을 나날들이었다.

《전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면 저도모르게 당위원회 창문을 바라보곤했어요. 왜 그런지 비서동무가 꼭 올것만 같았어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비서동무가 시험포전에 나오곤했어요.》

나는 시험포전에 무수히 덧찍힌 당일군의 보이지 않는 충성의 발자국을 마음속으로 따라 걸으며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어머니다운 심정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하며 그들의 애로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당일군!

조국의 그 어느 초소에나 당일군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마음의 기둥처럼 의지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당일군이니 존경해야 한다는 도덕상의무감이나 의리 또는 직급상관계에서 흘러나오는것일가.

그것이 아니다. 취재의 주인공들마다 《우리 비서》, 《우리 비서》 하며 어머니처럼 정답게 부르는 그들의 진심에 찬 말을 어떻게 한갓 인사치레나 겸손성에서 나온것이라 하랴.

앞에 나서서 요란스럽게 웨치는 일은 없어도 언제나 말없이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는 미더운 손길이 되는 우리의 당일군!

사람들에게 힘이 모자라면 힘을 주고 생각이 모자라면 생각을 보태주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를 주며 생활의 바다우로 흔들림없이 곧바로 키를 잡아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당일군!

이들은 남의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생각하고 남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받아안으며 다정히, 너그러이 사람들을 대해준다.

하기에 사람들은 말못할 사연이 가슴에 맺힐 때면 먼저 당비서실에 들어선다. 그 어디를 다녀오거나 그 무슨 생각을 품고있을 때면 당위원회의 문을 두드린다.

수집어 어머니에게도 말 못하고있는 깊은 비밀을 간직한 처녀도 당비서앞에서는 스스로없이 털

어놓는다.

참된 생활의 궤도에서 조금도 탈선되지 않도록, 오직 정보로 걸어가도록 이끌어주고 떠밀어주고 앞길 밝혀주는 당일군들이야말로 얼마나 미더운 사람들인가!

그렇듯 믿음을 주는 그들이기에 사람들은 난관 앞에 부닥칠 때 당일군과 함께 있으면 금시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다.

아, 조국의 그 모든 초소들에서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힘차게 이끌어나가

는 우리의 슬기로운 당일군들!

이런 당일군들이 혁명의 초소를 지키고있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온 나라에 짙어차고 우리 당은 불패의 당으로 나날이 위력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당일군들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철통처럼 단합되고 주체의 조국은 우리 당의 향도의 기치따라 역세게 전진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저도모르게 입속으로 되뇌었다.

《아 당일군- 어머니!》

수필

대오의 기수

강남수

나는 때때로 대오의 앞장에 서서 혁명의 북소리를 울리며 대중을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당일군들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에 기초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혁신과 위훈으로 우리를 이끌고있는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적인 혁명기적기풍은 지도일군들이 모든 일에서 늘 대중의 앞장에 서며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서 나타납니다.》

전진하던 대오앞에 난관이 생겨 맥을 놓고있을 때도 다시금 새로운 승리의 고지로 손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당일군들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체험들이 나에게는 수없이 많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전원회의가 있는지 며칠후에 나는 만능자동차기 창안과제를 받았다. 그날부터 나는 뿌리를 내린듯이 의자에 엉치를 붙인채 진종일 머리를 짜냈으나 신통한 구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늘어나는것은 재털이에 담배꽂초뿐이었다.

3 일째만인 그날도 나는 담배연기가 뽕양게 서린 방에서 책상에 마주앉아 탐구로 모대기고있었다.

이럴 때 전화종이 귀따갑게 울렸다.

바쁜 때 무슨 전화인가고 짜증을 내어 들어보니 뜻밖에도 일주일전에 나와 약혼을 한 강철직장의 동무로부터 온 전화였다.

《무슨 일이요?》

《저녁에 영화하는거 알지요.》

그제야 나는 아침에 책임기사가 관람표를 주면

서 오늘저녁 문화회관에서 《이름없는 영웅들》 5부를 하니 가보라고 하던 생각이 났다.

《하차장에서 만나요 네?!》

나는 선뜻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피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식혀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하면 혹시 기발한것이 떠오를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강철지구에 노을이 비길 때 퇴근길에 올라 부원료하차장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하차장에서는 두대의 하차기가 각각 한차량씩의 부원료를 한창 부리고있었다.

그런데 흥분에 떠서 이제 보게 될 영화이야기를 하며 퇴근하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하나둘 이끌리듯 하차장으로 향했다. 알고보니 거기에는 우리 기업소 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사을 들고 하차기계에 부원료를 섬겨주고있지 않는가! 순간 나는 무엇에 뒤통수를 호되게 맞은 심정이였다. 그 하차기계는 몇년전에 우리 자동화직장에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운전공이 혼자서 짐을 부리었는데 차츰 성능이 나빠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드문히 한번씩 사으로 섬겨줘야 하였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책임일군의 행동은 우리 자동화기사들에 대한 말없는 비판이였고 민능자동차기를 빨리 창안할데 대한 엄격한 요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책임일군의 손에 쥐어진 삽자루를 부여잡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였다.

《어서 병원에 가보십시오. 열이 몹시 나는것 같습니다.》

《허허, 일없소. 우습게도 고열이 좀 왔을뿐이요.》

목소리가 깔린것으로 보아 감기도 단단한 감기에 걸린것이 분명했다. 나도 얼마전에 이 감기에 걸려 된고생을 한적이 있다.

여러 사람들이 책임일군을 향해 일을 그만두고 치료부터 하라고 한결같이 권하였다.

그러자 책임일군은 조용하나 신중한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동무들, 치료는 좀 천천히 받아도 되지만 이 화차는 잠시도 지체할수가 없소. 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 19차전원회의에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수송문제때문에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아직 우리가 변변히 일하지 못하기때문이요.

우리가 짐을 빨리 부리는가 못부리는가 하는것은 결국 나라의 수송에 가속을 주는가 제동을 주는가 하는 문제요.

난 화차들이 이렇게 머물러있는것을 보면 체중에 걸린것처럼 편안치 않소.

이 화차들이 전용선에 들어왔다가 쭉쭉 빠져나가면 난 독감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다가도 쑥나올것 같소.》

이때 한 늙은 로공이 저으기 걱정어린 어조로 웨쳤다.

《우리 제격 이 화차를 부리고 구경잡시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호응해나섰다.

나도 팔을 걷고 하차작업에 뛰어들고싶었다. 그러나 나는 책 돌아서 직장을 향해 달렸다. 방에 들어선 나는 방금전에 함에 넣었던 도면지를 꺼내어 책상우에 펼쳤다.

(내가 과연 언제 한번이라도 책임일군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높이에서 일에 대한적이 있는가.)

창안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으니 그것은 한갓 기술실무적인 팽성한 립장에서가 아니라 참된 혁명전사의 자세와 불타는 심장으로 펼쳐나가는 탐구와 사색의 전투였다.

내가 한창 도면지에 연필을 달릴 때 혜경동무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약속을 어긴데 대한 비난이 터져나올것을 기다렸는데 그는 뜻밖의 말을 하였다.

《미안해요 하차장에서... 모든걸 봤어요. 동무가 되돌아서는것도... 식사를 가져왔어요. 빨리 그 하차기를 완성 해줘요.

끝낼 때까지 전... 동무의 시간을 빼앗지 않겠어요.》

나는 영문을 알아차렸다. 코등이 시큰했다. 결국 우리는 책임일군의 이신작칙에 끌려 서로가 약속을 어기였으나 이렇게 만났다.

당일군의 이신작칙! 이것은 위력한 견인력과 추동력을 가지는 무언의 조직방법이다. 하차장, 구경가던 사람들, 나, 혜경이... 그앞에 선 책임일군!

기발을 따라 대오가 흐르듯이 책임일군을 따라 전투대렬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실로 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이 이러한 모범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보다 높은 위훈으로 불러일으킨것은 오늘날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곳에 그가 있었다. 동요하거나 주저할 때마다 그의 불같은 호소와 고무어린 목소리가 우리에게 크나큰 힘을 안겨주었다. 때로는 열이 난 환자의 곁에 친 부모처럼 병간호를 하는 그를 볼수 있었으며 새집 구들에 온기가 잘 드는지를 알아보기로 문을 두드리는 그를 볼수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산 모범으로 앞장서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로동자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돌보는 부모다운 그 마음이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그를 따르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당위원회를 찾아가는것이다.

당일군들의 이신작칙. 이것은 술선 모범으로 대중에게 긍정감화를 주는데만 그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라 돌격으로 부르는 말없는 구령이기도 하다.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 대한 혁명전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범인때문인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당일군들이야말로 언제나 자신의 모범으로써 대중을 이끄는 대오의 기수들이인것이다.

나는 우리 당일군들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군한다. 우에서 이야기한 내가 체험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활속에서 자신이 직접 부딪칠수도 있고 이야기 들을수도 있는 하나의 평범한 사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바로 그 평범한 사실속에 깊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로속하고 세련된 우리 조선로동당, 패배나 주저, 동요라고는 모르며 오직 찬란한 공산주의미래를 향해 줄기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 이 억센 당의 불패의 생활력과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때문인것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우리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우리의 일군들을 교양하시고 이끄시고계시기때문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가적기풍의 표현인 이신작칙! 이것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사업은 더욱 힘있게 전진하며 어떤 곤난과 애로도 우리 앞에서 불눈처럼 사그라지고 우리의 대오는 오직 승리만을 아는것이다.

다시 오지 않아도...

권장석

그전까지만 하여도 과학적발명과 기술적진보에 속하는 모든 혁신들은 그것이 비록 단순한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부문생산에 도입되어 목격한바의 성과를 거두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렸다.

그런데 인류가 기원전 2,000 년기전반기(청동기시대)에 거꾸집주조로부터 시작하여 과학기술이 발전된 오늘날까지 모래형으로 수행해오는 주조공학의 역사적기성리론과 기성방법을 보기 좋게 뒤집어 엮고 주물소재를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하는, 기계공업에서 일어난 대혁명은 실로 놀라운것이다.

얼마전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 숨은 영웅들중의 한사람인 강계공산대학 강좌장 박영철동무가 집요한 소극성과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국에 파문을 일으킨 기계공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앞에 펼쳐지게 될 거창한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벌써부터 가슴들먹임을 금할수 없었다.

렬차를 다시 시내빠스로 갈아타고 가는 우리를 맞받아 나무포장함의 송진내가 싱그럽게 풍기는 새 기계제품들을 무겁게 싣고 달려오는 대형화물 자동차들의 대렬을 보게 되자 우리는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박영철동무가 연구완성한 그 새로운 방법으로 주물소재를 생산해서 만든 새 기계제품들이 아닐까?》

《글쎄.》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평가해주신 새로운 주물방법을 어서 봤으면 좋겠네.》

《나도 같은 생각일세.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느군.》

《청동기시대방법을 20세기 70년대말에 와서 우리 로동계급이 굴복시켰단말이야. 얼마나 희한한가.》

빠스를 함께 타고가는 앞사람이 우리를 정겨운 눈길로 돌아보더니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우리 교장 사람들이 아닌것 같구만. 지금 화물역으로 실려나가는 저 기계들은 모두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로운 주물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주물소재를 골격으로 하고있는 우리식의 주체적인 새 기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서 내리지 않겠나?》

달리는 빠스안이라는것도 잊고 우리는 자리를 들썩거렸다. 빠스안의 사람들은 덤벼치는 우리를 보고 모두 웃었다. 우리는 그만 어색한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힌채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커다란 은을 내고있는 기계적이며 경이적인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을 한시바빠 보고싶은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가치있는 과학적발명과 기술혁신을 수많은 하였습니다.》

빠스에서 내린 우리는 손님으로서 인사를 차려야 했던만큼 주물직장에는 한시간후에야 찾아갈수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빠스안에서 우리에게 따듯이 말해주던 그 동무였다. 그는 자기 소개를 그저 하동무라고만 했는데 알고보니 주물직장 부문당비서로 사업하고있었다.

《이거 정말 귀한 손님들을 몰라보고... 안됐습니다.》

(원, 누가 할 말을...)

빠스안에서의 《인연》이 우리들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였다. 우리는 하동무와 허물없이 웃으며 현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

《모두다 속도전 앞으로!》

높다란 벽과 천정기증기에 기발처럼 가로질린 구호들과 함께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 《숨은 영웅 박영철동무의 일본새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라는 제목의 힘있는 속보들을 읽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작업장을 먼저 찾았다. 거기에는 흰 뺨끼를 칠한 높지 않은 대우에 한톤이 잘될 주물소재를 비롯하여 형이 다른 여러개의 주조제품들이 놓여있었다.

《바로 이것이 박영철동무가 연구완성한 그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주물소재들인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이 앞을 오래도록 오가시기도 하시고 손수 만져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는 하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주물소재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았다.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먼길을 오신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주물직장의 그 정결하지도 못한 작업장부터 먼저 찾아주시었다.

주물공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된것을 것처럼 기뻐하시며 새 방법에 의한 제품의 주조시간까지 측정해보시는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한없이 뜨겁게 하여주었다...

우리가 주물소재들을 보고 돌아서니 마침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에 의한 쇠물주입을 시작하려고 서두르고있었다.

천정기중기가 좋을 땡땡 울리며 물고온 쇠물남비, 그 남비의 주황색쇠물이 현란한 불꽃을 축포처럼 날리며 쏟아져 들어가자 이미 우리가 본 한 톤짜리 뜨거운 감빛 주물소재가 10 분도 못되어 천정기중기에 들리워나오는것이였다.

실로 장관이며 기적에 기적이다. 대형주물소재 한개를 생산하는데 몇십분, 이 속에는 용선로에서 쇠물을 받아 생산된 주물소재를 운반하기까지의 모든 공정시간이 다 포함되여있는것이다. 우리가 본 작업시간은 단 몇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기간에는 같은 주물소재 한개를 생산하는데 40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것도 꽤나게 발전되었다고 하던 금형(모래를 60%정도 사용한 주조방법)이라는것이다. 10여년전에는 완전히 모래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개당 생산공정은 무려 51 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그러니 숨은 영웅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3 대혁명소조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구 완성한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은 지난날의 모든 낡은 재래식주조방법에 비해볼 때 얼마나 위력한 것인가!

어찌 그뿐이라.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에는 주물작업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 주물공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종국적으로 해방시켜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심려가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다.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의 우월성은 높은 생산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자재와 로력, 원료와 연료를 절약하면서도 일을 험하게 하는데 있다.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났없이 서있는 우리에게로 주입작업을 살펴주던 3 대혁명소조원 주동무가 다가왔다. 우리는 하동무를 통하여 주동무가 박영철 동무를 적극 도와서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을 연구완성케 한 소조원들중의 한사람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던만큼 그와 반갑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영철동무가 연구완성한 새로운 주물소재생산 방법이 어떻게 커다란 은을 내는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여기서 직접 보셨으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동무는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하동무를 돌아보는것이였다. 그러자 하동무가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공장은 올해 년간계획의 결의목표를 지난 달에 120%로 다시 갱신했습니다. 지난날의 낡은 재래식방법으로 주물소재를 생산한다면 꿈도 못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높은 결의 목표를 갱신했던 첫날부터 매일 계획을 350%로 넘쳐 수행하고있습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은 박영철동무의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이 아주 위력한 은을 내고있기때문입니다.》

무슨 자랑이 되는것 같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우리의 물음에 하동무를 내세워 대답케 하던 주동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이 은을 내기 시작한것은 사실상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시험생산밖에 못하던 한톤짜리 이 대형주물소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업장을 찾아주신 그날부터 은을 내며 대량생산으로 넘어갔지만 저기 무게가 좀 작은 다른 몇종의 주물소재들은 기계공업에 이미 4 년째나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극성과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만 아니였더라면 이 대형주물소재도 2~3 년전에 벌써 완성했을것입니다.》

주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앞당겨 덜어드리지 못한것을 몹시 가슴아파하면서 그 결함은 무엇무엇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장 높은 충성심을 발휘해야 할 3 대혁명전위들인 자기자신들에게 더 많다고 자책하는것이였다.

그 순간 우리는 박영철동무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갓 방조자에 지나지 않던 주동무의 마음이 그러한데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와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발벗고나섰던 당사자인 박영철동무의 심정이야 어떠했겠는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숨은 영웅, 숨은 애국자라는 과분한 치하와 함께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 칭호를 안겨주실 때 가슴아픈 자책이 너무도 강했을것이다.

우리는 주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

에 잠겼다. 기계공업발전과 기술혁명공업수행에 제동기를 걸어온 소극성과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가 우리 혁명발전에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주는가를 깊이 뉘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주동무와 하동무는 우리의 이런 심증을 짐작한 듯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씩 말했다.

《지금은 모두 일들을 쉼 잘하고있습니다.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번에 다시 주물소재 수신통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산할데 대한 어려운 방안을 제기하자 공장의 모든 동무들이 한결같이 일어나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업장에 한대 더 설치할 대형주물 장비나 그 수신통에 대한 설비설계만 하자고 해도 이전같으면 몇달 잘 걸리겠는데 지금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확대도입조에 참가한 동무들은 설계를 완성하는 족족 제작까지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원격조종화설비들이랍니다.》

왔던길에 우리는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확대도입조도 보고가기로 했다, 확대도입조는 말이 조지 자기 산하에 여러개의 분실을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그 분실들을 돌아보면서 주동무와 하동무가 이야기해주던 기적적인 사실들을 직접 보고 들을수 있었다.

방문기

10 월의 대축전장으로

아무리 담이 크고 호방한 사람도 여기 강철로 앞에 설 때면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작아진듯한 느낌을 받는다. 웅글은 불바람소리, 황황 로문을 떠미는 불길, 하늘에서 땅우에서 우르릉거리며 가고 오는 기증기들, 화차들, 모든것이 크고 우람차고 장쾌한 모습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대와 혁명앞에 무엇으로 대답하고있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얼마전 대야금기지 황해제철련합기업을 찾아 갔다.

강철직장의 무쇠계단을 오르는 우리의 마음은 승업해지였다.

《1211고지를 철저히 고수하자!》라고 쓴 구호가 문패인양 머리우에 가로 건너간 직장 입구에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자!》라는 글발이 높이 솟아 불바람소리와 함께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주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깊어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엷은 눈우에 달빛이 드리운 푸근한 공장구내의 정겨운 밤이었다.

그 이튿날 우리는 역으로 나가는 버스안에서 3대혁명소조원 주동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얼마전부터 큰 려관을 가진 역전거리에서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강습이 열리고있는데 그 강사로 어제에는 주물직장 부문당비서 하동무가 출연했고 오늘은 자기가 출연한다는것이다.

우리는 강습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새시대가 박영철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숨은 영웅들에 의하여 더욱 앞당겨지게 될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흐뭇한 마음으로 그려보았다.

헤여지기 앞서 그에게 우리는 앞으로 다시한번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동무는 역시 그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다시 오십시오. 하지만 그땐 우리를 찾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영철동무가 연구완성한 새로운 주물소재생산방법은 조국의 그 어디로 가나 우리 공장 못지않게 다른 기계공장들에서도 커다란 은을 낼터이니깐요!》

권강일

갑옷처럼 방열복을 펼쳐입은 용해공들이 분주히 오가는 쇠다리옆에는 쇠물과도 같은 붉은선들이 쪽쪽 뻗어오른 경정도표며 용해시간을 단축한데 대한 속보의 큼직큼직한 글발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사열이나 반듯이 옆으로 쪽 늘어선 로들은 불길을 내뿜는데 그앞에서는 땅크와도 같은 장입기들이 가로 세로 달리고 빙빙 돌아가며 포신은 팔쪽으로 쇠바가지들 들고 로속으로 나들었다.

보는것 듣는것이 그대로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끓는 장엄한 모습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전으로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승리자의 영예를 안고 당 제6차대

회를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펼치고 생산지휘를 하고 있던 강철직장 부직장장 리용찬동무와 함께 우리는 지령실에 들리었다.

용해장의 불빛이 창유리 비치는 지령실은 마치 도 하늘과 땅사이의 중간에 날아오르는듯싶는데 넓다란 방에는 빙 둘러 지령대가 놓여있었다. 산업 텔레비존이며 전화기, 무선기, 붉고 푸른 불빛들이 깜빡이는 술한 계기들이 주련이 놓인 지령대 가운데는 한사람이 앉아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에도 그는 무엇인가 현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료분석결과를 알려준다는 화면에는 수치들이 련속 바뀌는가 하면 원료장을 비친 화면에는 부단히 기증기들이 흘러가고 전화소리, 무선전화기와 신호소리로 마치도 용해장의 모든 숨결이 여기에 흘러드는듯싶었다. 《1호장입 끝냈다.》 하고 어데선가 보고가 올라오니 《좋다. 용선준비도 됐으니 만부하를 걸라.》 하고 지령원이 대답을 주고는 작전지도와도 같은 종이에 무엇인가 급히 적어 넣었다.

《일이 괜찮게 되는 모양입니다.》

오가는 말을 다 알수는 없어도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것을 느끼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부직장장은 시계를 꺼내보더니 만족한 웃음을 띠었다.

《હે블만 합니다. 장입시간을 또 20분이나 앞당겼으니까요.》

그는 계속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해공들의 가슴은 당 제6차대회전으로 올해 쇠물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함으로써 기어이 충성의 선물을 당대회에 드리려는 열정으로 들끓었다. 새로운 쇠물생산계획이 세워졌다, 일별생산량은 헐치 않은 수자였다. 현재의 로와 기계들의 능력으로 타산하면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용해공들은 애초에 그것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쇠물을 뽑아낼수 있겠는가 방도를 찾고 예비를 찾았다.

혁신의 불길은 타올랐다. 1호평로 로장 서정록동무는 로수명을 연장하며 용해시간을 줄이는데서 그 예비를 찾았다. 그는 장입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입기공, 원료공들과 짜고들었다. 장입바가지들 무질서하게 장입대에 올려놓는것이 기증기로 하여금 공회전을 하게 만든다는것을 안 그는 원료 조장 허각동무와 함께 밤을 지새워가며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첩장에 도면도 그리고 철관우에 금을 그으며 작업공정도 새롭게 짜보았다. 한편 장입기를 타고 운전도 하면서 한바가지의 장입물을 로속에 넣는 시간도 재여보고 원료장과 보조도 맞추었다.

로속에 장입물을 배치하는것은 또한 장입시간 그자체에도 문제이지만 다음공정인 가열시간을

줄이는데서도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다. 그는 장입 시간이면 로걸을 떠나지 않았다. 로를 감시하면서 로의 매 구석에 퍼지는 열을 가늠하였다.

고철이나 광석을 로안의 열상태에 맞게 끌고루 퍼놓는것은 장입물의 용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저쪽 구석에 한바가지.》 《가운데 한바가지 퍼 놓으라.》

장입기를 타고 일일이 장입을 지휘하느라 때식도 잊었다. 현장에서 영양제식당까지는 불과 쇠다리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었다. 잠간이면 갔다올수도 있으나 그에게는 새로운 장입방법을 완성하는 그 길에서 참으로 한초한초가 새로웠던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끝내 충차식장입방법을 훌륭하게 완성해냈으며 종전의 공정시간을 한시간이나 줄이여 장입을 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부직장장은 자주 무선전화기로 호출을 받고는 우리에게 잠시 방해로 구하며 대답을 주기도 하고 련계된 어떤 직장에 독촉도 하였다.

〈원래 공정대로만 한다면 저 5호평로도 아직 불을 살리지 못했겠는데 보수를 앞당겨 끝내고 어제 밤부터 쇠물을 뽑아내고있지요.〉

부직장장은 창문으로 내려다보이는 5호평로를 가리키며 끊어졌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로의 수명이 끝나 보수를 하게 될 때면 용해공들의 마음은 쇠물을 끓일 때보다 더 끓어올랐다. 거창하게 들먹이며 숨쉬던 로가 잠잠해지고 오르던 쇠물도표도 그 자리에 멎어서고, 달리던 걸음도 보수라는 이 차단봉에 의하여 정지될 때 용해공들의 가슴속엔 뜨거운 쇠물이 고인다는것이다. 이때 흐르는 시간은 강철의 톤수로 측정되며 흐른다.

숨은 영웅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열정과 투지로 충만된 5호평로의 용해공들은 단 몇시간을 못가다려 아직 식지 않은 로걸로 다가섰다. 작업반장들인 김성철, 김지연동무들이 방열복자락을 여미며 말없이 로문앞으로 다가서자 용해공들도 뒤따랐다. 뒤미처 달려온 축로작업반동무들도 용해공들의 이런 열정에 탄복하여 서둘러 일손을 잡았다.

천정과 로벽의 벽돌은 어느덧 다 헐리어 이동식 콘베아를 타고 밖으로 실려나갔다. 그들은 로바닥에서 벽돌과 쇠물찌꺼기가 굳어붙은 20톤가량되는 용착물을 발견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정대를 대고 하나하나 까낼수도 있고 다른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쇄하여 내갈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한정없이 걸리었다.

얼마전에 화선입당을 한 용해공 백응빈동무는 통채로 기증기에 걸어 끌어낼 방법을 내놓았다.

그것은 용해공들의 일본새에 맞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용착물이 너무도 커서 로몬으로 나갈수 없었고 또 그것을 끌어내기에는 기증기능력이 모자랐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는 용해공들은 그것을 결코 하나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할수는 없었다.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그들은 그 용착물이 나올만큼한 구멍을 로체에 뚫자는데 생각이 닿았다. 모자라는 기증기능력은 장입기와 80톤기증기가 벌줄을 매고 한데 합쳐 끌기로 하였다. 순식간에 쇠바줄이 걸려지고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무선전화기로 로와 기증기, 기증기와 기증기가 말을 주고받으며 힘을 쓰는 순간 쇠바줄은 팽팽하게 켜기고 들어붙었던 용착물은 움쩍 자리를 떴다. 순간 용해장에는 환성이 터져 울랐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니 가슴은 더욱 들끓어올랐다.

용착물을 깨끗이 들어낸 로속으로 이제는 새로운 내화벽돌이 흘러들었다. 축조가 시작되었다. 밤낮을 모르고 전투를 벌리는 현장으로 용해공들의 가족들도 달려나왔다. 현장치료를 왔던 의사도 가방을 내려놓고 벽돌을 섬겼다. 숨씨있게 축조하는 사람이 직장장이나 당일근임을 알아보고 가슴들이 뜨거워났다. 이렇게 기세를 올리고 힘을 합치니 일자리가 빨리 갔다.

3일간이나 앞당겨 로보수를 끝내고 불을 지피는 날 용해공들과 지원자들의 마음은 당대회에 충성의 선물을 마련해가는 끝없는 영예로, 긍지로 부풀었다.

부직장장동무는 5호로에서 출강할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현장으로 안내하였다.

방금 지령실에서 보고나온 거창한 숨결이 더욱 가까이 느껴졌다. 하늘에는 둥둥 쇠물남비가 떠 오고있었다. 그것도 한개가 아니라 세개씩 동시에 날아왔다. 그것들은 잠시 목표물을 가늠하듯 몇어 서더니 서서히 출강구앞에 내려왔다.

이것을 보던 부직장장동무는 모두가 높은 열의를 가지고 자기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니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하면서 마침 마주오는 기증기조장 김원영동무를 소개해주었다.

《용해공들은 땅에서, 조장동무는 하늘에서 1211 고지를 지켜가는 셈이군요.》

조장동무의 두툼한 손을 잡으며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그런데 그전엔 보병들에게 육을 먹느라고 눈코뜰새가 없었수다.》

우리가 미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부직장

장은 설명을 달았다.

쇠물을 뽑을 때가 다가오거나 후장입시간이 가까와지면 로장이나 작업반장들은 은근히 기증기에 원심을 쓰게 된다. 제때에 용선을 날라오고 남비를 대주는것이 그렇듯 중요하기때문이다. 조금만 지체해도 쇠물의 질이 떨어지고 용해시간이 늘어 났다. 제때에 대지 못하면 벌써 목소리는 높아졌다. 무선전화기는 용해공들의 이 성난 목소리를 어김없이 날라다가는 따가운 불꽃처럼 기증기공의 귀청을 때렸다.

기증기조장 김원영동무는 작전지휘방법을 개선하였다.

한선을 타고 오가는 기증기들이 그 많은 로들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들어주자면 면밀한 지휘가 필요하다는것을 안 그는 로의 상태와 공정별작업정형을 일일이 료해하고 미리미리 기증기를 움직여 나갔다. 그는 철도에서 집중수송을 하는것처럼 집중적인 운반을 하는데 성공하여 후장입시간 같은것은 단몇분에 해치움으로써 용해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것이다.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듯 들끓는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 쇠물을 끓이고있다는것을 뜨겁게 느끼며 잠시 서있는데 출강종이 울렸다. 출강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다.

거창한 사변을 앞에 둔 때처럼 마음을 조이는데 꽃보라를 뿌리며 출강구에서는 불꽃이 먼저 튀어 나왔다. 이어 하얀 쇠물이 지심을 울리는듯한 둥글은 소리를 내며 터져나와서는 남비에 폭포쳐내리었다. 강철지붕새로 흘러내리던 햇빛도 무색하여 흩어져버리고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뜨거운 빛발이 용해장을 환히 비쳤다. 그 불빛에 《모두다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여 당 제6차대회에 드리자!》라고 용해장에 써붙인 구호가 더욱 밝게 빛났다.

짜락짜락- 쇠물이 남비에 떨어져서는 점차 차올랐다. 로장의 얼굴에도 둘러선 용해공들의 얼굴에도 만족한 웃음이 비졌다.

아버이수령님께와 당에 충성의 선물을 드리고 있다는 자량과 긍지로 하여 피여나는 참으로 값 높은 웃음이었다.

우리는 아름답게 피고 또 피는 쇠물꽃을 보며 당대회전으로 연간계획을 기어이 넘쳐 끝내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였다.

10월의 대축전장에 터져오를 축포의 불꽃이야말로 이러한 충성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피여나는것이 아니라.

말없는 진정

리계심

하루를 10 년같이
10 년을 하루같이
호수처럼 깊고
땅처럼 말없는 진정

어떻게 뿌리 내렸는가를
어떻게 충성의 열매로 주렁졌는가를
뜨거운 가슴으로 더듬으며
새겨안은 마음이어

실험실을
머나먼 농장포전에 옮기고
말없는 땅
말없는 종자에
묵묵히 사랑을 바쳤을뿐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떠날수 없던 시험포전
어둠이 내려앉아도
별무리와 더불어 지켜야 했던 시험포전

몸은 시험포전에 있어도
저택에 심어진 종자들
품에 안아키우는 마음
수령님의 심려를 안고사는 그 진정
그것이 의지가 되고
그것이 드눌줄 모르는 신념이 되어

남모르게 흘린 그 진한 땀방울이
남모르게 밝힌 그 탐구의 불빛이
개척자의 디딤돌이 되어
미지의 세계에서 얻어낸
한알의 새 종자

그 말없는 한알의 새 종자를 위해
아름다운 처녀의 꿈도
동무들이 손잡아끄는 즐거운 명절놀이도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의 행복도
고스란히 바친
불타는 그 충성

하루를 10 년같이
10 년을 하루같이
땅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사심을 모르는
말없는 진정에 뿌리를 둔 충성심
그 충성심이
얼마나 무한한 힘을 낳는가를
얼마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가를
말없이 보여준 숨은 애국자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한생을 바치는 삶이란
그 아무리 심산속에 묻혀있어도
만천하에 꽃향기 넘친다는것을
수령님의 기쁨으로 꽃핀다는것을
그때의 크나큰 노력은 말해주누나

숨은 영웅들의
말없는 진정을 안고
모두다 따라나가는 길에서
이 땅은 숨은 영웅들의 위훈으로
더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내 먼길에서 돌아올 때

김석주

내 어린시절
잠시 집을 떠나
고개너머에 갈 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머니는 문밖에 서있었더라

산으로 들로
해저무는줄 모르던 그 시절
밤늦어 집에 들어설 때면
나를 기다려 불을 밝히고
어머니는 잠들줄 몰랐더라

지금은 내 자라
머나먼 길을
오래동안 떠날 때 있어
잘 잤다오라
따뜻이 손잡아주며
문밖에 서있음이
그 누구던가

내 가는 길 멀고
말은 일 쉽지 않아
늘 마음의 길 동무되어
함께 걷고 가까이 서있음을
그누구도 아닌
우리 당비서...

그는
문밖에 서서 바래주는 어머니
함께 밤길을 걷는 어머니 마음
잠시도 방심을 모르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다심한 어머니의 목소리

먼길에서 돌아오던 날
내 느끼던 생각
밤이 깊었으니
집에는 불이 꺼졌으니
어머니도 아이들도 문을 닫고
깊이 잠들었으니

멀리 떠나 느꼈던
그 깊은 믿음과
깨끗한 량심앞에
속마음 나누고싶어
먼저 찾아가는 당위원장

그런 밤이면
창가에 불빛이 밝더라
멀리에서도
가슴에 푸근히 젖어드는
반가운 불빛
내 돌아오기를 기다려-

못잊을 모습, 못잊을 노래

한원희

바다를 사랑하는 갈매기와 같이
노래를 사랑하는 종다리와 같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아닐론직장에
나는 왔다, 기대공처녀들아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노래를 지어주려고-

소리없이 피어나는 흰구름인가

고요히 감도는 실안개인가
꿈같이 내리는 아닐론숨을
너희들은 행복에 겨워 받아내누나 !

백설같이 하얀 숨은
티없이 깨끗한 너희들의 마음인가
수고도 많았구나
맑고푸른 하늘의 흰구름을

여기서 다 잡아 내리우는듯
이처럼 자랑 많은 일터를
우리의 손, 우리의 기술로 지어놓았구나

이리 다오, 다시 한번 잡아보자
붉고 푸른 신호불을 깜빡이며
자동조작대를 운전하는 그 손들을
그 손으로 많고많은 숨을 받아서
온 나라에 보내주고있구나

새 기술을 익히고 또 익히며
지새운 밤은 그 얼마였더냐
하많은 어려움이 앞을 막을 때면
너희들은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다지

청천강 찬바람에 외투깃을 날리시면
숫눈길을 헤치시던
수령님의 그 영상
그이께 기쁨드릴 그날을-

아, 수령님 우러러
말없이 바쳐가는 충성의 마음처럼
숨은 관속에 흘러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의 알뜰한 마음
너희들의 포근한 아닐론숨이
그대로 노래가 되어 하늘에서 내리누나 !

거리에서 만나면
그냥 스쳐지날수도 있는 처녀들이건만
온 나라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려는
수령님의 그 사랑을 참되게 꽃피웠구나!

무슨 말로 다 노래하라
너희들의 티없이 맑은 충성의 한마음
너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노래를 지어주려고 왔다가
오히려 너희들의 노래를 배워가누나
내 뜨거움에 목매여-

내 어디 간들 이 노래 잊으랴
넓고넓은 조국땅 그 어데라없이
포근한 아닐론옷을 입고
기쁨에 웃음짓는 사람들을 보려니
그때마다 가슴뜨거이 생각하리라
못잊을 너희들의 모습!
못잊을 너희들의 노래!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련탄	빛은탄
련일	날마다
렵총	사냥총
령	재, 고개
령수하다	반다
령혼	넋
로라	굴대
로맨스	사랑이야기
로스톨	불판
로천	한데
로천채굴	난장캐기
로출되다	드러나다
로프	바줄
로후하다	낱아빠지다, 늙어버리다
	쓸모없이 되다
로인	늙은이
룩비	생물거름
룩색	풀색

본래말	다듬은 말
룩색식물	풀색식물
룩지	꽃잔디밭, 잔디밭
롱아	병어리
료금	값
루락되다	빠지다
루루이	여러번, 거듭거듭
루적되다	쌀이다, 덧쌀이다
루차	여러차례, 여러번
류랑방목	막놓아먹이지
류량	흐름량
류벌	떼몰이
류사하다	비슷하다
류출하다	흘러나다, 흘러나오다, 새나오다...
류포하다	퍼뜨리다
류하다	묵다, 머물다, 쉬다, 있다
류행	돌림
류용하다	돌려쓰다, 당겨쓰다

땅이여, 너와 함께

장호건

태어난 첫날부터
푸른 들
푸른 언덕에 덩굴며
모습도
성품도
너를 닮고 자란
그때문에

전선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대신
이른새벽
황소고삐를 잡고 들로 나가던
어머니의 그 크지 않은 고무신자욱이
지금도 눈앞에 또렷한
그때문에

땅이여
고향땅이여
너의 한줌 흙이 이리도 소중한고
너의 논밭 한이랑이
이리도 가슴 후덥히는가

봄 여름 가을
너의 살찐 이랑을 밟으며
씨앗을 묻고
옅을 가꾸면서도
이처럼 때없이 너를 두고
눈시울 뜨거이
깊어지는 생각

봄종다리 우짖는
이 밭이랑우에서였다
분여받은 땅에
첫씨앗을 뿌리는
이 나라 농민들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려
몸소 들로 나오신 수령님
목메여 인사올리는 아버지의 손등을
오래도록 쓰다듬어주시던곳이...

협동의 첫종소리 메아리치던 그날
이 들길우에서였다

어제날의 한 모범농민을 못잊으시여
또다시 찾아주신 수령님
감격에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시며
나라에 몸바친 사람들의 넉원을 꽃피우자고
대를 이어 이 땅을 지켜가자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던곳이...

아, 정든 고향땅에서
첫 풍년열매를 가꾼
나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고
못내 기뻐하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목메이던 그날의 감격
젖어있는 땅이여

네우에서 받아안은
아버이 그 사랑
대를 이어 끝없는 그때문에
봄벌에 웃는
한잎 애기모를 보아도
다락밭 언덕길에 구르는
처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도
이처럼 뜨거운 생각에 젖어들어라

땅,
내 한생을 바쳐
가꾸고 빛내여갈 땅이여
너는 정녕
나와 함께
대를 이어 사랑을 받는
행복의 대지 !

그때문에, 그때문에
땅이여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며
내 희망을 꽃으로 피우고
내 미래를 열매로 무르익히는
너와 나는 한몸이여라

기쁨의 층계, 행복의 층계

황승명

간밤에도 밤새도록
우등불이 타오르고
노래소리 기계소리 넘쳐나더니
돌기돌기 산허리에 다락발을 펼치며
높이도 올랐구나

시루봉에 등실 해쑈는 이 아침
돌격대의 기발은 산정에 날리고
들먹이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며
나는 안개건힌 산발을 더듬는다...

그 옛날 호미로 돌썩발을 두지며
허리쉽 열두번에 해가 지던곳
뜨락또르도 오르다 못다오른
고개너머 그 비탈밭

몽게몽게 발밑에 구름발이 피어오를 때
그 누가
금송아지로 구름발을 갈아보았다는
꿈같은 옛이야기로
서글픈 웃음을 지었던가...

강산도 변하고
사람들도 달라졌다
천년 이끼돋은 바위도 뿌리뽑고
산으로 덩실 삭도가 오르니
마지막 비탈밭과 함께
산골농사 시름걱정 다 없어졌다고
기뻐하는 동무들아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이 고장의 산발을 여겨보시며
산골농사의 앞날을 펼쳐주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가...

아, 비에 씻겨내리던
산자락의 한줌흙도
만풍년의 다락우에 얹어주시는
아버이 그 사랑
층계층계 이랑마다
수령님의 그 높은 뜻을 펼쳐가거니

푸른 관개수는 저 하늘가에 출렁이고
기계소리 노래소리 끊치지 않으리라
이 땅에 뿌리내린 강녕이들이
쏟아지는 햇빛속에 와술렁거리며
탐스러운 열매로 산을 뒤덮을
그날이 눈앞에 보이누나

자랑찬 그 열매를
어서 안으라고
나를 부르는
층층 다락밭
내 마음 나래돋쳐오르는
기쁨의 층계
행복의 층계...

산이 많아 벌방이 부럽더니
굽이굽이 산기슭마다
만풍의 기쁨에 넘쳐
끝없이 온 나라에 펼쳐지누나...

다락밭에 모닥불 라오르고...

서진명

별들이 내려앉은

등판에

그 누구를 불러 타오르는가

모닥불

모닥불

잡판목을 들어내며

태어나는 새땅

다락밭계단들이 멀리로 뻗어가신가

모닥불은 세차게 타올라도

찾을수 없구나

불을 지핀 주인들은

들끓는 일터에

노래를 안고왔던 예술소조원들

열아홉줄 금선에 흥을 심던 처녀도

일판에 뛰어들어 좋은 땀 흘리는가

불가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가야금

대원을 위하는 돌격대장

살뜰한 그 마음을 두고 갔는가

불우에 걸어놓은 주전자엔

사품쳐 끓어오르는 물...

밤참을 들고 왔던 할머니도

발길 절로 이끌려

한삽 흙을 보태는듯

식지 않은 밥그릇들이

불가에 주련이 놓여있구나!

이 땅의 한귀퉁이도 빈구석이 없게

만풍의 기쁨을 무르익혀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

그 뜻을 받들어 불라는 심장들

한곳에 잠시도 머물러세울수 없는

끓는 그 마음들이

불을 안고 갔구나!

얼어붙은 20리 등판을 녹이며

봄빛을 펼치며 갔구나!

솟아나는 층층계단

넓어지는 새땅으로

돌을 싣고 달리는 트랙포르소리도

봄을 싣고 오는 노래로 들리고

별마다 풍년들어

빙글어지던 그 웃음

천년 버림받았던 이 등판에도

겨울의 절기를 잊고 피고피여

불가에도 실려오는 웃음소리

아 새땅을 넓혀가는 기쁨에

철참의 한때마저 잊은듯

뛰쳐 일하는 사람들

미더움과 자랑에 넘친

이 고장 농장원들의 모습을

여기서 다 모는듯싶구나!

세차게 타올라라 모닥불

밤하늘을 밝히는 그 불빛속에 어려온다

새로 일군 아득한 20리등판에

흥치며 설레일 강냉이숲

풍년새 날아드는 다락밭계단우에서

만풍의 가을을 안고 웃는 그 얼굴들이...

행복한 네 모습은...

한기운

층높은 백화점
홍성이는 옷매대 큰 거울앞에서
딸아, 너는 곱게 웃으며
새옷 사입은 모습 비쳐보고
내 생각은 깊어지고

어느새 저렇게 자랐는가
놀라운 내 마음속엔
행복만이 느껴지고
네 모습 비낀 거울속엔
네 행복한 어린시절이 또 비끼고

아. 꽃리봉 그 시절
색갈 고운 놀이감매대에서
인형을 사줄 때
그때는 네 물랐지
이 어머니에겐
그런 기쁨 없었던것을

아침마다 햇빛밝은 방에서
벽에 걸린 달력장을 하나하나 떼며
손꼽아 기다리던 학교가는 날
꽃가방, 고운 옷차림...
그날의 생글거리는 웃음도 어려오는구나

딸아, 장군님 주신 땅에
풍년가율이 오던 날
세상처음 내 비단옷을 입고 거울앞에 섰을 때
그 기쁜 날에
거울속엔 새로 태어난 내 모습이 비껴있었다

아! 머슴군의 딸로
꽃리봉 그 시절도 없이

물지개만 지던 동지설달 눈보라속에
꽃나이 내 얼굴은
피눈물만 흐르고흘러
웃음을 모르던 얼굴

단 한벌의 성한 옷이 없어
그네뛰는 민속명절에도
해진 치마자락에 얼굴을 묻고
남몰래 눈물 흘리던 이 어머니였다

오늘은 대학을 나온 너
꽃무늬 비단옷을 입은 너와 함께 서니
내 얼굴엔

행복의 이슬 더욱 뜨겁고
웃음속에 자라서 꽃처럼 피어나
거울앞에 선 네 모습 더 아름답구나

부러운것 더 있으랴
바라는것 더 있으랴
거리마다, 마음마다
집집에 둘러보아도
백화점 층마다 올라보아도
가려놓고 사는 행복은 한빛이구나

아! 햇빛 밝은 백화점
너와 함께 오르고오른 이 층계는
누구나 다 오르는 행복의 층계
이 거울속엔

영원히 한빛으로만 비쳐들리라
너와 너의 아이들의 어린시절은
조국의 모든 아이들의 어린시절은...

고향의 바다여 외 2 편

문동식

내 돌아왔노라 고향의 바다여
잘 있었느냐 환희로운 물결이어
상봉의 기쁨을 한껏 터치며
너는 기슭으로 달음쳐오누나

달려와 번져지는 너의 파도는
내 어린시절의 추억의 갈피런가
오랜 세월 초소에서 보고싶던 사람들
너를 보니 삼삼히 안겨오누나

포구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귀항의 잔교에서 만나뵙고 돌아온 밤
무릎가에 다가앉은 우리들의 머리를
살뜰히 쓸어주며 감격에 젖던
그날의 잊지 못할 어부들의 모습이어

수령님 찾아오신 바다이기에
폭풍이라도 이 바다 폭풍을
헤치며 살고싶어
격랑이라도 이 바다 격랑을
넘으며 살고싶어

노호하는 파도
울부짖는 칼바람속에서도
항시 웃으며 고기잡이 떠나가던
그날의 우렁찬 배고동소리
지금도 귀전에 울려오는듯

첩첩한 산중, 중대의 외진 초소
내 총을 쥐고 밤을 지새울 때도
그 걸음들은 바다로 이어지고
그 배길들은 끝없이 뻗어가고

그래서 바다여
고향의 바다여

너는 바다 넘어 또 넘어 하늘가 아득히
망망한 대해로 펼쳐진게 아니냐

어버이수령님 부르신 길이라면
사나운 폭풍도 북극의 얼음산도
서슴없이 헤쳐 보화를 싣고오는
그네들의 불타는 열정을 지녀
너는 마냥 푸르려 설레는게 아니냐

싱그러운 해풍을 한껏 마시며
내 바라보고 또 바라봄은
해종일 모래불에 뒹굴며 뛰놀던
어릴적동무들의 웃음소리로
너의 물결속에 들려옴이니

오, 바다여
어버이수령님 위해 사는 내 고향 사람들의
넋이, 신념이, 힘과 열정이
충충이 고이어 일렁이는 바다여
삶을 사랑하는 이 포구사람들의
약동하는 숨결이어, 랑만의 노래여

천년이 가고 만대가 흘러도
어버이수령님 위해 변함이 없을
내 고향 사람들의 충성의 마음
잠시도 쉬임없이 멈춤도 없이
이랑이랑 밀려와 내 가슴에 안기는구나

순간에도 너처럼 내 마음 넓어지고
너의 거센 물결처럼
내 가슴에 열정은 굶주치나니
바다여
나는 너의 아들
네 품에 청춘의 삶을 꽃피워가리라

해 당 화

하얀 파도 은구슬 뿌리는
고향의 백사장에 피어난 해당화야
병사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 아들
나를 반겨 이리도 활짝 폈느냐

새로 세운 중대의 아담한 병실
마당가의 화단에 꽃씨를 심을 때도
내 가슴엔 문득 네가 안겨왔다
안겨와 송이송이 향기 풍겼다

땀에 군복이 마를새 없던
전술훈련의 그날 그 저녁
벼랑가에 붉게 타는 진달래를 보아도
눈앞엔 언뜻 네가 피여났거니

네가 피어나면 안겨오더라
강산이 불타던 전화의 그날
흩어진 꽃잎을 피로 물들이며
한치한치 너의 밀을 배밀이 해가던
그 영웅병사들의 근엄한 모습

안겨오더라

고기잡이 떠나가는 배를 세이다
따라갈듯 와아-물속에 뛰어들던
내 어릴적동무들의 웃음소리도
네 송이송이에서 쏟아져내라더라

아, 그 잊지 못할 영웅들의 념원을
그 명량한 아이들의 웃음을
언제든지 이 해변에 꽃피우라고
속삭이며 당부하며 사시절을 하루같이
병사의 가슴속에 피어나던 해당화야

그렇게 피워주마 꽃피워주마
걸음걸음 너와 약속을 다지며
조국을 억세게 지켜온 병사의 위훈
오늘은 고향땅에 꽃피워가라고
너는 내앞에 붉게 피여있거니

아 해당화야
초소에선 고향을, 고향에선 초소를
잊지 말라 아 가슴에 뜨겁게 속삭여주는
너는너는 내 고향의 아름다운 꽃
언제나 내 가슴속에 피여있는 꽃

추 의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셨던 바다가
해만 뜨면 우리는 여기로 달려왔지
수령님께서 언제나 계시는것만 같아
환히 웃으시며 거니시는것만 같아

수령님 발자욱 새겨졌던 이 기슭에서
물에 젖은 모래로 배를 만들며
조약돌과 조갑지로 집을 세우며
우리는 새들처럼 재잘거렸지

-나는 이담 여기서 선장이 되어
아버지원수님을 꼭 만날테야
-나는 이담 여기에 큰집들을 지어
아버지원수님을 선참 모실테

지어놓은 새집들과 고기잡이배들이

찰싹찰싹 따라오는 파도에 무너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또다시 집을 짓고, 새 배를 만들고

무너지면 세우고 무너지면 세우고
그속에서 철이 들고 담이 크던 동무들
지금은 먼바다어장에 가있느냐
새 항만건설장에서
파도속에 방파제를 쌓고있느냐

머리 들어 바라보니 바다와 해변가
그림처럼 솟아오른 새집들과 큰배들에
방불히 어려오는 그날의 모습들
아, 어릴적 내 동무들 어릴적 꿈들이
끝내 포구에 천년 뿌리내렸구나

소중한 꿈

김정길

애젊은 한 병사가 주먹고지로 반달음을 놓고 있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등에 가독나무잎으로 잔뜩 위장을 한 병사였다. 그의 앞가슴에서는 반드르르 윤기가 흐르는 기관단총이, 등에서는 크지 않은 풀색배낭이 서로 겨끔내기로 달싹거린다.

이제 겨우 열에닐곱살 되어보이는 애 어린 병사의 해맑고 동그스름한 얼굴로는 땀이 철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실념은 않고 손에 쥔 수건으로 땀을 쓱쓱 훔쳐내며 그본새로 그냥 내달린다.

주먹고지로 배치되어가는 오기호였다.

고지로 빨리 가려는 성급한 마음을 안고 총총히 발을 옮기는 그에게는 대대부를 떠날 때 하던 대대 장의 말이 언뜻 떠올랐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기름하며 입이 무거운 대대장은 기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또직또직하게 《동무가 가면 중대장이 무척 반가와할게요. 먼저번 연락병을 전투원으로 보낸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으니까.

기호동무, 가져든 중대장을 잘 돕소. 그는 런던에서 소문난 싸움꾼이요. 얼마전엔 혼자서 미국놈 땅크를 두대나 잡았대요.》라고 했던 것이다.

오기호는 그렇듯 용감한 중대장과 함께 싸우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시금 기쁨이 솟아오르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가 처지는 배낭을 추스르고 이마와 목덜미로 흐르는 땀을 연신 씻으며 주먹고지에 닿았을 때는 정오의 뜨거운 해볕이 누리를 지지고있었다.

한개 소대가량의 전투원들이 찌물कु는 더위따윈 아랑곳없이 손으로 땀을 쥐어뿌리며 파괴된 전호를 한창 수리하고있었다.

오기호는 그들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전호를 파는 중대장을 찾아냈다.

《중대장동지, 전사 오기호 당신의 연락병으로 배치되어왔습니다.》

오기호의 보고에 중대장 강만억은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쭉 펴더니 《오느라 수고했소.》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중대장의 손을 덥석 잡으려던 오기호는 그만 눈이 둥그래서 말뚝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고말았다.

보통키에 쩍 버그러진 실한 어깨, 술진 눈섭 밑에 시원스레 빛나는 쌍겹진 눈, 웃을 때면 나타나

는 인상적인 덧이... 자기앞에 빙그레 웃음짓고 서있는 중대장은 분명 향풍중학교시절의 생물선생이었다.

《아니, 선생님!》

뜻밖의 기쁨과 감격에 휘말려든 오기호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강만억중대장의 손을 막 잡아흔들었다.

강만억중대장의 쌍겹진 눈은 지나간 나날의 기억을 더듬는듯 순간적으로 쪼프려지더니 금시에 환히 빛났다.

《이제 누구요?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구만.》

두사람은 손을 오래도록 잡아흔들었다.

오기호의 출현은 중대장뿐아니라 전사들도 기쁘게 했다. 고지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말소리로 들썩하였다. 그때 얼굴이 네모질사한 무뎠하게 생긴 한 아바이전사가 오기호앞으로 한발 성큼 나섰다.

《이거 나살이나 건사한게 인사를 제때에 차리지 못해 미안하구만.》

땅냄새가 몸에 흡썬 배여있는 아바이전사는 이렇게 말하며 오기호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들었다. 그리고는 자기 어깨에 썩 둘러메려다 말고 끝 끝 허를 찼다.

《아니, 이거 벌써 〈파편신셀〉 켜구만.》

지은지 얼마 안되는 배낭의 한쪽 귀퉁이가 파면에 한뼘가량 쭉 찢겼는데 그 사이로 쫓쫓한 마분지딱이 얼마를 드러나있었다.

《이게 뭐요?》

전사들속에서 누군가가 마분지딱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오기호는 대대부앞에 있는 고지를 넘어오다가 뜻하지 않게 맞닥들었던 가증스런 적기를 생각하며 쭈뼛거렸다.

전사들은 무슨 신기한 보물이라도 만난듯 웅성거리며 배낭을 빙 둘러쌌다.

《어니 좀 봅시다.》

눈섭이 짙고 눈썹리가 우로 쳐들려 만만치 않아 보이는 다부진 몸매와 한 상등병이 다짜고짜 배낭끈을 풀려고 했다.

《아하, 주인의 승낙도 없이 그러면 되나?》

아바이전사는 눈을 찡긍하며 누그러진 말투로

상등병을 나무랐다.

《원 참, 고지우에서야 주인이구 아니구가 있습니까? 다 주인이지요. 어디 풀어봅시다.》

호기심이 잔뜩 동한 상등병은 아바이전사의 눈짓을 못본체하고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오기호는 그들의 심경을 보며 더는 그대로 서있을수가 없어 짝을 꺼내 열었다.

순간 전사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팍안에는 스물여덟점무당벌레며 노랑말벌, 실잠자리며 범나비, 풍뎡이며 매미 등 여러가지 곤충이 정성들여 얹게 깎은 나무표창이에 등을 껴인 채 한가득 들어있었다.

이것은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흙마져 불타는 고지에서는 희귀한것이 아닐수 없었다.

전사들은 놀람과 기쁨, 감탄조로 저마끔 한마디씩 했다.

《거 뭘가했더니 곤충표본함이구만. 대단한데...》

《이거 동무가 만들었소?》

《우리 고지에 <생물학자>가 왔어.》

그것을 보는 강만억중대장의 머리에는 생물교원으로 향풍중학교에 있을 때 어느 일요일의 일이 추억의 갈피를 헤치고 문득 떠올랐다.

...그날 생물연구소조원들은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향풍산에 곤충표본을 하러 올라갔었다. 산속에서는 미래의 생물학자들을 반겨 온갖 새들이 즐겁게 노래불렀다.

《선생님, 꼭꼭꼭 하는 저건 무슨 새입니까?》

《되새가 우는 소립니다.》

강만억이 말을 더 이으려는데 한 학생이 성급히 또 물었다.

《선생님, 쭈리쭈리하는건 무슨 새입니까?》

《술새입니다. 등은 밤빛을 띠고 허리는 누르스름한데 해로운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리로운 새입니다. 겨울은 남쪽에서 나고 봄에 찾아오지요.》

《선생님, 끼루끼루 끼끼루 뻘이이루기 꼬뻘요루하는건 무슨 새입니까?》

《쇠찌르러기입니다. 찌르러기보다 좀 작는데 머리는 재빛입니다. 등은 검은자주색이고 배는 희지요. 술새처럼 겨울은 남쪽에서 나고 봄에 오는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리로운 새입니다. 우리는 이런 리로운 새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새둥지도 만들어주고...》

강만억은 학생들이 저마끔 묻는 물음에 즉석에서 설명을 달아 일일이 대답을 했다.

오기호는 이런 강만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어쩌면 그렇게 다 아실까?)

오기호에게는 어느 선생님인가 생물선생은 앞

으로 유명한 생물박사가 꼭 될것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정말이지 생물선생님은 이제라도 박사가 될수 있겠어. 나도 선생님처럼 생물학자가 꼭 될테야.)

학생들은 감만억의 지시에 따라 포충망을 들고 곤충을 잡느라 보라밤빛의 매발톱꽃이며 연보라빛의 솔채꽃이며 흰빛의 은방울꽃 등 여러가지 꽃이 방실방실 웃고 술새며 뱀새, 뻘꾸기며 뾰족새, 밀화부리며 흰눈썹황금새 등 여러 종의 새가 서로서로 흥을 돋구며 고운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는 향풍산속을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했다.

그때 오기호가 제일 먼저 곤충을 잡아 표본을 해가지고 병글거리며 강만억에게로 달려왔었다....

강만억은 그때의 뜻을 안고 살아온 오기호가 무척 대견하였다. 그러나 전투마당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운할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강만억은 마음속흥분을 일부러 누락하고 자못 정색하여 입을 열었다.

《련락병동무, 여기선 조국을 지키는 싸움이 먼저요. 곤충표본함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 ..》

웃음을 거둔 오기호는 지난날 학교시절 그처럼 살뜰하고 다정하던 그 미쁜 마음의 귀퉁이마저 찾아볼수 없게 엄격한 강만억을 대담없이 바라보았다. 순간 마음속에는 서운한 감정이 잔물결치며 도저히 막을수 없는 밀물처럼 스르르 차올랐다.

오기호는 왠지그르한 전사들의 요구에 응해 팍 뚜껑을 열 때까지도 이제 곤충표본함을 강만억이 보기만 하면 누구보다 기뻐하며 반겨줄줄 알았었다.그런데 그런 기색이란 새알뽑재기만큼도 찾아볼수가 없는것은 물론 전투장에선 싸움이 첫째라고 하며 곤충표본함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두부모 베듯 싹 잘라 말하는것이였다.

오기호는 놀란듯 두눈을 치켜뜨고 처음보는 사람인듯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서운함이 그의 가슴에 밀물처럼 차올랐다.

× ×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이였다.

오기호는 적들이 하늘에 걸여놓은 조명탄을 맞갖지않게 쳐다보며 1 소대에 갔다가 중대부로 돌아왔다. 문안에 들어서니 탄알깎지를 오그려 만든 등잔의 외씨만한 불앞에서 강만억중대장이 이마에 손을 고이고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오기호의 눈앞에는 문득

전쟁전 중학교시절, 생물실험실에서 박제표본을 만들고 글을 쓰고 하며 과학탐구의 밤을 지새우던 강만억이 떠올랐다.

그때 오기호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강가에 서서 강만억의 지칠줄모르는 열정과 진지한 연구태도를 홀린듯 들여다보곤했었다.

(그때처럼 생물학에 대한 논문을 쓰는것이 아닐가.)

오기호는 이렇게 생각하며 중대장에게로 다가갔다.

《중대장동지, 1 소대에선 모두 휴식중입니다.》

그때에야 강만억은 머리를 들고 오기호를 돌아보았다.

《음, 휴식중이란말이지? 좋소.》

그리고는 다시 글을 써나갔다.

오기호는 강만억중대장에게로 바투 다가갔다. 강만억의 팔굽엮에는 자그마하게 오린 종이가 놓여있었다.

(무엇에 쓸 종이기에 저리도 정성스레 배놓았을까?)

오기호는 호기심을 참을수 없었다.

《선생님, 무슨 글을 쓰십니까? 생물학에 관한 논문이 아닙니까?》

그러자 강만억중대장은 《음?》하며 오기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더니 잠시후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전투일지. 련락병동문 이젠 좀 쉬오.》

그리고는 다시 글을 쓰려다 말고 말을 이었다.

《련락병동무! 앞으로는 중대장이라고 부르오.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중대장이지. 여기는 교실이 아니라 적탄이 비발치는 싸움터요. 알겠소?》

강만억은 조금도 나무라는 기색없이 말하였으나 오기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의 머리에는 중학교때 어느 일요일 향풍산에 올랐을 때 새소리를 두고 묻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대답해주던 강만억의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이 떠오르며 어딘가 마음이 허전해지는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젠 그 생물학에 대한 뜻을 버린것이 아닐가.)

중대부앞으로 걸어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다.

시무룩한 얼굴빛으로 감시소로 찾아가니 자기의 배낭을 살뜰히 벗겨주던 푸점종은 아바이전사가 그를 반겨맞았다.

《좀 쉬라구. 근데 불이 좀 부었군.》

《... ..》

《곤충표본함을 떼운 일때문에 그러지 않나?》

《아니요.》

오기호는 곤충표본함에 대한 강만억중대장의 소홀한 태도에서 생물학을 아예 단념한 의사를 알아 맞았기때문에 섭섭해 그런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에둘러 다른 말을 물었다.

《아바이, 우리 중대장동지말예요. 얼마전에 적땅크 두대를 잡았다면서요?》

《암,잡구말구.거 왜 전선신문에도 크게 났지》

아바이전사는 적을 감시하며 띠엮띠엮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어느날보다 전투가 더 치열하였다. 적들은 열번이나 기여들었다가 실패하자 고지를 한 겹 쪽 벗겨버리길라도 할듯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구어냈다.

적비행기들이 사라지자 중대병사들은 머리며 어깨에 들썩워진 흙을 털어버리고 입안에 들어온 텅텅한 먼지를 뱉어버리며 전호에서 산났을 내려다 보았다.

놈들이 술한 땅크를 앞세우고 덤벼들고있었다. 그 땅크소리가 귀를 멍멍하게 했다.

전사들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적땅크를 노려보며 저놈의 땅크를 어떻게 막을것인가 하고 생가했다.

반땅크수류탄은 이미 다 써버렸던것이다. 이때 강만억중대장이 불이 이글거리는 증오의 눈으로 적땅크를 노려보며 바싹 접근시키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보병수류탄을 가지고 땅크를 맞받아나가더니 땅크에 달린 기름통에 수류탄을 내던지였다. 그러자 승냥이처럼 으르렁대며 올라오던 땅크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였다. 그때를 타서 강만억중대장이 바람처럼 땅크로 기여오르더니 번개불에 쿵닥아먹을 그런 숨씨로 류크를 열고 수류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앞선 땅크 두대를 눈감박할사이에 까부시자 뒤에서 줄레줄레 따라오던 땅크들은 황급히 공무니를 뺐던것이 다...

아바이전사는 그때의 장쾌한 일이 눈앞에 선한듯 감격에 잠겨있었다.

오기호 역시 그랬다.

아름다운 새와 나비에 대하여 한없는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던 어제날의 평범한 생물선생이 어쩌면 그렇게 용감할수 있을까. 그만큼 놀라움이 컸다.

하지만 그런중에도 조국의 리로운 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포기한데 대해서만은 받아들일수 없었

다.

다음날 오기호는 강만억중대장한테서 대대부에 갔다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간을 꼭 지키오.》

강만억중대장은 중대를 떠나는 오기호에게 마치 나아린 학생에게 말하듯 다짐을 두는 것이었다.

《알았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한 오기호는 대대부까지 아무일도 없이 갔다. 대대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 중대로 돌아선 그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이제는 중대로 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풀이 길을 넘게 자란 숲속길로 잡아들었다. 질려갈 심산이었다. 숲에서는 그의 기쁨을 더해 주듯 확확 달아오른 공기를 쟁쟁 울리며 풀벌레들이 목청을 돋구어 경쟁적으로 노래불렀다. 흥에 겨워진 오기호는 기관단총을 앞가슴에 바짝 당기고는 풀대를 꺾어 입에 살며시 가져다댔다. 이어 풀벌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동심에 잠겨 흥겨이 걷는 그의 눈앞으로 언뜻 희귀한 나비 한마리가 꽃무늬 아름다운 나뭇를 사랑하며 유유히 날아지났다.

그는 길게 생각할 사이도 없이 곧 잡을 욕심으로부터 그놈을 썩 따라갔다.

그러나그놈을 잡았을 때는 시간이 퍼그나 갔다.

불별로 길가의 풀이며 나무잎을 시들하게 해버린 해는 벌써 머리우를 썩 지나갔고 넘적한 떡갈나무잎을 간지럽히며 산들바람이 가볍게 일기 시작했다.

(시간이 너무 갔는데...)

오기호가 강만억중대장앞에 헐떡거리며 나타났을 때 중대장의 기상은 자못 엄엄했다.

《무슨 일이 있었소?》

《... ..》

《어디 말해보오.》

《저 ...》

오기호는 대답대신 희귀한 나비를 내보였다. 그것을 보는 강만억의 가슴은 몽클하였다. 그러나 강만억은 입을 꼭 닫았다. 그는 원수놈들의 눈먼 포탄소리를 들으며 방안을 두벅두벅 한참이나 거닐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련락병동무, 상관의 명령을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을 지키는 병사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수 있을까?》

《... ..》

강만억중대장은 오기호를 땀이 쫄 나게 닦아세웠다.

그의 술진 눈섭마저 파들파들 떠는 듯했다.

만약 놈들이 열세번째로 달려든다는 감시병의 보고만 있지 않았다면 오기호는 아마 쥐구멍이 어기 갔소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중대장이 돌아서 중대부박으로 달려나갈 때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꿈틀거렸다.

그래서 그는 소리쳐 웨치고싶었다.

(중대장동지,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고는 그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꿈없이야 어떻게 고지를 지켜싸우며 한시인들 살아갈수 있습니까.)

오기호는 중대장이 《곤충표본함을 나한테 가져오시오.》라고 하던 말소리며 《여기는 교실이 아니라 적란이 비발치는 싸움터요.》라고 하던 목소리가 금시 귀가에 들리는 듯만 싶었다.

(너무하거던.)

그의 생각은 고지를 발각 뒤집어엎는 듯한 총포탄소리에 푹 끊어졌다.

오기호는 전호로 달려나갔다.

고지는 온통 불바다였다.

하늘을 메우며 날아든 적기,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 작렬하는 폭탄, 지축을 울리는 땅크의 요란한 발동소리 ...

놈들이 땅크를 앞세우고 악마구리끓듯하며 달려 들고있었다.

《이번엔 결판을 지어보자구? 흥 어림도 없다.》 고지가 뒤집혀도 네놈들은 주먹고지를 타고있지 못할 것이다.》

오기호는 강만억중대장이 놈들에게 퍼붓는 욕설을 들으며 그의 옆전호에 뛰어들었다.

놈들의 총알이 앵앵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귀전을 스쳐지나기도 하고 전호앞턱에 팍팍 꽂히기도 했다.

오기호는 강만억중대장이 《사격!》하고 웨치는 청청한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단총으로 놈들을 갈겨댔다. 적들이 삼대쓰러지듯했다. 그걸 보는 오기호는 무등 통쾌했다. 조금전에 강만억중대장의 혹독한 질책에 무거워졌던 마음이 어느새 홀가분 해졌다.

그는 검질기게 달려드는 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또 당기었다.

적들은 지저분한 주검을 무대기로 쌓으면서도 수적우세를 믿고 파도식으로 계속 밀려들었다. 대대로 안되면 련대의 령량을 투입하여서라도 주먹고지를 기어이 먹어볼 심산인것 같았다.

중대장 강만억은 온몸이 그대로 증오의 불덩어리가 되어 놈들을 죽쳐대다가 옆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애젊은 련락병 오기호가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

어눌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순간 그의 눈에는 증오가 붉은녹듯 사라지고 자애로움이 생기를 띠고 한껏 솟아올랐다. (꿈이 큰 청년!)속으로 뇌이는 그의 가슴은 찌르르했다.

그는 연락병에게 무슨 다정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다가 입을 꼭 다물고 등에 메었던 전투가방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여 몇자 급히 쓰고나서 오기호를 소리쳐 불렀다. 오기호는 중대장 강만익의 세번째 부름만에야 머리를 옆으로 돌리었다.

《중대장동지, 저를 불렀습니까?》

《그렇소. 빨리 오오.》

오기호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이걸 대대부에 급히 전하시오.》

강만익중대장은 전투가방을 쑥 내밀었다. 그때 적의 포탄이 몇발자국앞에 날아와 터지며 그들에게 흠뻑지를 들썩웠다.

《빨리!》

《알았습니다.》

강만익중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봄날의 아지랑이가 감도는듯 따사로움이 한껏 넘쳐나는 애뜻하고 밝고 그윽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오기호는 웬일인지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귀청을 켜는 총소리가 더욱 잦아지자 고지에 전투원이 긴장한 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며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졌다.

(이 준엄한 시각에 고지를 떠나야 한단말인가. 한명의 전투원이 새로운 이때...)

그는 전우들과 함께 고지에 있고싶었다. 고지에서 지긋게 기여오르는 악착한 원썩놈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죽쳐대고싶었다.

오기호는 입을 뗐다. 그러자 강만익중대장이 엄하게 소리쳤다.

《빨리 가시오. 전번처럼 자유주의를 부렸다면 엄벌에 처할테요》

적진을 쏘아보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이미 사라졌다.

《저...》

오기호가 기여이 무슨 말인가 꺼낼 기미를 보이자 강만익중대장은 칼로 자르듯 단호히 말했다.

《명령에 흥정이란 없는 법이요.》

《? ...》

오기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분했다. 더없이 안타까웠다. 전사의 마음속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 오직 원칙과 요구만을 내세우는 이런 지휘관이 어디에 또 있을것인가.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뒤로 돌아섰다. 웬일인지 눈물이 콧 솟았다. 오기호가 이렇게 생각하거나말거나 강만익중대장은 달려드는 원썩놈들에게 수류탄벼락을 들썩워댔다. 격전은 더욱 치열하였다. 오기호는 콧북듯한 총소리를 뒤에 들으며 몸을 굽히고 총알처럼 내닫기 시작했다.

× ×

대대부에서는 대대장이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있었다. 그는 다른 중대의 전투보고를 듣고있는중이었다. 이윽고 전화를 끝낸 대대장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온 오기호를 보며 다급히 물었다.

《고지형편이 어땠소? 이제 몇시간만 견지하면 되겠는데.》

오기호는 긴숨을 내뿜으며 대답대신 전투가방을 쑥 내밀었다.

《전투가방을... ?》

대대장은 묻지 않아도 될 말을 들으며 가방뚜껑을 급히 열어제꼈다.

오기호는 그때에야 비로소 강만익중대장이 자기의 몸에서 어느때건 전투가방만은 떼놓지 않던 것을 생각해냈다.

(? ...)

오기호는 아주 중요한 연락일것있다고 치부했다. 그러자 강만익중대장에 대한 나무람이 약간 풀리는것 같았다. 하나 그 생각도 순간이었다.

《아니, 이것...》

대대장은 종이를 보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종이를 든 커다란 손이 경련이 인듯 가늘게 떨리었다.

오기호는 눈을 둥그렇게 뜨며 기웃이 종이를 넘겨다보았다.

《대대장동지, 놈들이 뜻밖에 새 무력을 더 들여 밀었지만 고지는 절대로 넘려 마십시오. 원썩놈들을 한놈도 고지에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부탁할 것은 여기 전투가방에 연락병동무의 귀중한 곤충 표본함이 들어있는데 적포탄에 잘못될가봐 보냅니다. 잘 보관했다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중대장 강만익》

순간 오기호는 눈앞이 빙그르 도는듯했다. 가슴속에서는 화산이 터진듯 불령이가 옥 치솟았다. 자기의 곤충표본함을 전투가방에 넣어 그토록 귀중하게 보관하다니, 그리고 자기를 그저 가라면 안갈테니까 연락을 보내는것처럼 종이쪽지를 써넣다니 ...

오기호는 몸을 떨며 대대장이 뚜껑을 연 곤충표본함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그는 또한번 소스라지듯 몸을 떨며 두눈

을 더욱 휘둥그렇게 떴다.

매개 곤충표본밑에는 자그마한 종자들이 붙어 있었다.

오기호의 머리에는 문득 전사들이 쉬는 깊은 밤, 전투의 피로를 무릅쓰고 강만억중대장이 그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쓰던 때 그의 팔꿈 옆에 놓여 있던 종이쪽지들이 떠올랐다.

눈여겨보니 바로 그때의 그 종이가 분명하였다. 그것을 더욱 확증이라도 해주려는듯 강만억중대장이 한자한자 정성껏 쓴 짙막한 해설문들이 오기호를 뻘뻘 울려다보고있었다.

곤충명 희롱나비과에 속하나 정확히 알수 없음, 산지 XXX, 채집자 오기호, 매우 희귀하다, 연구 가치가 있음, 과학원에 ...

오기호는 실로 감당키 어려운 커다란 걱정에서 휩싸였다. 목이 메이고 눈시울이 화끈 달아오르며 견갑을새없이 눈물이 쿵 솟아나 곤충표본함의 자그마한 종이우에 툭툭 떨어졌다.

(아, 이런 중대장을!))

오기호는 기관단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자 밖으로 썩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대대장이 인솔하는 지원구분대의 앞장에서 고지를 향하여 정신없이 내달렸다.

고지에 이르니 창격전이 한창이었다.

오기호는 눈앞에 얼른거리는 미제원췌놈들을 발로 차고 총탄으로 짓조졌다.

얼마후 고지는 고요속에 잠기었다. 언제 싸움이 있었느냐싶었다.

오기호는 파헤쳐진 전호와 불타버린 나무그루를 뛰어넘었다.

오기호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바이전사였다, 그옆에는 고집이 센 상등병이며 몇명의 소대전사들이 서있었다.

오기호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중상을 당한 강만억중대장이 잠든듯 누워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오기호의 심장은 금시 툭 멎는 듯했다.

《중대장동지!》

오기호는 부르짖으며 강만억중대장의 가슴에 확 쓰러졌다. 그리고는 중대장의 몸을 세차게 흔들며 흐느꼈다. 눈물이 불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중대장동지!》

오기호의 목엔 부름에 강만억중대장은 조용히 눈을 떴다.

《기호로구만. 그래 전투가방을 대대부에 가져갔

소?》

《그렇...》

오기호는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음, 수고했소.》

강만억중대장의 입가에는 알릴듯말듯 미소가 어리었다.

《기호, 앞으로 꼭 훌륭한 생물학자가 되라구.》

말을 마치자 중대장은 스르르 눈을 감았다.

《중대장동지!!》

오기호는 더 크게 부르짖으며 몸부림쳤다.

마음속 깊은곳에서 뜨거운것이 솟아올라 눈가에 연신 이슬이 맺히었다.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강만억중대장이 대대부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을 때 왜 그토록 엄하게 꾸짖었는가를 통절히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미래의 열렬한 생물학자로 자기를 떳떳이 키우려는 고결한 마음에서 시작된것이였다. 그리고 생물학자가 되기전에 티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마음속 가장 깊은곳에 안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정녕 그 누구보다도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가슴에 뜨겁게 안은 중대장, 그 강만억중대장의 웅심깊은 마음을 모르고 살아온 자기-오기호는 그런 자신이 끝없이 야속하고 끝없이 저주스럽고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오기호는 강만억중대장의 몸에 엎디어 통곡하여 애타게 애타게 몸부림쳤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대대장이였다.

《눈물을 씻구 일어나라구.》

대대장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의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얼마후에야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강만억중대장은 훌륭한 사람이었소. 그는 생물학에 대한 커다란 꿈을 참으로 가슴속깊이에 안고 있었지.》

그리고는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씹어삼키었다. .

《련락병동무, 동무는 중대장동무가 바라던 사람이 꼭 되어야 하오. 꼭말이요.》

오기호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썩미제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쳐엎어버리고 기어이 생물학자가 될 푸른 꿈이 더 억세게 나래를 펴고있었다.

당일군의 혁명적품모

백영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수행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일군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방법과 사업작풍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적령도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 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결음도 전진시킬수 없습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수백만 근로대중이 동원되어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당적령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작품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훌륭히 보여주기 위한 형상적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형적인 당일군의 생동한 모습을 옳게 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삼고있는 주체형의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간부들과 대중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당일군의 숭고한 품모를 옳게 형상하는것은 그자체로써도 의의가 크지만 작품에서 인간관계의 설정과 그 해결에서 차지하는 형상의 몫이 크며 주체사상적지향성을 바로잡아나가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 그 사상미학적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생활령역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똑바로 잡아쥐고 개성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줄수 있는 당일군들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필수적인 분야이다.

지난 기간 우리 단편소설문학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단편소설 《위성들》(장수근, 《조선문학》 1976년 8호)과 《첫 인사》(윤리래, 《청년문화》 1975년 10호)는 작가들이 당일군의 전형을 훌륭히 그려내려는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뚜

렷이 보여 주고있다.

이 소설들이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으로, 충성의 전위로 잘 형상한것이다.

단편소설 《위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따라배우며 실지 구현해나가는 한 당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의 차이는 말은바 책임의 높낮이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도의 높낮이에 기초하고있다는 종자를 훌륭히 꽃피웠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일군의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당일군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다.

군당책임비서 마진옥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아버지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이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전형적인 당일군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을 일반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천명하였다.

《영찬동무! 이따금말이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소. 우주가 영원하고 지구에 생이 깃든지도 몇억년이라고 한다하나 이 지구가 어느 시기에 우리의 수령님과 같으신 그런 위대한 영재를 모시고 제 궤도를 움직인적이 있었던가.

앞으로도 인류는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우리의 세기를 대를 두고 영원토록 부러워할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이 시대에 사는 이 행복!

그리고는 뛰는 가슴에 손을 대고 속삭여보는것이요.

〈어떤 위대한 시각에 이 심장이 고동치는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을 나는 사는것인가.〉하고말이요. 그러면말이지 어디선가 힘이 솟고 어떤 곤난이고 막 걸어안고 겨뒀고싶단말이요.》

이것은 주인공 마진옥이가 오봉리에서 밤뽕을 타고 고깔봉으로 내려오면서 서영찬운전수에게 한 말이다.

《어떤 위대한 시각에 이 심장이 고동치는가, 얼마나 위대한 순간을 나는 사는것인가.》이 말은 군당책임비서 마진옥의 성격적아름다움, 숭고한 정신세계를 얼마나 감명깊게 보여주는것인가!

주인공이 서영찬과 주고받은 이 대화는 그가 육체적피곤을 이겨내며 언제나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는것은 나라의 200 분의 1 을 결머진 책임감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지배해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에 산다는 끝없는 행복에 대한 높은 자각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뜻깊은 대사이다.

사실 서영찬은 혈기왕성한 한창나이의 청년이었다. 그래서 한때 마진옥한테 짝지랴싶어 피곤을 무릅쓰며 겨루어본 일이 있었으나 끝내 못견디고야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뒤에 그는 이런 결론을 지었다. 아마 마진옥이가 피곤을 이겨내는것은 군당책임비서라는 무거운 책임감때문이 아닌가고.

서영찬은 마진옥이가 밤뽕을 타고 내려오면서 들려준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진할줄 모르는 글의숭고한 정신적힘의 원천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마진옥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시대를 영원토록 빛내여가리라라는 자각을 지닌 혁명의 지휘성원이였기에 농촌을 지원하는데 통이 작은 오봉리립산작업소 소장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데 대하여 주신 간곡한 교시를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여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하고 하면서 작업소의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도록 하는것이다.

주인공 마진옥의 형상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으로 독자들에게 친근하고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또한 그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구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로 능숙 하게 조직동원해나가는 유능한 당일군으로 그려진것과도 관련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옹골세워진 다음 사업의 성과적 수행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며 그들의 지혜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게 하는 가장 힘있는 사업방법이다.

마진옥은 높은 당적책임성과 인민의 총복다운 사업태도,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 혁명적사업기풍을 훌륭하게 겸비한 주체형의 당일군이다.

당일군으로서의 마진옥의 고상한 품성은 그가 가을하는 밀밭을 지나다 차를 멈추고는 농장원들속에 뛰어들어 걸싸게 낫을 휘두르는가 하면 탈곡장의 북데기판에도 몸을 잠그고는 곧장 걸걸한 익살로 일판을 흥성거리게 하는데서 나타난다.

세개 리의 접경을 이루는 고깔봉비탈을 몽땅 뒤번지고 다락밭을 일구는 공사를 판이 크게 벌리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마진옥의 일본새 역시 대중을 영웅적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다.

농진계작업소의 운전수들, 일육십에서 양보를 모르는 두 지배인, 립산작업소장과 로동자들을 다락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주원공의 형상은 당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겠는가 하는것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살뜰히 보살펴주는것은 당일군들의 고상한 품모이다.

주인공 마진옥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며 아랫사람들을 책임적으로 돌보기 위하여 노력하며 군안의 살림 살이를 주인답게 살뜰히 돌본다.

마진옥이가 서영찬에게 군당선전부 지도원 황성배의 가정형편을 알아보고 도와주라고 당부하며 오봉리립산작업소 유치원건설정형을 알아보고 걸린 문제들을 물어쫓뿐아니라 껍박의 질을 높이는데도 관심을 돌리는 생동한 세부들을 통하여 독자들은 그의 어머니다운 품모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마진옥이가 농기계작업소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운전사에게 한 말만이라도 상기해보자.

《영찬동무 ! 좀 수고해주오. 먼저 황성배동무네 집에 들려 앓던 아이가 퇴원했는가 알아봐주오. 동무 눈으로 집형편을 잘 살펴보고 무슨 부탁이 없는가 물어보우.》

이 대사에는 당일군의 어머니다운 품모가 얼마나 생동하게 표현되어 있는가.

단편소설 《위성들》은 이처럼 마진옥의 형상을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인간관계를 생활의 본질적 측면에서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업에 맞게 다양하게 설정하고 생활을 세부적으로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렸는바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 것처럼 인상깊고 친근하게 안겨오는 생활적바탕이 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여러모로 두드러지게 전형화하려면 그를 중심축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다양하

게 맺어주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세부적으로 깊이있고 풍부하게 그려야 하나의 생동한 시대적 화폭을 창조할수 있다.

확실히 이 소설에는 생활이 있고 랑만이 넘치며 시대의 뜨거운 숨결이 가슴후텅게 안겨온다.

미분보이라이야기, 백화점건설장에서 벌어진 장면, 오봉협동농장 파수작업반 사로청원들이 가꾸는 충성의 파일온상에 대한 이야기, 오봉리립산작업소에서 벌어진 장면과 서영찬과 프락뜨르운전수처녀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등 이 작품에 그려진 생활세부들은 고갈붕다락발건설장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생활화폭을 이루면서 주인공의 성격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화폭을 통하여 독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하여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뿐 아니라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판을 벌리고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주체형의 당일군의 모습을 인상깊게 새기게 된다.

이 단편소설에 그려진 생활세부들은 풍부하고 생동할뿐아니라 랑만적인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보다 인상깊게 안겨온다.

주인공 마진옥이가 오봉리에서 밤떼를 타고 고갈붕으로 내려오는 장면은 얼마나 인상깊고 랑만적이며 누구나 다 한번 체험해보고싶은 생활화폭인가!

그가운데서 머리를 쳐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는 마진옥의 눈에서 서영찬이가 읽는듯한 시상과 그들앞에 펼쳐진 고갈붕의 휘황한 광경만 놓고보더라도 그렇다.

《흘러가는 때, 떼구름의 흐름, 그사이로 아득히 흐르는 별무리들, 이 얼마나 무한대한 우주의 영원함과 순간의 귀중함을 두고 깊은 생각을 자아내는 장쾌한 광경인가!》

《...그들앞에 휘황한 광경이 펼쳐졌다.

산마루가 모닥불로 뒤덮인 불야성의 고갈붕이 강물우에 거꾸로 비쳐 제 모습을 나타냈던것이다.

이어 강굽이를 돌아 온 산이 그대로 하나의 큰 모닥 불인듯 이글거리는 고갈붕이 멀리 나타났다.

강기슭에 떼마중을 나온 사람이 해불을 휘둘렀다. 떼는 숨씨있게 기슭에 붙었다.》

이처럼 아름답고 랑만적인 화폭은 주인공 당일군의 품모를 얼마나 숭고하게 돋구어주고있는가.

단편소설 《첫 인사》의 주인공 문혁철 역시 당일군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모를 지닌 인물이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 때 얼마나 거대한 물질적힘을 나타내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던져주고있다.

주인공 문혁철은 소탈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당일군으로서 언제나 틀과 격식이 없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인다.

문혁철은 아직 정식으로 부임인사도 하기전에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앞에서 그것도 앞으로 함께 손잡고 일해야 할 선전대원들앞에서 노래부터 불렀고 포전정리를 다그치는 《풍년》호의 운전칸에서, 발목까지 빠져들어가는 흙감탕판에서 농장원들과 격식없는 첫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사업을 더 잘 할것을 굳게 약속한다.

그는 포전정리 작업이 일부 프락뜨르운전수들의 무책임하고 주인공답지 못한 태도로 하여 일어난판에 부닥치자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심을 안겨주기 위한 선동문을 밤을 밝혀가며 끝내 완성하기도 한다.

주인공 문혁철의 성격이 비교적 생동하고 진실하고 박력있게 안겨오는것은 이 소설이 생활세부와 일화를 정치적의의가 있게 그린것과도 관련된다.

문학작품에서 생활세부와 일화들이 레외없이 이런 각도에서 그려져야 하겠지만 특히 당일군의 형상창조에 이바지하는 세부와 일화들은, 하나를 그려도 정치적의의가 있게, 그리고 그 하나가 열백을 보여줄수 있게 묘사되어야 한다.

이 소설의 첫머리에서 주인공의 꿈담던 병사시절에 대한 일화를 상기시킨것은 아주 효과적이다. 그 일화는 일화 그자체로서 끝나는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을 개성화하며 당선전일군으로서의 그의 성격적바탕을 설득력있게 보여줄뿐아니라 그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며 줄거리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흥미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모든것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단편소설 《위성들》과 《첫 인사》는 최근시기 당일군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의 성격적특징들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예술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함에 있어서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다.

우리 문학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살리면서 날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일군의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현실은 성천군 10 월 7 일 협동농장 초급당비서 장재산동무와 같은 전형적인 당일군의 품모를 보다 훌륭히 형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장재산동무의 혁명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품을 당일군을 비롯한 모든 지도일군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이다.

장재산동무는 농촌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람들을 충성의 한길로 이끌어주며 다수확품종연구사업을 적극 떠맡

어 줌으로써 전형적인 당일군의 풍모를 높이 발휘하였다.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당일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책임적으로 주인공에게 도와주며 이끌어주는 철저한 당적립장과 자세,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고 아량있게 대하며 원칙적으로 교양하면서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따듯이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며 더욱 빛내이도록 이끌어주는 어머니다운 품성, 언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지도작품을 소유한 지휘성원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몸에 꼭 배인 당일군,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당사업을 당의 요구와 의도에 맞게 해나가는 전형적인 당일군의 풍모를 옹골쳐 그려내는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려면 그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가 발현되는 다양한 생활영역들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체현하고있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을 탐구해내는것과 함께 주제를 정치적 의의가 있게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주제적문제이론은 주제를 정치적인의의가 있게 푸는것은 작품의 사상성을 강화하는 기본고리로 될 뿐아니라 예술성을 높이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밝혀준다.

당일군의 형상이 가지는 사상미학적의의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옹골쳐 구현하며 우리 당이 바라고 사람들이 절실히 해결을 기다리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들에 예술적해답을 주는데 있는것만큼 주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의의가 있게 풀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 문제는 혁명적 작품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므로 이처럼 정치적인의의가 큰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정치조직선 문제, 당일군의 형상이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사람은 정치조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수 없을뿐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없다. 사람들의 혁명적생활을 반영하는 작품에서 정치조직선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의 주제적요구와 소재의 특성에 따라 정치조직선을 설정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조직선을 설정하는 경우 그것을 말아나서는 당일군은 주제를 풀어나가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형상과제가

있어야 한다. 당일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일반

적으로는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피우는데 이바지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데서 주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인공 당일군에게 뚜렷한 형상과제를 주려면 그가 투쟁을 조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긍정적인것, 새것의 결정적승리를 보장하는데서 주동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려져야 한다.

그런데 당일군이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돌격로의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개척해나가는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정치성일면에만 치우쳐 인간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당일군이 임의의 극적상황에서 일반적인 호소나 강조로써 사람과의 사업을 다하는것으로 그린다면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제를 정치적인의의가 크게 풀어나가려면 당일군이 생경한 논리로 설명할것이 아니라 형상의 묘를 가지고 구성에서 응당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여야 하며 다른 인물들을 기본사건에 연결시키며 이야기줄거리를 끌고나가는데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려져야 한다.

류사성과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뚜렷이 살리는것은 당일군의 형상에서도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

작가들은 주제와 성격의 류형성, 단조성을 극복하고 참신한 종자와 새로운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탐구하고 깊이있게 천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특색있게 구성을 짜고 기발하게 착상하며 다양한 형상수단과 형상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을 생동하게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의 대사에도 창조적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언어는 작가가 묘사하려는 대상의 표상과 그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며 그가 해명하려는 사상을 전달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작품에 주어진 정황과 이야기가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에 따라 말은 짧을수도 있고 길어질수도 있다. 때로는 그 말이 은은하고 부드러울수도 있고 호소적이며 격동적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일군의 말은 개성적이며 생활적이면서도 설득력있고 박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작가들은 당일군의 형상에서 일련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온 사회를 주제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사람과의 사업이 날로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당일군의 형상은 앞으로 보다 깊은 창조적탐구를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작가들은 당일군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인식교양자적, 사회동원자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철학적인 시를!

리동수

시가작품은 우리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양식이며 무기이다.

시가 없는곳엔 들끓는 환희와 격동도, 희망찬 포부와 랑만도, 풍만한 생활도 있을수 없다.

시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정서를 충만시켜주며 용맹과 슬기, 솟구치는 정열과 기백, 불타는 분노의 걱정을 터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보람찬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한다.

우리는 한편의 시로 시대와 세기를 노래할수 있는 뜻이 깊고 철학적인 시를,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장속에 거창한 정서적충격을 불러일으키며 읽을수록 옹고싶고 외우고싶게 하는 시다운 시를 쓰기 위한 보람찬 창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시대의 높이에 서서

시인은 시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의 가수이며 생활을 선도하며 이끄는 전초병이다.

이 영예로운 사명은 시대의 첨단에 선 우리 시인들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케 한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기대를 자각하며 사는 시인의 심장은 언제나 태동하는 용암처럼 세차게 끓어번져야 하며 생활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시인의 사색은 끝을 모르는 호수처럼 폭넓고 웅심깊어야 한다.

시가작품은 생활에 대한 정서적체험의 산물인것 만큼 사람들의 가슴속에 강한 정서적설득력을 불러일으켜야 하며 해설이나 설명으로써가 아니라 감성적충격으로부터 스스로 흘러나오는 억제할수 없는 걱정의 토로로 되여야 한다.

해방후 우리 시가문학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부터 시작하여 전화의 포연속에서 울려나온 전시가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가슴에 열화와 같은 충성의 불씨를 심어주며 시대와 함께 영광에 찬 진군로를 걸어 왔다.

들끓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은 시대와 세기를 넘어 시가사의 년대우에 빛을 뿌리며 사람들속에 즐겨 불리우고 널리 읊어질 명가사들이 더 많이 나올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주

체형의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성의 송가,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시가작품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우리모두의 삶과 희망찬 미래와 영원한 행복의 상징인 위대한 수령님을 더 정중하게,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절절하게 노래불러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걷고 또 걸을 우리 인민의 불타는 결의와 신념을 생동적인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노래해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시에서 시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시가작품은 산문문장으로 되거나 구호적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사상을 직선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된다.

시가작품은 알기쉽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사색에 안반침된 뜻이 깊고 철학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은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수립을 위한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작품창작에서 도식주의, 형식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시가문학창작에서 도식주의와 형식주의적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풍부한 서정성을 고유한 본성으로 하는 시가문학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나서는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가들은 자기들의 작품에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를 라렬할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화하여야 합니다.》

예술적형상은 산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표현하는데서만 이루어지는것만큼 그것이 추상적이며 무미건조한 구호와

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시작품에서 나타나는 생동한 시적형상은 심오한 정서적체험에 기초한 풍부한 서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따라서 깊은 사색과 진지한 탐구, 나래치는 시적환상을 펼침이 없이 시가문학의 고유한 본성인 풍부한 서정성을 구현해낼수 없다.

서정이 없는 시는 즙이 없는 줄기나 잎이 없는 나무와 같으며 그런 시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향기 영양소도 줄수 없다.

참으로 깊은 인상속에 감동을 주며 강한 여운속에 깊이 사색케 하는 철학적인 시를 쓰기 위하여 시인들은 시대의 높이에 서서 시인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창작자 자세와 각오를 툭툭히 다져야 할것이다.

철학적인것과 구호적인것

시가작품은 간명하면서도 뜻이 깊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사색할수 있도록 깊은 인상과 강한 여운을 남기게 되어야 한다.

울수록 새로운 뜻이 되새겨지고 울고싶고 외우고싶은 시, 이것이 강한 여운을 주는 철학적인 참다운 시다.

그저 볼 때뿐이고 한번 읽는것으로 끝나는 시는 참다운 시가 아니며 그런 시는 철학적이 아니라 구호적이다.

작품의 철학성은 구체적이고 심오한 형상에 안반침된 뜻이 깊고 명백한 사상, 생활의 참된 진리를 밝혀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심원한 진리로 표현된다.

가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는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탐구된 가장 심오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생동한 시적정서로 감동깊게 일반화함으로써 커다란 예술적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이 땅과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을 따라 일관단심 불타는 충성을 다 바쳐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확고부동한 신념을 예술적형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이렇듯 심오한 사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절절한 체험에 기초하여 생활적으로 탐구된 구체적이고 심오한 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밝혀내고있는 여기에 이 가사가 명가사로서의 품위를 갖춘 철학적인 가사로 될수있는 근본요인이 있다.

작품의 철학성은 무엇보다먼저 시대생활의 본질을 체현하고있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할 때 실현되게 된다.

작가가 해당한 력사적시기에 펼쳐진 생활속에서 철학성을 띤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 종자를 옮겨 골라잡고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기 위하여 어떻게 전형화하는가 하는데 따라 시에서 철학적 깊이가 좌우되게 된다.

시대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전형적인 생활은 예리한 정책적안목과 깊은 사색, 피타는 탐구가 없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불타는 창작적열정과 예술적환상을 펼치지 않고는 심오한 형상세계를 창조해낼수 없다.

시대의 본질과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집약된 그런 전형적인 생활은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쌍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속에 있다.

이런 생활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격동에 넘쳐 공감할수 있는 그런 생활을 찾아내여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여 가장 본질적이고도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숨은 영웅들, 숨은 애국자들의 생활을 적극 탐구형상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들은 기나긴 나날 오직 어버이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어 특출한 공로를 세웠다.

이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의 빛나는 구현과정으로 된다.

어떤 요란한 사변이나 전략적의의를 가지는것만을 취급해야 큰 사상을 밝혀낼수 있는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대의 미감이 구현된 가장 본질적인 생활을 떠나서, 우리가 늘쌍 느끼고 체험하는 평범한 생활을 떠나서 감명깊은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수 없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는 심오한 진리를 이끌어낼수 없다.

우에서 본 가사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는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행복한 새생활을 안겨주시였으며 보다 휘황한 래일로 이끌어주시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실생활을 통하여 가장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본질적인 체험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그토록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강한 여운을 안겨주고 있다.

작품의 철학성은 또한 본질적인 생활을 어떻게 선택하며 높은 수준에서 전형화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는가 하는 형상의 심도문제와도 중요하게 연관된다.

시대의 본질이 구현된 가장 전형적인 생활을 잡아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명깊은 예술적화 쪽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지 못한다면 작품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할수 없다.

따라서 작품에 심어진 사상적알맹이를 생동한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내며 형상을 집중화, 집약화하여 한가지 사실이나 하나의 간단한 표현을 가지고도 많은것을 련상하게 하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것까지 새롭게 느낄수 있도록 깊은 뜻을 담아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어들여 심오한 뜻을 곱씹어새기게 하면서 강한 여운을 안고 오래도록 사색하게 하는 그런 깊이있는 철학적인 시를 쓰면서도 풍부한 서정이 차넘치게 시적형상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작품의 철학성은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구체적이고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사상을 깊이있게 정서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에 실현된다.

시인은 섬세한 감각으로 탐구해낸 감명깊은 지적형상을 통하여 사상을 정서적으로 감득시켜야 한다.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설득시킴이 없이 사상을 최선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치적표현을 구호적으로 라렬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을 부각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시가작품의 사상은 풍부한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하며 세련된 시적형상에 안반침되어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한다.

작품의 서정성을 살린다고 하여 정치적표현을 피하는식으로 나가서도 안되지만 정서적호소성과 설득력이 없이 정치적인 표현을 생경하게 로출시키는것으로 사상성을 보여주려고 해도 안된다.

가령 서정시가 행복이나 충성이란 단어를 넣지 않고는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불타는 충성심에 대하여 노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직선적이며 구호적인 시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행복이나 충성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도 시에서는 우리 인민이 날마다 누리는 행복과 가장 고결한 충성심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도록 시인의 뜨거운 열정이 배어나오고 강한 정서적설득력과 풍부한 서정이 흘러넘치게 해야 한다.

가사 《어머니당이어》는 정치적표현을 직선적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피면서 공산주의미래에로 향도하는 한없이 은혜롭고 따사로운 영광스러운 어머니당에 대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뜻이 깊고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로써 태양과 같이 뜨겁고 열렬하고 영원하며 강물과 같이 맑고 청신하며 마를줄 모르는 사랑을 지닌 은혜로운 당의 품에 대하여, 찬란한 기발과 같이 공산주의 먼 앞날을 휘황히 펼치면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는 불패의 당에 대하여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이렇게 사상이 뚜렷하고 심오하면서도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킬수 있도록 시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도, 당에 대한 충성심도 훌륭히 표현할수 있다.

시가작품의 형상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한가지 사실을 가지고도 많은것을 련상하게 하고 깊은 뜻을 담아 보여줄수 있도록 형상을 집약화, 집중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시가작품은 간명한 형상속에 사상의 핵을 담아 고도로 함축하고 집약화하여 뜻이 깊고 표현력이 풍부한 시어로 간결하게 형상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오래오래 남게 하는 여운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다.

한번 읽히운 다음 다시 읽히우지 않는 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시적감흥도 격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시는 시가 아니라 산문이며 강연제강이나 다름없다.

형상이 고도로 함축되고 집약화되지 못한 시나 가사는 정서적인 내용이 없이 그저 라렬되기 마련이며 현란한 문구나 구호적인 웨침으로 형상을 대치하는 경향으로 떨어지기 쉽다.

참으로 시대의 본질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가장 전형적인 생활을 깊이있게 일반화하고 그것을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재현하기 위한 진지한 창작가적자세를 가지고 창작적열정을 불태울 때라야만 사색깊고 철학적인 시를 내놓을수있다.

시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인들은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깊이 탐구하며 한편의 시와 가사를 쓰기 위하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며 뜻이 깊고 여운있는 시를 쓰기 위하여 온갖 창작적 열정과 심혈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첫번째 편지

리호인

조선대학기숙사의 현관벽에 나붙은 봄방학소식을 알리는 속보들을 읽던 나는 한 속보에 눈길이 이르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그냥 서있을수가 없었다.

남이 불가봐 러행용가방을 열린 들고 계단을 뛰다싶이 하여 호실로 올라갔다.

호실에 들어선 나는 봄외투를 걸개에 걸어놓고 창문을 열었다. 싱그러운 밤바람이 창가림을 가볍게 건드리며 불어왔다. 긴 러정의 피로는 까마득히 사라지고 눈앞에는 현관벽에 나붙은 속보가 자꾸만 밝혀왔다.

《...혹가이도로 떠난 력사지리학부 룽상훈동무는 아직 소식 없음. 그러나 우리는 기대한다. 성과와 자랑을 안고 돌아오리라는것을!》

방학때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조선대학 학생들은 여러 지방으로 나가 동포들속에서 사회정치활동을 벌려 성과를 거두군하였다.

올 봄방학도 각처에 나간 조대생들모두가 많은 동포자녀들을 조선학교에 전학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 한명의 동포자녀도 조선학교에 끌어들이지 못한것은 나뿐이었다. 게다가 다른 동무들보다 닷새나 늦게 돌아왔던것이다.

《룽상훈동무 제세요?》

《예-》

나의 대답이 끝나기가 바쁘게 사범교육부 1학년인 아직 고급부리가 채 가시지 못한 최금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로 동무들이 옥몰려들어섰다.

나는 정말 딱했다.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이때 대학도서관에 갔던 같은 호실에 있는 박동욱이가 호실에 들어서며 환성을 올렸다.

《왔구만! 왜 이리 늦었어. 수태 걱정을 했어. 참 샷썸로에서 편지가 왔어.》

동욱이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오려 했다.

《분위기를 마스지 말아요. 지금 혹가이도에 갔던 <귀환보고>를 들으려던 참이에요. 박동무도 거게 앉아서 들으세요.》

하고 금순이가 한마디 쏘는 통에 동욱이는 그 자리에 앉더니 쥐고있던 편지를 금순에게 넘겨주면서 눈짓으로 나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편지를 받아친 금순이는 편지 곁봉투를 한눈으로 읽고 모르겠다듯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편지 곁봉투에 썩여져있는 주소를 읽었다.

《혹가이도 샷썸로 정순 드림.》

동무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창밖으로 눈길을 던졌다. 둥근 하늘에는 몇별들이 머물어가고있었다. 그 별들을 좇던 나의 눈앞에는 문득 혹가이도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나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내뿜은 땀을 훔쳤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동무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아오모리행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것은 방학이 시작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기차로, 련락선으로, 또 기차로 8일만에 나는 총련 혹가이도본부 현관문을 열고 교육회사무실에 들어섰다.

반백의 교육회장이 봄방학을 타서 혹가이도에 온 사연을 듣고 나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와하였다.

《긴 러행길에 피곤하겠는데 오늘 하루 푹 쉬시오.》

《일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동포들속에 들어가 일하고 싶습니다. 길지도 않은 봄방학인데 오가는 날자를 빼면 실은 날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나는 회장의 말이 고마웠으나 응할수 없었다.

동무들은 벌써 자리를 잡고 일하고있으리라 생각하니 한시인들 설수가 없었다.

회장은 나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빼람에서 지도 한장을 끄집어내어 책상위에 펼쳐놓았다. 혹가이도지도였다.

《대학생동무, 이건 혹가이도지도요. 색연필로 표시한데가 총련지부요. 다른 현이나 도에도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부가 있지만 혹가이도처럼

이렇게 멀지는 않을거요. 혹가이도는 일본 총면적의 21프로에 해당하오. 대학생동무, 그러니 평균 거의 8평방키로메터에 우리 동포가 한명씩 살고 있는 셈이요. 수십평방키로메터에 한명이 살고 있는데도 있소.》

나는 혹가이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회장은 긴숨을 후- 내쉬며 손가락으로 이시카리라는곳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회장선생님, 수십평방키로메터에 우리 동포가 한명씩 산다는 그곳으로 절 보내주십시오.》

《고맙소. 그러나 혹가이도는 초행길이겠는데...》
《초행길이면 뭐랍니까. 보내주십시오. 조건타발을 하자면 애당초 혹가이도에 올 생각도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선생님.》 회장은 여전히 지도우에 던진 시선을 뻔줄 몰랐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채 손가락으로 지도우에 동그라미만 그렸다.

《회장선생님, 저는 조대생입니다. 아버지수령님의 해발을 받지 못하고있는 우리 동포자녀가 있다면 그곳이 아무리 험한곳이건, 한적한곳이건 마다할수 있겠습니까? 보내주십시오.》

나는 회장의 손을 짹 쥐고 졸랐다.

교육회장은 지도에 던졌던 시선을 들어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의 입가에 만족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내가 이시카리에 있는 교야마구미합바에 이른 것은 이튿날 새벽녘이었다.

낮선 합바에 신새벽에 들어가기가 뭇해서 동쪽에 서서 눈덮인 들판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이윽하여 합바에서 웬 녀인이 물지게를 지고 나왔다. 그 녀인의 뒤로 너무나 길어서 목을 두어번 접은 장화를 신고 질질 끌다싶이하여 눈길에 발자국을 찍으며 사내아이가 걸어갔다. 꼬리를 말아올린 흰강아지가 눈속에 주둥이를 박기도 하고 털 많은 몸을 떨기도 하며 사내아이뒤를 따른다.

나는 그 사내애를 본 순간 교육회장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교육회장은 출장 가던 도중 열차안에서 우연히 한 동포와 마주앉게 되어 통성하게 되었다. 그 동포는 교야마합바에서 땅과는 계절노동자라고 했고 합바들에는 인부들만 있는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다고 했다. 회장은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려고 몇마디 물어보았는데 대답은커녕 한숨만 내 쉬다가 차에서 내리는바람에 그이상 알수 없었다. 다만 이시카리군에 있는 교야마구미에서 일한다는 그가 박동포라는것만 알았다.

녀인을 따라 합바의 식당에 들어갔다.

말이 식당이지 길다란 널판자의 식탁이 두개 놓였을뿐이다.

나는 녀인이 권하는 식탁모서리에 앉았다. 녀인은 커다란 가마에다 지고온 바께쓰의 물을 쏟아붓고는 부엌아궁에다 장작개비를 밀어넣었다. 그러자 사내애가 아궁앞에 쪼그리고앉아 불을 지켰다. 봄이지만 널판자짚으로 새여들어오는 혹가이도의 바람은 랭기를 뿜었다.

《보구상(박동무)하고는 친척이예요?》

녀인은 의아한 눈길을 나에게 던졌다.

《예,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다 친척이지요.》

《그럼 대학생아저씨도 조선사람이예요?》

《일본사람같이 보입니까? 나는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입니다.》

눈벌에 탄 까만 녀인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아한 기색은 사라지고 반가와하는 기색이 돌았다.

《도쿄에서 이 먼 혹가이도를... 여기 와서 불을 쪼우세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겁니다.》

녀인은 사내애를 안아 옆으로 비켜앉히며 자리를 뒀다.

사내애는 녀인의 어깨너머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일없습니다.》

나는 사양하였다. 그러면서 종전과 다르게 삽스럽게 구는 녀인을 두고 이 녀자가 일본말을 하고 있지만 조선아주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머니는 조선사람 아닙니까?》

나는 목구멍까지 이런 말이 치밀어올라왔으나 꼭 참았다.

날이 흰히 밝기 시작하자 어깨에 수건을 펼친 한 노동자가 치솔대를 입에 물고 바깥으로 나갔다.

《애야, 대학생아저씨를 보구상아저씨한테 데려다주고 오너라.》

녀인은 사내애를 일궈세웠다.

나는 사내애를 따라 노동자들의 숙소로 갔다.

학교교실만큼 넓은 방 한가운데로 통로가 나있고 통로의 중간에 난로 하나가 놓였다. 통로좌우로 각양각색의 이불들이 펼쳐있고 베개맡에는 트렁크며 러행용가방들이 놓였다. 널판자로 막은 벽짚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방안은 싸늘했다. 이불을 개고 천정을 바라보고있는 사람, 열어제낀 트렁크뚜껑에 나붙은 거울을 보며 면도질하는 사람, 난로앞에 앉아 신을 말리는 사람들이 웬 사람이

왔나 하고 의아한 눈길을 나에게 던졌다.

맨 구석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자고있는 사람결
에 오자 사내애가

《아저씨, 손님이 오셨어요!》

하고 흔들려개웠다.

《뭐 손님?》하고 이불을 제끼며 일어난 그는 사
내애와 나를 번갈아보았다.

《도표에서 왔습니다.》

《도표에서요?!》

《초면에 실례이지만 성이 박씨가 아닙니까?》

《예, 박정규라고 합니다… 추운데 깔고앉아쇼.》

박정규는 얼른 이불을 개고 모포를 접어서 내
밀었다. 나는 사양을 하고 그의 얼굴모습을 뜯어
보았다. 눈썹에 타서 얼굴은 시커멓다. 담배를 켜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며 손등이 얼어터져 금
이 짙어졌다. 량어깨우의 떡살이 마치 락타혹
같았다. 한눈에 토목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것이
알렸다.

내가 도교육회장이 들려준 렬차안에서 있는 이
야기를 하자 박정규는 그제야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량반이 교육회장어른이였소?! … 그래 교
육회장의 말을 듣고 왔단말입니까?》

박정규는 자못 의아해하며 연신 담배를 빨아들
이였다.

이때 사내애를 찾는 녀인의 목소리가 났다. 그
러자 사내애가 벌떡 일어서더니 식당으로 뛰어갔
다.

나는 도회지도 아닌 촌이라 학교길이 멀어서
아침일찍 서두르는것이라 짐작했다.

《벌써 학교에 갑니까?》

《학교라니?!…》

나의 물음에 박정규는 깊이 빨아들인 담배연기
를 후- 내뿜더니 재털이єдна 담배를 비대졌다.

《학교가 뭐요, 에미가 물 길러 갈새 부엌불을
봐주러 가지. 그 앤 학교문전에도 못갔소. 제 에
미 애비처럼 까막눈으로 일생을 살아야지.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 같은 동포라는것으로 해서 친
척처럼 가까와진다는데… 저 애 용길이 애비와
나는 같은 동향이지만 어찌겠소, 맘뿐이지. 힘이
있능교.》

한숨을 내쉬는 박정규의 눈엔 서글픔이 가득
비겼고 그의 어조엔 하소연했듯자 필요 없는 팔
자타령이지 무슨 소용이냐는 속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마음이 중요하지요. 맘만 있으면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다. 혹가이도에 우리 조선학교가

없는것도 아닌데…》

《없지야 않지요. 여기서 조선학교에 가자면 질
러가도 역전까지 삼십리가 넘고 또 거게서 차로
두시간나마 가야 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밥을 부
쳐야 하는데 그걸 뉘가당해넌니까. 저 애 에미나
나나 죽자살자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주
제… 어림도 없는 일 말도 마쇼.》

박정규는 꿈같은 소릴 다시는 하지 말라는듯
두툼한 입술을 닫았다.

나는 박정규에게 말을 던졌으나 막무가내였다.
그의 입은 열쇠 채운 자물쇠처럼 더는 열리지 않
았다.

나는 거리도 거리거리와 총련조직과 멀리 떨어
져있는 박정규의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하게 되
었다.

그날그날 아무런 삶의 보람도 없이 살아가는데
습성화된 박정규한테서 죽어서도 묻힐 땅 없던
어제날의 재일동포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게 되었
다. 그것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나는 박정규의 굳게 담겨진 《자물쇠》를 열고
그의 마음속에 생활에 대한 장렬한 의욕과 조국
에 대한 순결한 감정을 안겨줄 결심을 다지고 함
바에 도착한 이튿날 새벽부터 배수로공사장에 나
갔다.

박정규는 대학생이 우정 고생을 사서 목고를
멜 필요가 있는가 하며 한사코 말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와 목고를 같이 메고 땀을 흘리느라면 친
숙해질수도 있을것이라는 그것으로 하여 마음이
거뻐해졌다. 그만이 아니라 어린 용길이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밝은 미래를 안겨줄수 있을것이다
고 나는 생각했다.

배수로공사일이란 여간 힘들지 않았다.

목고줄이 끊어질 정도로 흙을 담은 목고를 메
고 경사급한 동쪽을 올라가자니 보통이 아니였다.
뒤목고를 멘 박정규가 《그래, 내가 뭐라고 하능
교. 그만두쇼. 이러다간 사람 잡겠소.》라고 하며
계속 그만둘것을 간청했다.

나는 처음이래서 그렇지 하느라면 나아지겠지
하며 이를 악물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니구만 하
며 목고줄을 제앞으로 끄당기는 박정규의 얼굴에
도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발이 화들
화를 떨렸다. 목고채가 마치 라침판의 바늘처럼
좌우로 왔다갔다하며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었다.
목구멍에서는 거품이 일고 자꾸 눈앞이 아찔해지
군 했다. 이십미터 되나마나한 동쪽이 몇십리나
되는것처럼 느껴지군했다.

땅만 내려다보며 한걸음한걸음 힘겹게 내짚던 나는 고개를 가까스로 들고 동쪽우를 쳐다보았다. 동쪽우가 심산속의 아아한 산정처럼 보였다. 그 산정우에 목 긴 장화를 신은 용길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병어리장갑 낀 손으로 랑귀를 싸쥐고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의 곁에는 꼬리를 말아올린 흰강아지가 나란히 서있다.

목고군들이 추운데 들어가라고 소리쳤으나 용길은 그냥 돌처럼 앉아서 나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순간 기어코 올라가야 한다, 나약성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나의 뇌리를 쳤다.

나는 동쪽우에 흙을 쏟아붓고나서 목에 둘러댄 까만 목도리를 벗어 용길의 목에 감아주었다.

용길이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볼뿐 아무 말이 없다.

나는 목고를 메고 오르면서 자주 고개를 들어 동쪽우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용길이는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용길이가 늘 나와요?》

나는 빈 목고를 메고 강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박정규에게 물었다.

《갈데가 있능지요. 저렇게 강아지와 벗하고 살지. 그것도 한때지. 그 애두 목고를 메야지. 갈데가 있능교.》

박정규는 목에 둘러댄 수건을 풀어 땀에 젖은 얼굴을 닦았다.

경사급한 동쪽에 비졌던 그림자가 노루꼬리만큼 짧아졌을 때 나는 고개를 들어 동쪽우를 올려다보았다. 돌처럼 쪼그리고 앉았던 용길이가 없었다. 꼬리를 말아올린 흰강아지도 보이지 않았다.

(어데로 갔을가? 추워서 함바로 돌아갔을가? 갑갑해서 판데로 강아지를 데리고 갔을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목고를 메날랐다. 어쩐지 용길이가 없어진것으로 하여 허전한감이 들었다.

정오가 되자 말썰매 한대가 배수로공사장으로 향해 미끄러지듯 왔다.

박정규의 말에 의하면 함바에서 배수로공사장까지는 반키로메터도 되나마나한데 식사하러 함바에 왕복하는 시간이 아까와 일을 더 시켜먹자고 점심을 싣고온다는것이다.

말썰매가 공사장에 도착하자 목고군들이 목고채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썰매걸로 모여들었다. 박정규를 따라 말썰매에 가서 점심을 받아든 나는 깜짝 놀랐다. 점심이란게 주먹밥에다 찬이란것이 다꾸완(무절임)뿐이었다.

《간소》한 점심을 받아들고 되돌아서려는데 말썰매 꿈무늬에 강아지를 안고 달짝 앉아있는 용길이를 알아보았다. 저도모르게 입귀에 웃음이 피어났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용길이는 보조개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대학생아저씨 힘들지?》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용길이를 찬찬히 보았다.

용길의 얼굴은 눈썹에 타서 가무잡잡했고 살결이 어른들처럼 거칠었다. 입술은 사나운 북방의 칼바람에 얼어터져 금이 가고있었다. 그러나 눈만은 유별히 반짝이고있었다.

용길이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눈을 간잔지런히 하여 신작로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신작로로 웃고 떠들며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 학생들때가 흘러가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던 용길의 눈은 어느새 흐려졌다.

《용길아, 학교에 가고싶지?》

나의 물음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는 용길의 눈에 이슬이 돌았다.

박정규는 저만큼 떨어진 나무 한대 없는 동쪽에 퍼터앉아 나더러 오라고 소리쳤다.

《용길아, 저녁에 대학생아저씨한테 와. 글도 가르쳐주고 재미나는 애지도 해줘.》

눈을 슴벅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용길이의 눈에 피었던 이슬이 방울져 뺨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박정규의 곁에 앉아 주먹밥을 먹고나서 강바닥으로 내려가 그와 같이 목고를 메고 경사급한 동쪽을 톱아오르기 시작했다. 나의 눈앞에 자꾸만 용길의 모습이 떠올랐다.

해가 질무렵 힘겹게 내짚는 발밑에 흰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쳐다보며 짖어댔다. 나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돌려 돌아보니 용길이가 목고줄을 잡아쥐고 빙빙거리며 따라오고있었다. 입술을 깨문 그의 얼굴에 땀이 내뿜었다.

나는 가슴이 찡해났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다. 다음 순간 용길이의 마음과는 달리 목고가 가버워지는게 아니라 더더욱 무거워졌고 목고채가 올라미처럼 목을 조이는것 같았다.

《용길아! 목고줄을 놓아라! 놓지 못하겠어!》

나는 눈에 노기를 담고 목고를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용길이는 얼른 쥐고있던 목고줄을 놓고 나를 쳐다보더니 흰강아지를 품에 안고 고개를 푹 수그린채 동쪽을 터벅터벅 올라갔다.

나는 용길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어린것의 마음

을 기록하게 여길 대신 소리친것이 후회되었다. 다시는 나를 경원시하며 결을 주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앞서고 오라는 손짓을 하면 코방귀를 뀌며 달아날것만 같았다.

봄날의 긴긴 해가 지평선너머로 사라지고 둥근 하늘에 별들이 여물어갔다. 별을 이고 배수로공사장에 나왔던 로동자들이 별을 지고 함바로 돌아왔다.

나는 함바에 들어서자 먼저 용길을 찾았으나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용길 어머니가 국바께찌를 들고 와서 긴 《밥상》우에 올려놓았을 때 그에게 용길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혜질 무렵에 울면서 돌아왔길래 한마디 했더니...》

용길이 어머니는 흐려진 눈길로 부엌구석에 놓인 장작개비무지앞에 쪼그리고앉아 자고있는 용길을 가리켰다. 얼마나 울었던지 눈등이 부었다. 장작개비무지우에 그의 목에 돌렸던 까만 목도리가 버림받은듯이 놓여있었다.

나는 들었던 손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자느걸 깨우지 마세요.》

용길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뼈가 있는듯했다.

《바두이소. 대학생이 저 애의 팔자를 고쳐줄 힘이 있능교. 맘이야 고맙지만, 원체 날개 없는 섀데... 어찌겠소.》

박정규는 나의 옷자락을 끄당겼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날개를 달아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한탄부터 앞세웁니까. 맘만 있으면 조선학교 있는데가 천리길이라 해도 보낼수 있지요. 용길이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까?》
《.....》

박정규는 땅이 꺼질듯 한숨을 내쉴뿐이다.

나는 그의 말을 속으로 뇌었다. 뇌일수록 가슴이 칼로 에이듯 아파났다.

파연 용길이를 그냥 내버려둬야 한단말인가. 민족의 열도 없이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박정규와 같은 목고군으로 되여야 한단말인가.

혹가이도로 향해 대학정문을 나설 때 나는 무슨 결심을 품고 떠났던가. 용길이처럼 날개 없는 아이들을 찾아 날개를 달아주고 박정규나 용길이 어머니처럼 열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 열을 찾게 해주자고 이 먼길을 오지 않았던가. 용길이가 몹시 불쌍하고 박정규, 용길이 어머니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불쌍했다.

이런 생각이 뇌리에 맴돌아 이불을 펴고 박정규와 나란히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박정규는 신새벽에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데 얼른 눈을 붙이라고 했다.

나는 눈을 감고 하루해를 돌이켜보았다. 어쩐지 돌이킬수 없는 큰 실수를 한것 같았다.

전등이 꺼졌다.

결에 누운 박정규는 드렁드렁 코를 끌기 시작했다.

지평선너머 깊이 숨었던 달이 얼굴을 내밀며 반짝이던 별들을 쫓아버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에 캄캄하던 사위가 흰해졌다.

《대학생아저씨...》

나의 귀전에서 너무나도 귀에 익은 목소리가 조심히 울렸다.

《대학생아저씨 자나?》

나는 눈을 떴다. 용길이가 머리말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내가 눈을 뜬것을 보자 용길의 눈이 금시 환해졌다. 그의 목에는 까만 목도리가 감겨져있었다.

나는 그의 코등을 손가락으로 튕겨주고 용길이를 끌어안아 나의 팔에 눕히었다. 나는 용길이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용길이가 대학생아저씨한테 영영 안올줄 알았다.》

《그럼 글도 못배우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못듣게...》

까만 목도리속에 깊숙이 잠겼던 가느다란 목을 뽑으며 나를 바라보는 용길의 눈에는 어서 글을 가르쳐달라, 얘기를 해달라는 애원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밤도 이숙한데 그만하구 자이소. 용길아, 돌아가거라. 여젠 아이들이 오는데가 아니다!》

코를 끌며 자던 박정규가 잠에서 깨어나 한마디 툭 내쫓고 돌아누웠다. 그리고 이내 다시 코를 끌기 시작했다.

용길이는 와들 놀라 뽑았던 목을 다시 목도리속으로 잠그며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커다란 눈에 박정규가 말한것처럼 아이들이 오지 못할데에 왔는가, 돌아가라는가,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고개들 흔들었다. 그러자 용길의 눈에 비졌던 일종의 공포가 사라지고 웃음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머리를 뺐다.

《용길아, 세상에서 제일 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니?》

《…………》

용길이는 눈을 깜빡일뿐 대답을 못하였다.

《우리 조선이란다…》

나와 용길이의와의 이야기의 첫 실머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강도 일제침략군놈들을 죽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이야기며 미제침략군놈들을 답새긴 조선인민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성냥을 굶는 소리에 돌아보니 어느새 일어났는지 박정규가 앉아있었다.

《주무시는줄 알았는데…》

《딱 귀결에서 소근거리니 오던 잠이 가만 있겠소. 달아날수밖에…》

박정규는 빨아들인 담배연기를 내쉬며 창문밖으로 바라보이는 하늘중천을 떠가는 달을 쳐다보았다.

용길의 귀여운 눈은 비 개인 날씨처럼 맑았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 담겨져있었다. 그러한 용길이를 보느라니 그렇게도 물렸던 피곤이 어디로 사라져 내리고 몸이 가뿐해지는듯했다.

이날부터 용길이는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밤가는줄도 잊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돌아갈념을 안했다. 무거웠던 박정규의 입이 더더욱 무거워졌다.

고야마합바에 와서 며칠 지난 어느날 봄비가 내렸다.

해종일 비를 맞고 목고일을 하고 돌아온 나는 입맛을 잃어 밥술을 드는등마는등하고 자리에 누웠다.

용길이가 어느새 찾아와서 나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러나 박정규가 용길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얼리었다.

《용길아, 아저씨들은 해종일 비를 맞고 목고를 메고 일해서 피곤해 죽을지경이다. 어서, 어머니가 데리러 오게 하지 말고》

그러나 용길이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박정규는 얼리다 못해 나중에는 용길의 팔을 쥐고 침실밖으로 끌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용길은 박정규의 팔에 매달리듯하며 눈에 이슬까지 담고 애원하였다.

《아저씨, 난 놀데도 놀 동무도 없잖아요. 해종일 문밖에서 밤이 오길 강아지와 같이 기다려요. 쫓지 마세요. 래일부터는 안오겠어요. 아저씨!》

박정규는 용길의 팔을 놓았다. 용길은 손등으로 눈을 훑치고 나의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박정규는 담배를 태우며 율방자를 틀고앉았다. 그는 연방 땅이 꺼질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울긴 사내가…》

나는 용길의 뺨을 가볍게 다독여주며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내가 다니던 조선초급학교에 대한 이야기며 사회주의조국의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량손으로 턱을 고이고 나의 얼굴을 뺨히 쳐다보는 용길은 눈알 한번 까딱하지 않는다. 밤은 깊어 갔다. 식당에서 들려오던 칼도마소리도 끊어진지 오래다. 여기저기에서 로동자들의 앓음소리가 도간도간 들려온다.

퇴창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는 그 쪽으로 바라보았다. 용길이가 어머니가 박정규를 보며 눈짓을 보내고있었다. 박정규가 고개를 끄덕이자 용길이가 어머니는 비물이 흐르는 창문밖으로 사라졌다.

어느새 용길이는 량손으로 턱을 고인채 자고있었다. 그렇게도 빛나던 눈동자는 길다란 속눈썹속에 숨었고 더부룩한 머리칼이 유난히도 큰 귀등을 덮었다. 눈벌에 탄 까만 얼굴을 받치고있는 량손은 얼어터져서 하얀 살금이 짙쭉 뻗어갔다. 나는 무슨 큰 죄를 지은것 같은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언제 왔는지 용길이가 어머니가 박정규의 등뒤에 와앉았다.

박정규는 용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깨우려 했다.

순간 나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꼭 잡았다.

용길의 입가에는 귀여운 웃음이 피었다. 무슨 꿈을 꾸는지 행복에 찬 웃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저씨, 책가방을 메고 조선학교에 가는 꿈을 꾸는 모양이지요.》

나는 용길이가 틀림없이 붉은넥타이를 필력이며 책가방을 메고 조선초급학교로 가는 꿈을 꾸고있으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꿈속에서나 학교에 가야지.》

박정규는 한숨을 후- 내쉬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문 얼마나 좋겠능교. 저 애의 애비 에미도 학교문전에두 못가본 토목로동자의 자식들이요. 일가친척 없는 외로운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던게, 저 애 애비가 용길이를 낳던 해 수문공사에 나갔다가 덜컥 죽지 않았겠소. 수십길이나 되는 땅밀에서 콩크리를 치다가 벽체가 무너지는통에…》

박정규의 등뒤에 앉았던 용길이가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치마자락으로 눈굽을 닦았다.

《오라는데도 없거니와 또한 갈데가 있능교. 함바신세를 면하지 못한 주제에 그런 꿈같은 소릴 제발 하지도 마이소.》

나는 박정규가 허물없이 얘기해주는것이 기뻐다. 그와의 사이가 가까와졌다는것이 룽감으로 느껴졌기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쁨보다 그의 말이 나의 가슴을 갈로 허비듯 쓰리고 아프게 했다.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박정규의 등너머로 눈길을 던졌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목도리 하나 해주지 못하는 에미가 어떻게 학교에 보내나요. 제발 읽지나 말았으면 해요...》

용길이가 어머니는 자고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길은 젖었고 말은 떨리었다.

《아주머니, 기를 펴고 머리를 쳐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제일조선동포는 어제날의 그런 동포가 아닙니다. 용길이가 그렇게도 가고파하는 학교에 못가게 막는건 팔자가 아니라 박아저씨와 아주머니입니다. 용길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 조선학교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저도모르게 어조가 격해졌다.

용길이가 어머니는 아들에게 던졌던 눈길을 제무릎우에 던졌다. 박정규는 긴숨을 내쉬더니 눈을 감고 돌처럼 굳어졌다.

용길이가 어머니는 일어나더니 통로중간에 놓인 난로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난로의 재를 털었다. 그리고 뚜껑을 열고 장작가치를 한아름 밀어넣었다. 미구에 난로연통이 별렇게 익기 시작하자 조용히 식당쪽으로 나갔다.

단잠을 자는 용길의 얼굴을 보며 나는 교육회장에게 긴 편지를 썼다.

편지를 보낸지 닷새가 지난 어느날, 나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별을 지고 함바로 돌아왔다.

《대학생아저씨, 편지!》

용길이가 등뒤에 감추었던 손을 내밀었다.

나는 편지를 받아쥐기가 바쁘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내용은 간단했다. 서두에 인사말이 적혔고 도교육회장이 회의차로 중앙에 가고 인차 돌아올것 같지 못하다는것이다.

나는 그만 식탁에 풀썩 주저앉았다.

(일이 꼬이는군.)

가슴속에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것 같았다.

《대학생아저씨, 무슨 편지가?》

나는 웬일인지 용길이가 보기가 미안했다.

《용길아, 이제까지 아저씨한테서 재미나는 이야

기 많이 들었지?》

나는 용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물었다.

《응, 오늘 또 해줄래?》

용길이는 바짝 다가앉으며 귀여운 눈을 번뜩이였다.

《용길아, 오늘부터 우리 글을 배우자. 조선글을, 글을 알아야 학교에 가지.》

나는 용길을 앞세우고 침실로 들어갔다.

트렁크속에서 학습장과 연필을 끄집어내어 용길의 앞에 놓고 연필 쥐는 법부터 대주기 시작했다.

그는 총기가 있어서 대주는대로 인차 익숙해갔다. 그는 날이 감에 따라 한마디 두마디 우리 말을 번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용길이를 꼭 껴안곤했다.

그때부터 용길이는 공사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일이 없어졌다. 일을 끝내고 별을 지고 함바로 돌아올 때면 용길에는 늘 문결에 있었다. 그는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탁상등 불삼아 나무꼬챙이를 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고는 손바닥으로 지우곤하였다. 그러다가 내가 곁에 오자 일어나서 수고했다고 우리 말을 번지였다.

어떤 날은 내가 곁에 온줄도 모르고 코노래를 부르며 땅바닥에다 노래의 가사를 쓰곤했다. 그럴 때면 나는 언제까지나 그의 등뒤에 서서 또박또박 땅바닥에 새기는 그의 글을 내려다보았다. 글씨는 서툴렀으나 획들은 정확했다. 그의 곁에 앉은 꼬리를 달팽이처럼 말아올린 흰강아지도 신기한듯 눈을 끔뵈이곤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에 일어나보니 곁에 누워있던 박정규가 없어졌다. 나는 용길 어머니며 그와 가깝게 지낸다는 로동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직 박정규가 쉬는걸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되려 나에게 묻기까지 하며 걱정을 했다.

나는 말동무도 없이 낯선 로동자와 목고를 메자니 하루가 일년맛잡인듯 지루하고 몇갑절이나 힘들었다. 온종일 박정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다.

정들자 헤어진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도 무거웠던 그의 《자물쇠》를 열었으며 그와 가까와졌다고 기뻐한 자신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다. 그에게 배반당한듯한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겨우 하루일을 필하고 함바로 돌아오자니 곁에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피곤이 갑절 밀려왔다. 허

리며 어깨가 굽어져 내려앉는것 같았다. 터진 입술에 피멍이 들었고 온몸이 바늘로 찌시듯했다.

《대학생아저씨, 어데 편찮으시지 않아요?》

여느때와 같으면 용길이가 맞이해주는데 오늘은 용길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걱정했다.

《일없습니다. 박정규아저씨는 어데 가셨는지 아직 몰라요?》

《조금전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소! 그래 어델 갔댔답디까?》

박정규가 돌아왔다는 말에 샅시에 피곤도 아픔도 사라지고말았다.

《그 아저씨는 원래 속이 깊어서 말합니까. 사람을 네댓명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진 샷뽀로에서 온게 아니예요?》

용길 어머니가 기름종이로 싼 소포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도교육회에서 보내온 조선화보들과 초급학교 국어교과서라는것을 한눈에 읽을수 있었다.

나는 조선화보들과 교과서를 들고 침실로 갔다. 재털이를 가운데 두고 네댓명이 둘러앉아있었다. 그들속에 영길이가 끼워서 무슨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마냥 고개를 끄덕이고있었다. 박정규는 나를 보자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내가 이야기한 조선대학교 학생이요. 인사들 하이소.》

《대학생에 대한 말은 이 량반한테 들었수다. 난 여기서 30리 떨어져있는 함바에서 토목로동을 하는 강필권이라 하오.》

《나도 강형하구 같이 일하고있수다.》

《난 호로무이에 있수다.》

《... ...》

낯선 동포들은 저마다 자기를 소개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박정규를 쳐다보았다.

《대학생, 나뻘 생각마이소. 내 혼자 그 좋은 이야기를 듣기 아까와서 데려왔소. 대학생이 랐모래면 대학에 돌아간다가에...》

나는 그제사 박정규가 사라진 사연을 짐작할수 있었다.

나를 찾아온 동포들을 본 순간 나는 자신이 아직 동포들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번두리에서 돌고있었다는 가슴아픈 자책에 사로잡혔다.

삼십리, 사십리 길을 찾아온 동포들, 그들은 그 길이 백리라 해도 아니 이백리라 해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올것이다.

이시카리의 넓은 벌판의 여기저기에 있는 함바들을 찾아 100여리 쫓는길을 다니며 동포들을 데려온 박정규, 제혼자 들으면 죄스럽다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치고 있는것인가.

나는 동포들 가슴깊이에 간직되어있는 뜨거운것을 대학에 돌아갈 림박에 와서야 느꼈던것이다.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시카리의 함바란 함바를 모조리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하는 박정규와 같은 동포들을 만났을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잘하던 대학생이 갑자기 병어리가 됐나?》

박정규가 재촉했다.

그러자 박정규의 곁에 앉은 강필권이라는 동포가 나의 앞으로 고급담배를 내밀며 권했다. 나는 담배를 배우지 못했다고 사양하였다.

《듣자니 대학생이 조국에 다녀왔다는게 사실이요?》

강필권이 눈을 간간지런히 하여 나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해하는 기색이 돌고 있었다.

《원, 한다는 소리가, 그래 이 박정규가 거짓말을 할 사람잉고!》

박정규는 조용히 말했으나 그의 어조에는 노기가 어려있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 대학생은 금강산에도 가보았겠소?》

《가보았습니다.》

나는 국어교과서를 펼치며 좋아라 어쩔줄 모르는 용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필권을 바라보았다.

필권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곁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들도 뜻밖인듯 의아해하는 눈길을 나에게 던졌다.

나는 지난해 여름,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여 견학한 금강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자연미에 있어서 극치에 달한다는 금강산을 말로 재현하자니 자신의 주변이 너무나 없고 말이 모자랐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강필권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성을 올렸다.

《과시 대학생이 다르군. 팔선담이며 비로봉이 눈앞에 환히 보이오. 구름띠를 두른 만이천봉도 보이고 삼일포의 파도소리도 들리고... 제아무리 아따미가 어찌고 세포나이가이가 어찌고 해도 어림도 없지.》

나의 이야기에 심취된것은 필권이 혼자만이 아니었다.

《나는 말만 들었지 실은 나이 예순이 넘었다만 아직도 못갔는데 그 젊은 나이에 부럽수다. 대학생, 나도 하나 물어봅세. 이태전에 나하고 같이 일하던 동갑인 장일수란 사람이 귀국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수다. 키꼴이 장대하고 머리가 백발이 오우다. 어데 가나 눈에 인춤 나니 혹시 조국에서 보지 못했소?》

호로무이에서 왔다는 로인이 나에게 기대어린 눈길을 던졌다.

《이태동안에 함바를 네군데나 옮겨앉은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봤자 받기나 하겠소. 그건 그렇다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 넓은 조국땅에서 어떻게 찾소. 원 령감두.》

필권이가 혀를 차며 로인을 나무랐다.

그러나 나는 기뻐다. 북방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시까라평원속에서 빛을 잃고사는 그들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않고있어서였다.

《조국에서는 90이 환갑이라고 하는데 장일수라는분도 나라의 주인된 궁지를 안고 뗏뗏이 살고 계실겁니다. 저의 삼촌도 아저씨들처럼 토목로동을 하다가 귀국했는데 대형볼도젤을 몰고 간석지를 개간하는 어엿한 건설자로 되였습니다. 삼촌과 같이 귀국한 감아바이란분은 로력영웅이 되였습니다...》

나는 트렁크속에서 수첩을 꺼내여 호로무이에서 왔다는 로인한테서 장일수가 몇차에 귀국했는가를 알아보고 적었다.

《꼭 알아서 기별해주겠습니다. 행여나 영웅이 됐을지...》

그들은 고개를 짓기도 하고 손을 짓기도 하며 《영웅이요?》 하고 되묻군하였으나 얼굴들에는 환한 웃음이 흐르고있었다.

이때 조선화보를 펼쳐든 용길이가

《아저씨, 대학생아저씨가 있어요!》

하고 환성을 올리고 화보와 나를 번갈아보았다.

그의 귀여운 눈에 기쁨과 놀람 그리고 의아한 빛이 돌고있었다.

그 화보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선대학교학생들을 한품에 안으시는 사진이 모셔져있었다.

용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바로 곁에 서서 뜨거운 이슬로 불을 적시고있는 대학생을 쫓았다.

《어디!》하고 박정규가 눈을 크게 뜨며 용길이의 눈길우에 자기의 눈길을 던졌다. 련이어 동포들의 눈길이 용길이의 눈길우에 겹쳐졌다.

《대학생!...》

경의에 찬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박정규는 채

말을 맺지 못하고 나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몸을 바로잡으며 고쳐앉았다.

조국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앞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연회에 참석한 일은 일생을 두고 잊을수 없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애에 넘치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연탁에 놓인 음식을 어서 많이 들라고 거듭 권해주셨다.

《아버지원수님!》

나는 그만 뚫어오르는 걱정애 못이겨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먹거리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바쁘신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켜서는 안된다, 어버이수령님께 눈물을 보여드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떠날수가 없었다.

다문 얼마만이라도 그이의 품에 더 안겨있고싶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었다.

《울지 마오. 혁명을 위해서는 헤여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오. 자, 우리 혁명의 길에서 또 만나자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손수건을 눈언저리에 가져 가시었다.

나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연방 솟구쳐올라 더는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대학생은 정말 영광이요. 그이상 더 큰 영광이 세상에 어데 있겠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덕으로 오늘 사회주의조국에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이 서로 돕고 이끌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박정규의 눈시울에 부채살처럼 퍼져가던 주름살이 금시 펴이는것 같더니 눈에 함짝 피었던 뜨거운 이슬이 굴러떨어졌다.

용길이의 귀여운 불에도, 정규가 데려온 동포들의 불에도 뜨거운 이슬이 흘러내렸다. 어느새 왔는지 용길이 어머니가 용길의 등뒤에 앉아서 화보를 쳐다보고있었는데 그의 눈에도 이슬이 함짝 피여 가랑가랑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슬하에 있는 자식보다 집을 떠난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심정으로 채일동포들을 보살펴주시고계십니다. 이 보살피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몇몇한 해외공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

고 역세계 살아나갑시다.》

나는 박정규의 손을 쥐었다.

《대학생!...》

박정규는 나의 손을 힘주어 쥐며 말머리를 떼였으나 뒤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

동포들은 뜨거운 눈물에 젖은 눈길을 나에게 던지며 한마디씩 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었수다. 그런데 방학이 너무나 짧구만. 며칠 더 있다 가면 안되나?》

《이담 방학에도 꼭 휴가이도로 오시오.》

《.....》

용길이가 바짝 다가왔으며 나의 무릎을 툭 치고 나를 쳐다보았다.

《대학생아저씨, 정말 뺄 가나?》

나는 용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눈길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창밖에는 때늦은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나는 보름전에 발자욱을 찍으며 걸어왔던 길에 나섰다.

길에 하얗게 깔렸던 눈이 봄벌에 녹고 드문드문 서있는 가로수들에는 새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봄이 찾아온것이 완연하다.

나는 려행용가방을 들고 앞서 걸어가는 용길을 바라보며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벌써 함바는 성냥갑만큼 보였으나 박정규와 용길 어머니는 한마디 말 없이 계속 따라왔다.

나는 비록 그들이 말없이 걸음을 옮기지만 헤어지기 무척 아쉬워한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이젠 들어가보십시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박정규를 쳐다보았다.

《불들 려치가 없다만... 그 방학이 너무 짧구만...》

앞서가던 용길이가 언덕길에 려행용가방을 내려놓고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었다.

《용길 에미, 저 용길이가 날개를 퍼덕이며 꼭 날아갈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떡하노?...》

박정규는 담배를 붙여물고 용길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대학생아저씨가 달아준 날겐데 날아야지요. 저두 따라 날겠어요.》

용길이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여올랐다. 늘 흐리던 그의 눈은 비 개인 날씨처럼 티없이 맑았다.

《용길이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대학생,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능교? 우리가 오려 큰절을 해야 할 처진데...》

박정규는 당황해하며 나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는 언덕길우에서 헤어졌다. 용길이는 떨어지기 싫어서 자꾸만 따라왔다.

용길 어머니와 박정규는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을 흔들었다...

...

《용길이란 아이는 아직 함바에 있겠구만요? 용길 어머니도...》

나의 《귀환보고》가 끝나자 금순이가 이렇게 물었다.

나는 언덕길우에서 그들과 헤어지고 그길로 샷썰로에 들러서 교육회에 찾아갔으나 교육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중앙교육회에 출장갔다가 며칠전에 돌아온 그는 그길로 도내 조선학교 입학준비를 위해서 지부들을 돌고있다는것이다. 교육회 지도원은 회장이 용길에 대한 사정을 알고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역전까지 배웅나왔던 자기에게 용길에 대한 문제를 당부하고 남행렬차에 몸을 실었다는것이다.

《다른 동무들은 이번 봄방학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데 나는 제판에는 하느라고 했지만 단한명의 동포자녀도 우리 학교에 끌어들이지 못했고 단한명의 미조직동포도 조직에 넣지 못했습니다. 동무들을 볼 닳이 없습니다.》

《상훈동무, 정말 수고했소.》

동욱이가 심히 감동된듯 말했다.

나는 송구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 수고했어요. 그 추운 휴가이도에 가서... 입술이 다 텃구만요. 그런데 정순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후날에 해주겠어요?》

금순이가 편지결봉을 내려다보며 아쉬운듯 말했다.

《정순이, 그 사람은 용길이가 어머니입니다.》

《?!》

금순이는 의아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뿐 아니라 나에게 던져진 호실에 모인 동무들의 눈길 역시 그러했다.

《그러니... 그뒤 이야기는 편지에 있겠구만요. 상훈동무, 자 어서 읽어주세요.》

나는 왜서인지 편지를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샷썰로로 돼있는것으로 미루어보면 회답을 요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나는

위구심이 불쑥 솟구쳐올랐다.

《금순동무, 읽으세요.》

《내가 어떻게 남의 편지를...》

금순이는 정직해하며 편지를 나에게 내밀었다?

《일 없어, 읽으라는데도.》

금순이는 내가 재차 권하자 벌떡 일어났다.

《그럼 읽겠어요.》하고 금순이는 봉투를 뜯었다.

《대학생아저씨, 기뻐해주세요!

용길이가 삿빠로조선초급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나는 그 학교에서 취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어요.

대학생아저씨가 떠난 다음날 해질무렵에 도교육회에서 급히 오라는 전보를 받았어요. 전보를 받은 즉시로 용길이를 앞세우고 삿빠로로 떠났어요.

우리 모자를 반가이 맞아준 회장선생님이 용길이를 삿빠로초급학교에 입학시키자고 하면서 저더러 조선학교 취사원으로 일하지 않겠는가 묻지 않겠어요.

이윽고 교육회장선생님이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새겨진 책가방과 모자 그리고 연필이며 지우개, 삼각자가 가득 든 필갑, 공책들, 신발 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막대한 금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셨다. 용길아, 자, 받아라.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받아안은 용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며 뜨거운 인사를 드렸어요. 나는 그만 용길을 끌어안고 흐느끼고말았어요.

회장선생님이 용길이를 책상앞에 앉히고 〈용길아, 유치원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말할것 없구 다른 애들도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형님, 누나한테서 배워서 조선글을 다 안단다.〉

하고 이르며 백지에다 ㄱ, ㄴ... 자모를 써나가며 따라외워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용길이가 글을 쓸줄 안다고 대답했어요. 회장선생님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용길이더러 써 보라고 연필을 쥐여주지 않겠어요. 나는 기뻐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어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쓰겠는가 하고말어요.

용길이는 고쳐앉아서 정성들여 한자한자 써나갔어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회장선생님은 용길의 어깨를 꼭 껴안고 용타고 몇번이고 치하하면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서 배웠느냐 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때 나는

취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었어요.

대학생아저씨를 만나기전에는 아무런 희망과 목적도 없이 그날그날 살아가는 하루살이였던 내가 대학생아저씨를 만난후부터는 이렇게 살다간 정말 조선사람의 근본까지 잊어먹고만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에 그쳤지 용길 이처럼 대학생아저씨한테서 글을 배우려 하지 못했어요.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회장선생님한테서 칭찬을 받은 용길은 온 얼굴에 미소를 담고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특상훈아저씨에게서 배웠다고 하면서 노래도 부를줄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요.

오늘은 사월십오일

원수님이 탄생하신 날

진달래는 방긋 웃고

종달새도 노래해요

회장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부르지 않겠어요.

노래부르는 용길의 눈에 이슬이 가랑가랑했어요. 나의 가슴은 행복감으로 하여 들먹거리고 뇌리에는 밤이 깊도록 용길에게 우리 글을 한자한자 배워주던 대학생아저씨의 모습이며 달밤에 동쪽에 용길과 나란히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던 대학생아저씨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어요.

대학생아저씨, 지난날 민족적공지도 없이 지내온 자기를 생각하면 얼굴이 막 따가워지며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자부심을 안고 억세게 살아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돼요.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남의 손을 빌려 쓰다니 길게 쓰지 못하고 간단히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펜을 놓습니다.

앞으로 짬짬이 글을 배워서 제손으로 편지를 써서 꼭 보내겠습니다. 박정규아저씨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 아저씨는 대학생아저씨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온 이시카리의 함바들을 찾아다니답니다.

삿빠로에서 정순 드림》

나의 눈앞에 책가방을 메고 초급학교정문에 들어서서 티없이 맑은 용길의 행복한 모습이 환히 떠오르고 동포들이 있는 함바를 찾아 북빙의 랭퐁이 휘몰아치는 이시카리평원에 뚜렷한 자기의 발자국을 찍어가는 박정규의 억센 모습이 밝혀왔다.

세월이 흐를수록

조진용

조국해방의 감격이 어제같은데 세월은 흘러 벌써 서른다섯해가 지나갔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갈라진 조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채 간절한 념원과 갈망, 분노와 슬픔의 년륜만을 덧새기고있다. 젊은 피를 끓이며 시울을 떠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나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지는것이 통일에 대한 갈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임무이며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나의 갈망이 더욱 뜨거워지는 때가 있다.

어느날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니 지난해 미술대학에 들어간 둘째아들이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슬며시 내 책상위에 내놓았다. 나는 별로 깊은 생각 없이 둘째가 그린 그림들을 한장 두장 번져보았다.

그가운데는 록음 우거진 평양의 거리를 속사한 것도 있었고 탁구판앞에서 한창 훈련에 열중한 한 나어린 선수를 소묘한것도 있었다.

아직은 구도나 형상이 미숙한데가 적지 않았으나 그사이 기량을 높이기 위해 애쓴 흔적을 찾아볼수 있었다.

그 애가 내놓은 그림의 마지막 장을 번지려던 나는 《삼촌의 소원》이라고 표제를 단 한장의 그림 앞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참대같은 소낙비가 퍼부어대는 서울거리, 오가던 사람들이 다 비를 피했는데 나어린 한 소년이 겨드랑이에 신문을 끼고 화구점앞에서 주춤거리고있다.

습작 삼아 그린것이다보니 부자연스러운데가 눈에 띄였다.

그러나 《삼촌의 소원》이라고 표제를 단 그 습작품은 그림으로서의 됃됨이를 생각하기에 앞서 나를 달포전에 있었던 저녁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그날 둘째는 대학에서 타온 붓이며 화구들을 내놓으며 이제 더 좋은것을 타오게 된다고 기뻐하였다.

나는 한자루 두자루 붓을 눈여겨보다가 불시에 떠오르는 추억이 있어 잠시 무거운 생각에 잠겼

다.

지금은 벌써 30 년이 흐른, 내가 남조선에 있을 때일이지만 나의 어린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그 쓰라린 일을 추억할 때마다 지금도 나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다. 나는 그 추억을 아들에게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던 나의 동생은 남달리 그림을 좋아했고 종이에나 땅우에나 앉으면 그림을 그리곤하였다.

그러던 동생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화구를 사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동생의 남다른 재간을 미음속으로는 대견해하고있었으나 수업료마저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 형편에서 화구까지 사줄수는 없었다.

한번 안된다고 하면 벼락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미 그리고 집안형편을 잘 알고있는 동생은 더는 화구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

형이라고 하지만 나로서도 동생을 도울 힘은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후 동생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길로 말없이 나갔다가 저녁늦게 돌아오곤하였다.

어데를 그렇게 공부도 안하고 나다니는가고 한두번 물었으나 그때마다 동생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씨원스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동생이 화구를 살수없게 된 나머지 실망해서 그러는것이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동생을 도와줄 방도를 궁리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선배에게서 쓰던 붓 몇자루와 화구들을 얻어가지고 서울 명동앞거리를 지나오는데 갑자기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퍼부었다.

나는 비를 굶느라고 가까이 있는 구두방앞에 가서 섰다.

한동안 퍼붓다 말것 같던 비는 시간이 가도 좀체로 멎을상싶지 않았다.

거리엔 이따금 자동차가 비물을 튕기며 지나갈 뿐 갑자기 내리는 비라 사람들은 한결같이 길랑옆에 비켜섰다.

그런데 한 소년이 겨드랑이에 신문을 끼고 《신문사세요, 신문이요.》 하면서 비를 굶고선 사람들 앞을 지나가고있었다.

하지만 이제나저제나 비가 멎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누구도 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문팔이소년은 그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던 지 내가 서있는 맞은편 화구점앞에 가더니 지친 듯 걸음을 멈추었다.

무심코 건너편을 바라보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물에 빠졌나온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신문팔이소년은 다름아닌 나의 동생이었다.

(아니 저 애가?)

나는 전류에 닿은듯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동생은 내가 맞은편에 서있다는것도 모르고 화구점의 진열장을 애타게 들여다보고있지 않는가.

순간 나의 가슴에는 송곳이 날아드는것 같았다.

나는 더는 참을수 없어 바람같이 길을 건너 동생에게로 갔다.

《아니 너 어찌자고?》

《형!》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않던 시간에 나를 만난 동생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 오늘까지 팔면 붓을 살수 있는데 이렇게 비때문에 ...》

동생이 거드랑이에 낀 신문은 절반나마 젖어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동생이 하루같이 저녁늦게 들어오게 된 까닭을 알수 있었다.

아버지나 나한테 줄라야 별 뽀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동생은 하루공부가 끝난 다음 제힘으로 다만 몇자루의 붓이라도 사보겠다고 이렇게 신문팔이에 나섰던것이다.

《이것아!》

나는 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며 비물에 흠뻑 젖은 동생을 와락 끌어안았다

둘째가 대학에서 화구를 타온 날 내가 한 동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나는 그때 둘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오늘의 행복이 크면 클수록 남조선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것이다.

그때의 그 이야기가 둘째의 가슴에 맺혀 이렇게 한편의 그림으로 재현될줄은 몰랐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우리 가정을 늦가을의 락엽처럼 사방으로 내던졌다.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나에게는 행복한 운명이 차례였지만 남조선에 남아있는 동생은 지금도 그 소식조차 알길이 없다.

나는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새삶을 누리게 된 다음에도 남조선에 두고 온 동생의 생각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전변된 벽찬 사회주의현실을 화폭에 옮기는 행복한 미술가들을 볼 때마다 남조선에 두고 온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런 날 밤이면 미제날강도놈들의 군화에 짓밟힌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두고 잠못 이론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우리 조국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삼촌과 조카가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걷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이것은 비단 나혼자만의 가슴에 박힌 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소리치면 대답할수 있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는 가슴아픈 정경이 바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비참한 불행인것이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인한 조국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 그리고 우리 인민의 가슴에 서린 원한을 생각하면 한 가정 한 개인의 운명은 문제로도 될수 없다.

그러나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러한 비극적사태가 한두가정도 아닌 우리 민족에게 들썩워진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 조국의 통일은 더는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억압받고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동정은 더욱 커가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은 세월이 흐를수록 높아가고있다. 야수같은 미제침략자들과 그의 피물은 주구 남조선피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때 우리 가정만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 들썩워진 이 불행이 끝장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남조선의 형제들도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길을 걷게 될것이다.

통일의 그날 나의 동생이 조카가 그린 《삼촌의 소원》을 보게 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할가.

비록 자신은 원한의 세상에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되찾을수 없는 세월을 원통하게 흘러보냈지만 우리 시대의 미술가로 자라난 조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리라.

그때 둘째아들은 삼촌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재생의 미소를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게 될것이다.

심장의 고동소리

리춘복

작업교대가 끝난 퇴근길은 흥겨웠다. 갈림굴마다에서 굴진공들과 탄부들이 인차가 기다리고있는 기본경도로 떠들썩히 모여들고있었다. 6 갱 압축기 운전공 리혜숙의 얼굴에도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친 기쁨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누구보다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탄부들속에 자기도 어엿한 한 전사로 끼워 있는것이 여간만 자랑스럽지 않았다.

그가 인차에 막 오르려는데 눈을 찌르는듯한 밝은 간데라불빛이 얼굴에 확 쏘렸다. 누군가 장난을 하는것 같아서 혜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자 인차안에서 은근하면서도 어딘가 비양기가 섞인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혜숙동무, 오늘 압축기가 돌아소?》

혜숙은 잠시 얼떨름해졌다. 압축기는 한순간도 멎지 않고 돌아올뿐만아니라 정상기압을 보장했던것이다.

《압축기는 만바람을 보냈어요.》

혜숙의 목소리는 저도모르게 쌀쌀해졌다.

《흥, 조화로군. 압축기 혼자 공회전을 한 모양이지. 폐기신청서를 낼 때가 됐으니까.》

젊은 굴진공 최동무는 여전히 볼부는 소리를 하고있었다. 신호종소리가 울렸다. 뒤미처 인차가 한번 꿈틀하더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혜숙은 일차에 성급 올라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발목에 망썩이라도 달아맨듯 그 자리에서 움직일수가 없었다.

(분명 압축기는 제대로 돌아갔는데...)

원인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합숙에 가 발편잠을 들것 같지 않았다. 폐기신청서를 낼 때가 되었다는 말이 가슴에 딱 걸려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다.

순임어머니와 함께 20년간을 고스란히 만가동한 압축기를 어찌 그렇게 말할수 있을가. 혜숙은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굴진막장을 찾았다. 월 30 메터의 암벽을 밀어나가는 고속도굴뚝기전투장은 활기가 없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맞아주던 굴뚝기공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것이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들 그러세요?》

《혜숙동무, 이 착암기를 잡아보오. 푸들푸들 떨기만 하면서 도무지 정대가 나가지 못하니 가슴팍으로 밀다싶이 구멍을 뚫고있는걸... 압축공기가 굴뚝기공들의 힘이라는걸 운전공들이 모르지

않을텐데...》

초소장이 맥을 잃고 혜숙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압축기는 정상인데요...》

《아니, 그럼 압축기는 돌아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약하단말이요?》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혜숙은 그 자리에 더 서있을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어버리고싶은 생각이 불갈았다...

(원인이 어디 있을가...)

혜숙은 그길로 압축기장으로 달려왔다. 방금전에 교대한 순임어머니는 잠시 어디로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문득 압축기와 함께 20년을 살며 일해왔다는 리순임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발파진동에 흔들려 배관이음새의 바킹이 빠지지 않았을까?)

걸레를 집어든 혜숙은 굴진막장으로 뻗은 압축공기배관을 따라 걸어나갔다. 간데라불빛에 환히 드러난 배관으로는 압축공기 흐르는 소리만이 고르롭게 들려왔다. 3호결굴의 굽인돌이에 들어선 그는 썩-하는 소리에 소스라쳐 놀랐다. 폭포수가 떨어지는듯한 그 소리는 압축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이였다. 혜숙은 인차 바람이 새는 구멍을 찾아냈다. 발파진동으로 배관이음새에 끼웠던 바킹이 떨어진곳으로 강한 바람이 쏟아져나오고있었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보일락말락한 째새로 착암기 한대를 돌릴만한 바람이 새어나가고있었다. 빠져나간 바킹은 어디로 달아났는지 찾을수가 없었다. 바람 새는 째를 걸레로 뽕뽕 틀어막았다. 거세게 뽕겨져나오던 바람은 드디어 숨을 죽였다.

혜숙은 다시금 배관을 따라 발뼉발뼉 걸어나갔다. 얼마쯤 걸어나가던 그는 저쪽 굽인돌이에서 간데라불이 반짝거리는것을 보았다. 탕-탕-하고 배관을 두드리는 망치질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배관을 수리하는것이 아닐까?)

호기심이 부쩍 동한 혜숙은 발걸음을 재우쳤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아! 소리를 질렀다. 순임어머니가 바람이 새는 배관이음새에다 나무개비를 대고 망치로 때려박고있었다.

혜숙은 학생이 선생앞에 섰을 때처럼 어줍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

《압축기운전공은 압축기만 잘 정비해서 만가동

시키면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말할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도 석탄생산을 책임진 주인이 아니냐. 당 제 6 차대회를 맞이하여 더 많은 석탄을 캐자는 탄부들을 도와야지. 압축기가 생산한 바람 한 점이라도 허실해서야 되겠니.》

순임어머니는 친딸을 대하듯이 차근히 타일려 주었다.

순임어머니와 헤어져 갱구로 나오는 혜숙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웠다. 내가 이렇게 일하자고 처녀의 몸으로 여기 령대탄광에 자원해왔던가? ... 고향집이 있는 순천읍을 떠날 때 연구사인 아버지가 간곡히 타일려주던 말이 귀가에 쟁쟁히 울려왔다.

《사람의 한생은 결코 긴것이 아니다. 사람은 삶의 한순간한순간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값있게 바쳤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것이다.》

혜숙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우리 당에서 가장 심려하는 석탄전선에서 청춘을 빛낼 각오를 다지며 산설고 물설은 여기 구봉골로 찾아왔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도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석탄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아로새긴 혜숙은 이튿날부터 기대관리에서 남다른 솜씨를 보였다. 인차에서 내려 압축기장에 들어설라치면 쿵쿵쿵-하고 고르로운 압축기소리가 정답게 들려 왔다. 멀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압축기가 정상인지 어디에 고장이 생겼는지 인차 알아맞히는 순임어머니생각이 불쑥 들었다.

(나는 언제면 순임어머니와 같이 압축기소리를 내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느낄수 있을까?...)

혜숙은 그 비결을 알고싶었다. 순임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벌써 가는귀가 어두워오건만 압축기에서 알릴락말락하게 나는 잡음을 가려듣고도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있다.

혜숙은 귀가 밝은 자기가 도무지 잡음을 가늠해 들을수 없는것이 여간만 안타깝지 않았다.

지난해 가을에 있던 일만 해도 그랬다. 압축기 스위치를 넣고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 쿵쿵쿵 단조롭게 울리는 그 소리는 어렸을 때 요람속에서 듣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다.

고즈넉한 굴안에 한가락으로 편속되는 그 소리에 살풋이 졸음이 엄습해들었다. 몇번 머리방아를

찢던 그는 누군가 등을 살며시 어루만지는데 깜짝 놀라 정신을 가다듬었다. 순임어머니였다.

《졸면 안돼. 압축기운전공의 제일 큰 사고는 조는것이야. 한순간 깜빡 조는 새에 어느 부속이 고장날수도 있고 압축기가 통채로 날아오를수도 있다는걸 명심해야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20년전 자기가 처음 압축기를 맡았을 때 저질렀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때 얼마나 졸았는지. 선풍한 감촉에 정신을 차려보온 압축기장이 시꺼먼 물로 가득찼다. 막장에서 터진 물이 열려진 나들문으로 흘러들었던것이다.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스로 스위치를 껐지만 순임어머니는 며칠을 두고 석탄장지를 퍼냈다고 한다...

압축기장에 들어선 혜숙은 인계를 받자 전교대 동무가 청소를 깨끗이 했으나 다시금 결레로 잔잔스레 기대를 닦았다. 기대에는 윤기가 자르르 돌았다.

스위치를 넣었다. 압축기는 여전히 고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았고 기압계의 바늘도 정상수치를 가리켰다. 이전같으면 의자에 앉아서 기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을것이다.

혜숙은 기대에서 흘러떨어진 폐유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순임어머니가 손수 만든 채에다 걸쭉한 기름을 거르기 시작했다. 절약과제를 넘쳐했지만 한방울도 허실할수 없는 기름이었다. 한창 기름을 거르던 그는 압축기소리에서 어딘가 절고있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통통통 하는 고르로운 그 음향속에서 절렁절렁 하는 잡음이 간간이 들려왔다. 귀를 한껏 도사릴수록 그 소리는 유포하게 들렸다. 결코 록감이 아니였다. 순임어머니는 절렁절렁하는 소리가 나는것은 변환에 금이 가거나 그것이 깨어졌을 때 난다고 했다. 혜숙은 급히 스위치를 끄고 기대를 뜯어보았다. 아니나다를가 하나의 변환에 실금이 가있었다. 재빨리 새 변환으로 갈아대고 기대를 돌렸다.

교대시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순임어머니는 시집갔던 딸이 돌아왔을 때처럼 혜숙의 어깨를 부여 잡고 기뻐했다.

《이제는 우리 혜숙이가 한다하는 운전공이 됐구나. 압축기를 제몸처럼 아끼게 되면 그 소리도 심장이 뛰는 고동소리처럼 쉽게 가려들을수 있는 법이란단.》

혜숙은 순임어머니의 말이 고마웠다. 지난 20여년간 압축기를 자기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순임어머니는 가느다란 잡음소리를 듣고도 고장을 미리 막지 않았던가. 혜숙은 이제야 압축기

소리를 가려들었을 줄 아는 《비결》을 찾은것이 무등 기뻐다. 오랜 로동계급의 주인다운 일본새에서 그는 다시금 새로운것을 배웠다.

하루의 보람찬 로동을 끝마친 기쁨을 안고 혜숙은 인차가 기다리고있는 기본 강도로 나섰다. 입에서는 절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인차에 다가가 왔을 때 그의 얼굴에 눈부신 간데라불빛이 쏘였다.

《아, 이제보니 우리 운전공동무가 노래도 잘 부르는군. 오늘은 만바람이야. 요전날 폐기신청서를 내자던 말은 취소요.》

전날 압축기가 돌아갔느냐고 비꼬던 굴진공 최동무였다.

《오늘은 압축기를 들리지 못했어요.》

혜숙은 새조롭해서 툭 웃었다.

《압축기는 멋있는데 툽툽소리는 혜숙동무 가슴

속에서 울려나왔다.》

최동무는 반죽좋게 싱글벙글거렸다. 그 능청스러운 얼굴모양이 우스워 혜숙은 더 참지 못하고 깔깔 웃어댔다.

《그럼요. 압축기소리가 우리 운전공의 심장의 고동소리라는건 몰랐어요.》

《심장의 고동소리라... 그거 아주 시적이군!》

그 말에 굴진공들과 탄부들의 웃음보가 터졌다. 하지만 혜숙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석탄전선의 전초병답게 충성의 고동소리를 가락맞게 울리며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을 더욱 빛내리라. 우리 당 제 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하리라 혜숙은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

수필

넓어지는 땅을 두고

리영춘

이 땅에 피는 꽃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한다. 꽃은 그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가 하면 아름다운 세계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나 꽃을 사랑하는것이라.

하지만 꽃은 저절로 피어나지 않는다. 씨앗이 떨어져야 할 건전한 땅과 함께 정성과 땀이 깃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에 매혹되지만 그 꽃을 키워낸 원예사의 땀과 정성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뿐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원예사의 희열이 있고 보람이 있는것이다.

나는 바로 그런 《원예사》를 알고있다. 사람들의 심장속에 꽃씨를 심어주고 자양분을 주고 향기 그윽한 꽃잎이 피도록 키워주는 그런 사람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당비서들은 항일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의 사업작품을 본받아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생산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싶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한 평범한 당원, 리당비서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해바다기슭

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있다고 하여 선돌마을, 집집 울안에 감나무 휘늘어진 한 소박한 마을의 리당비서이다.

나는 선돌마을과 어렸을적부터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이 외진마을에 외가집이 있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내군했었다.

그것도 벌써 20여년전일이다.

나는 얼마전에 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것은 외가집이 있던 그 마을이 이제는 바다기슭의 마을이 아니라 별방마을로 되었다는것이였다. 바다를 가로막아 간석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찾았다는것이다.

나는 황금의 이삭 설레이는 넓은 들판을 그려보았지만 눈앞에 먼저 떠오르는것은 바다물이 나가면 구멍이 숭숭 뚫린 감탕밑에 갈게들이 벌벌 기여다니고 호미로 조개 캐던 바다와 울타리에 다시마를 널어말리던 마을이있다.

물론 농장자체의 힘으로 새땅을 찾아냈다는 사실도 놀라왔지만 최신타라는 청년작업반장에 대한 소식은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최신타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어린시절에 외가집 이웃에 살던 소년, 감탕밭에 나가서 몸집이 주먹만한 서해문어를 잡아내는 법을 열성적으로 나에게 가르쳐주던 어린시절동무였다.

어떻게 하여 그가 사람들이 자랑하는 새땅찾기의 선구자로 될수 있었을가. 여기에 많은 이야기

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글쓰는 사람의 직업적인 흥분이랄까, 내가 선돌 마을에 도착한것은 이른새벽이었다.

날이 흰히 밝아오자 대지우에 포근히 덮였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나의 눈앞에는 선돌마을에서 개간하였다는 간석지가 펼쳐졌다. 자를 대고 그어놓은것 같이 가로세로 내달린 새 논뚝을 경계로 물기를 한껏 머금은 기름진 들판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금시 황금물결이 설레일게고 깊숙이 고개 숙인 황금이삭을 조금 다치지만 하면 온 벌판에서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리 보아야 예전의 바다의 모습을 찾을수가 없었다. 한참만에야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어놓곤하던 바다기슭의 선돌이 눈에 띄웠다. 저 바위가 선돌이라면 저 동쪽 건너간 자리에서 맛을 잡고, 그옆의 개고에서는 망둥이를 잡아내던 덩장이 놓여있던곳이 아닌가.

바로 그때 나는 논뚝우에 쭈크리고 앉아서 무슨일인가 하고있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웬 사람일까.

나의 이런 의혹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그 사람이 내가 서있는곳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혹시 못 낚이라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다렸다.

하나 그 사람은 전혀 모를 사람이다. 해벌에 타서 검송한 얼굴이 소박해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바지가랭이며 팔소매는 후출근하게 젖어 있었다. 그 사람은 얼핏 나를 쳐다보더니 다음 논뚝 길로 걸음을 옮기는것이였다.

물에 젖은 신발이며, 바지가랭이는 신새벽에 일어나 필요한 일을 위해 논벌을 걸었다는것을 말해 주었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군. 논물관리공일가, 아니면 땅의 소금기를 없애기 위해 물을 대는 책임진 사람일까.)

나는 곧 그 사람을 잊어버린채 걸음을 옮겼다.

어렸을적 친구는 뜻밖에 찾아온 나를 얼싸안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우정으로 얹혀졌던 흘러간 나날들은 두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

한참만에야 나는 내가 목적인 이야기를 꺼낼수 있었다.

《요새 최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자자하게 퍼졌더군.》

나의 친구는 그저 빙그레 웃을뿐 대답이 없었다.

몇번 다시 물어서야 최동무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난 사실 한일이 없네.... 이걸 내가 뭐 겸손해서가 아니네...》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작년가을 낱알털기를 방금 끝낸 때였네. 하루는 우리 리당비서동무가 나를 찾아왔네...》

그날밤, 리당비서와 박동무는 달빛에 젖은 바다기슭을 거닐었다.

리당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신지 벌써 퍼그나 기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해놓지 못한 자신을 두고 먼저 심각히 비판하였다.

리당에서는 다음해 농사차비와 새땅찾기를 동시에 밀고나가자는 안을 내놓았다.

리당비서는 수천년동안 바다물밑에서 잠자고있는 간석지를 가리켰다.

《저 바다물을 한번 내밀어보자는게요.》

《우리 힘으로요?》

《그렇소.》

최동무는 놀랐다가보다 억이 막혔다. 간석지개간은 강력한 기계화수단을 가진 정규적인 건설집단만이 할수 있다고 굳게 믿고있던 그였다.

그런데 한개 협동농장의 힘으로 그 거대한 자연의 힘을 이겨낼수 있단말인가.

리당비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없이 무릎을 꿇어 올렸다.

《함께 푹 막을 묘안을 찾아봅시다.》

리당비서는 먼저 감탕밭으로 들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감탕밭은 무릎까지 빠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 감탕밭을 밟아보았다.

《자! 보오. 구체적으로 100미터만 푹을 쌓으면 50정보는 먹구떨어지는 셈이요.》

달빛에 드러난 리당비서의 얼굴에는 희열이 넘쳐있었다.

그러나 최동무는 어안이 빙빙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물론 100미터의 수자는 그리 큰것이 아니다. 하나 그해 농사를 결속짓고 다음해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야 할 처지에서 그리고 로력을 따져놓고볼 때 그것은 한농장의 힘으로서는 보통 아름찬 일이 아니였다.

《비서동지, 국가에서 로력을 좀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최동무는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 ..》

리당비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그렇게 서있던 리당비서는 가지고왔던 삽을 들었다.

《한사람이 얼마나 흙을 파올리겠는가를 시험해보자는게요.》

그제야 최동무는 리당비서의 머리속에는 농장

자체의 로력으로 간석지를 개간하기 위한 구체적 인 전투계획이 세워져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최동무는 리당비서와 함께 뚝을 쌓기 시작했다. 날이 흰해져서야 키를 넘는 뚝이 감탕밭에 일어섰다.

《자, 어떻게 최동무!》

리당비서는 이마에 흥건히 내뿜힌 땀을 씻으며 빙그레 웃었다.

최동무는 머리를 떨구었다. 그러나 무거운 자책보다도 환희가 컸다. 일을 해보니 목표가 뚜렷해졌다. 문제는 그 어떤 로력수자에 있는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립장과 태도에 있는것이였다. 최동무의 가슴에는 열정이 끓어올랐다.

그날아침 간석지개간청년돌격대가 조직되었다...

최동무는 여기서 이야기를 끊으며 기름진 넓은 벌쪽으로 시선은 돌렸다. 그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청년돌격대장으로 임명됐다네. 리당비서동무는 우리와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지. 리당비서동무는 휴식참이면 주머니에서 줄칼을 꺼내서 우리들의 삽날을 세워주곤하였네.

물론 리당비서의 주머니에서 나온 줄칼은 작은 것이였지만 결코 우리들에게는 작은것이 아니었네.》

아! 이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작업복을 입고 대중의 앞장에 서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여 두달만에 100미터의 뚝을 쌓아 바다를 정복하였다. 그때부터 바다기슭에 자리를 잡고 한가롭게 떠돌던 갈매기들은 먼바다로 이사를 가기 시작하였다.

최동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항일유격대의 지휘관과 정치일군처럼 대중과 교락을 같이하고 앞장에서 길을 열어주고 떠밀어주는 참된 당일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하는 이야기였다. 이런 참된 당일군과 함께라면 무엇인들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이야기는 끝났지만 가슴에 오는 여운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이때였다.

우리 두 사람의 등뒤에서 석션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최동무가 여기 있었구만.》

그 석션한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내가 이른새벽에 논둑길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였다.

《아니, 리당비서동지가 어떻게...》

최동무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이 이제껏 화제거리에 올랐던 리당비서였다.

리당비서는 미안스런 웃음을 띠우며 나에게 이렇게 어쭙게 말했다.

《이거 안됐습니다. 이야기도중에 뛰어들어서...》

해별에 탄 검승한 얼굴, 작업복을 걸친 소박한 차림새, 어디를 보나 마음을 쏟고싶게 하는 평범한 모습이다.

리당비서는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최동무! 새로 만든 논둑이 너무 넓두만. 그리구 샘터밭을 좀 정리해야겠소. 그러면 한 두정보는 또 찾을수 있을것 같소.》

《두정보를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리당비서는 최동무에게 논둑을 고치고 토지를 정리하는데서 또다시 두정보의 새땅예비를 찾아 주었다.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주는 리당비서!

나는 가슴이 몽클하였다.

리당비서의 이슬에 젖은 바지가랭이와 팔소매를 두고 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났다.

찬이슬을 차며 새벽길을 먼저 걷는 사람!

리당비서가 터놓은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걸고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향기그윽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리당비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해별에 탄 검승한 얼굴,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다.